

# 성경적 종말론

# The Book of Revelation Book One

By James W. Knox

Korean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 1999 by King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 성경적 종말론

지은이	James W. Knox
옮긴이	김영균
초판발행	2010.1.20
발행처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1999. 6.18. 제17-292호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44-1 엘림빌딩7층
전화	0505-856-1997
홈페이지	<a href="http://www.ilovekjb.com">www.ilovekjb.com</a>
표지디자인 · 편집	최애경 choilove72@hotmail.com

ISBN 978-89-89741-18-3

정가 8,000원(별책 부록 포함)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The Christ-Honoring Commentary Series  
The Book of Revelation Book One

# 성경적 종말론

주제별로 분석한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James W. Knox 지음

김영균 옮김

**KJ** 강제임스  
KingJames

헌사	7
머리말	8
역자서문	12

사전 정지 작업	14
계시록의 구조	20

## I 제1장 기초 놓기

1. 다섯 가지 복음 22
2. 첫째 부활 28
3. 대환란에 대한 정의(definition) 34
4. 창세기와 계시록의 비교 42

## 2 제2장 교회 시대

5. 교회 시대 개관 48
6. 예언적으로 본 일곱 교회 시대 53
7. 교회 시대 총정리 73
8. 일곱 비유와 일곱 교회 77
9. 일곱 교회에 대한 다른 견해들 81
10. 일곱 교회를 통해 살펴 본 오늘날의 오류 83
11. 교회의 사라짐 87

## 3 제3장 야곱의 고난

12. 환란 때 나타날 하나님의 증인들 94
13. 환란 때의 구원 100
14. 야곱의 고난 전 3년 반 기간 중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104

# 목차

- 15. 아굽의 고난 전 3년 반 기간 중의 적그리스도 113
- 16. 대환란 때에 드러날 세계 종교 120
- 17. 세계 종교의 본부 123
- 18. 바빌론과 그 몰락 128
- 19. 아굽의 고난 후반부에 적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는가 131
- 20. 정사와 권능들 135
- 21. 이스라엘의 두 번째 광야 여행 138
- 22. 아굽의 고난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시기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 144

## 4

### 제4장 재림

- 23. 그러는 동안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150
- 24. 이삭줍기 159
- 25. 이스라엘 민족의 회심 163
- 26. 아마겟돈과 재림을 위한 준비 166
- 27. 재림과 하나님의 진노 170

## 5

### 제5장 천년왕국 시대

- 28. 천년왕국에 대한 소개 176
- 29. 이스라엘의 회복 184
- 30. 천년왕국의 체계 188
- 31. 천년왕국에서의 창조 세계 190
- 32. 천년왕국에서의 경배와 심판 194

## 6

### 제6장 다 이루었다

- 33. 사탄의 최후의 패배 198
- 34. 큰 흰 왕좌 심판 202
- 35. 마지막 날들 212
- 36. 영원 215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 한영대역(2008)” 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이 책의 저술 목적은, 우리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께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기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모든 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  
고 용기를 얻게 하고자 함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자신의 진리를 계시해 주심에 대해 우리 모두 그분께 감사를  
드리자.

성경학도 중 성경을 공부하다가 놀라운 진리를 보게 되어 다음 예배를 간절히 기다  
리다가 드디어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에게 그 진리를 보여줬는데, 도리어 조롱과 책망과  
혹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만 받고 심한 상처를 입어 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자신들만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누군가가 성경에서 진리를 보여  
주면 그가 배교했거나 이단에 빠지지 않고서는 그런 무모한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자만에 찬 사람들이 있다. 그들로 인해 상처받지 않았더라면 훌륭한 성경학  
도가 되었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러한 상처를 받아 고통과 실망을 겪은 모든 성경학도들에게 이 책을 바치고자 한  
다. 필자 역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이상한 놈 쳐다보듯이 쳐  
다보던 사람들을 만난 적이 많이 있다. “너무 멀리 가셨어”, “너무 문자적이군” 혹은 “너  
무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면 정력 낭비일 뿐일 텐데” 등과 같은 “충고”를 얼마나 받았는  
지...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금광 속을 더욱 깊이 파 들어가도  
록 은혜로 격려해 주셨고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으로 계속해서 보상을 해 주셨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격려 드리고 싶다. “진리를 계속 공부하고, 계속 찾고, 계  
속해서 기뻐하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지닌 열정과 열심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  
씀을 향한 사랑을 식히지 말라. 성령께서 빛을 주실 때 그 누구에게도 그의 눈을 부시게  
한다고 해서, 그 빛을 꺼버리도록 허용하지 말라.”

## 머리말

이 책은 성경 학도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구체적 모습을 간결하게 제시하고자 준비되었다. 여기에 제시된 것들은 전적으로 문자적인 관점에서 성경 속 예언의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다.

물론 계시록에 관한 책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으며 어쩌면 또 다른 계시록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종말에 관한 기독교 서적들은 물론, 마지막 날들에 관한 자극적인 제목으로 세속 작가들이 지은 책들도 넘쳐나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서적들이 거의 추측이거나 성경을 강론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환상 문학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성경 그 어디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한 책들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이라는 이름은 언급하지도 않고 계시는데도 계시록으로 미국의 최근 사건들을 다루는 책들도 있다.

전갈은 헬리콥터요, 짐승은 컴퓨터이며, 짐승의 표는 신용 카드 혹은 일요일 예배 제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될 때 마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총을 쏘 것이라고도 하는 등 셀 수 없이 많은 어리석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물론 납득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거부한 채 자신들의 지성과 직관만을 가지고 본성에 속한 사람의 관점에서 미래를 다루고 있다.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20세기(21세기)의 과



학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요엘서 2:6은 핵전쟁에 대한 언급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현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뿜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야서 30:27,28 같은 말씀이 무시되거나 왜곡 해석되고 있다.

이 책을 읽어 가시면서 여러분들은 충격적이거나 심지어는 이단적인 것 같은 내용을 접하시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된 내용은 전부 성경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성경 구절들의 지지를 받는 것들로만 채워져 있다. 성경에 다른 말씀이 없는 경우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선포하고자 한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저렇게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마지막 날들에 있을 사건들에 대해 실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다. Cooper(쿠퍼)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성경 말씀이 상식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면 다른 의미를 억지로 찾지 마십시오. 본문 말씀이 문맥 속에서 그리고 성경의 기본 진리의 틀 안에서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문 말씀을 문자적으로 평범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십시오.”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 충분히 1,000 페이지 이상은 할애하고도 남겠지만, 오늘날은 바쁜 시대이고 또한 이 책을 대할 독자들의 대다수는 이미 마지막 날들에 대한 주님의 계획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고 있는 분들이기에 우리는 각 주제에 대한 개관만을 제시할 것이며 나머지는 제시된 성경 구절들을 직접 찾아봄으로 자세한 내용을 얻으시기를 바란다.

본서의 목적은 다른 어떤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최대

한 간결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로써 본서는 성경을 탐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기초 및 보조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빠르고 쉽게 읽음으로써 종말에 대한 개관을 이해할 수 있는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잠깐 언급하고자 한다. 나는 1976년 12월에 즉 대학교 신입생 때 구원을 받았다. 1979년 플로리다 주 주립대학에서 두 개의 학위를 취득했고 13개월 후 2개의 단과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그 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나는 세 가정의 초청으로 성경을 믿는 교회를 세우고자 고향으로 돌아왔다.

일자리를 얻는 것이 필요했고 당장 구할 수 있었던 일은 묘지 경비(야간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였다. 필자는 혼자서 편의점 안에서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받은 교육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직업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도 목적이 있으셨다.

이런 가게들은 맥주와 담배 판매로 운영되는게 보통이다. 그런데 우리 고향 마을에서는 새벽 두시 이후에는 주류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많은 날들 동안 때론 몇 시간씩 계속해서 손님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이 필자에게는 성경을 공부할 엄청난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나는 노트를 펼쳐 각 페이지마다 본서에 나와 있는(목차 참조) 여러 제목들과 부제들을 적어놓고 창세기 1:1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 구절까지 모든 예언에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 주제별로 모두 정리해 나갔다.

약 6주간에 걸친 이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나는 다시금 각 페이지에 기록된 구절들을 확인하면서 주제가 맞게, 문맥에 맞게 되어있는지를 검토했다. 그리고 성경이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시는 시간 순서에 맞추어 각각의 구절들을 각 주제아래 세 번째로 정리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료들을 타이핑하고 등사판으로 인쇄해 1981년 교회에서 가르쳤다. 10년 후 새로운 내용들이 더하여졌고 1995년 여름에 책으로 내려고 다시

작업했다.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은 내가 23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 알려 주신 그것과 거의 동일하다.

각자 맡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준 그리스도안에서의 형제자매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이 책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교열과 사랑스런 비판을 해 준 Chris Ellison, Raymond Mc Aulliffe 그리고 Jane Whitacre 에게 감사드린다.

참조 구절을 검토하고 나에게는 이해되나 다른 누구에게도 이해될 수 없는 부분에 의문 부호를 달아준 Art Pollard, Susan Shaughnessy, Greg Snyder 그리고 Ofelia Spiteri 에게 감사드린다.

일단 어떤 일을 끝마치고자 마음먹으면 그것이 끝날 때까지는 정상 패턴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나를 이해해 준 아내 Lilian 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다섯째 혹은 여섯째 서류 케이스의 셋째 줄 4번째 선반에서 중간 크기의 붉은 책”을 찾아오라고 하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순간 내게 필요한 그 책을 찾아 가져다준 아들 Israel에게 감사한다.

펜, 종이, 음료수, 전화기, 점심 그리고 내가 책상에 그대로 머물러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다 준 딸 Tabitha에게도 감사한다.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을 보낼 수 있도록 너그러운 선물과 사랑스런 지원을 아끼지 않은 달랜드 성경침례교회의 모든 놀랍고 놀라운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신실한 기도를 해 주셨으며(이 기도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을 잘 알고 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 역자서문

6년 前 제임스 W. 나스(“성령의 열매” 저자) 형제님의 계시록 주석을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책들과 달리 한 구절씩 강해한 것은 제 2권이었고 첫 권은 주제별로 간결하게 요점을 분석해 놓은 것이었다. 교회 시대, 환란 시대, 천년왕국 등의 굵직한 주제 하에 부제를 구분해 종말론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가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숲을 파악하는 데 크게 유익하였다. 이에 잘 정리해서 킹제임스성경신학원 토요 강좌에서 종말론 특강이란 제목으로 36시간에 걸쳐 성경공부를 했다.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죄인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구원론인 반면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빗나가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잘못된 종말론이라고 생각한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로부터 영원까지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계시해 주는 책으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단순한 미래에 대한 호기심 차원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해 주는 책으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뜻을 정확히 알 때만이 우리의 매일 매일의 신앙 생활이 의미 있고 소망에 가득 차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방대한 책은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기에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읽지 않으면 여러 가지 주제가 뒤섞여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내기가 어렵다. 그간 “성령의 열매”, “확실한 기초” 등의 책자와 “창세기3장”, “히

브리서 11장”과 같은 성경 공부 개요서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 같은 설교를 통해 킹제임스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큰 유익을 끼친 낙스 형제님의 이번 책 역시, 주님께서 주신 통찰력과 지혜가 번뜩이는 책이라고 평가된다.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들 모두를 진리 안의 자유로 이끄시는 주님께서 이 책자를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추천 드리고 싶다. 부디 본서를 통해 성경의 결론이요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이 더 이상 어렵고 복잡한 책이 아니요 하나님의 원대한 플랜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0년 1월

진리침례교회 담임 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킹제임스성경신학원 원장

김영균 형제 올림

P.S. "일곱 교회(The Church Age)"라는 소책자는 이 책의 한 장(chapter)을 보급을 위해 소책자 형태로 만든 것임.

## 사전 정지 작업

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주로 다음의 4가지 해석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해 왔다.

1. 영적인 해석
2. 과거적 해석
3. 역사적 해석
4. 미래적 해석

### 영적인 해석

이 방법은 계시록에 대해 신비적 혹은 풍유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 방법은 때론 이상적, 혹은 주제별, 혹은 순환적 방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학파는 계시록이 교회 시대 전체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가 교회 역사의 각 시대의 여러 측면을 나란히 보여주고 있으며 결국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역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음)으로 그 절정에 달한다고 보고 있는 점에서 일반교회사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 어거스틴 그리고 제롬(이 모두는 아프리카 출신의 라틴 계열임)등이 이 해석을 따른다. 이 방법을 따르는 최근의 해석자들은 계시록은 기본적으로 교회와 악이 신약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 벌이고 있는 갈등을 다루고 있다고 믿는다. 이 관점에 따르면 계시록은 성도들을 가르치기 보다는 격려하기 위해 기록 된 셈이다.

이 해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계시록 자체가 주장하고 있는 예언적 특성(1:3, 10:11, 22:10, 22:18-19)을 무시하고 있으며 계시록을 푸는 열쇠 구절(1:19)을 거부하는 동시에 계시록이 재림과 그 이후의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1:7, 3:11, 16:15, 22:7,20)을 간과하고 있다.

### 과거적 해석

이 학파는 계시록은 이미 실제로 성취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초기의 과거학파는 계시록 6-11장이 초대 교회 시대에 유대인의 패배와 네로 황제 통치 때 이미 성취되었으며 나머지 장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언급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해석은 스페인의 예수회 사제인 알까사르(Alcazar)가 1614년에 주장했다고 알려져 있다.

17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과거학파는 계시록 4-11장은 교회와 유대교와의 갈등을, 그리고 12-19장은 교회와 이교도와의 투쟁사를, 그리고 20-22장은 교회 가 오늘날 쟁취한 승리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방법 역시 계시록의 열쇠 구절(1:19)을 무시하고 있으며 계시록에 등장하는 상징들에 대해 지나친 상상적 의미를 부여하고, 4-19장의 사건들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못하고 있다.

이제껏 들어 본 가장 희한한 계시록 과거학파의 주장은 새 예루살렘의 묘사가 오늘날 지상의 교회의 현 상태와 잘 맞아떨어진다는 설이다. 이 정도라면 프랭크 바움(Flrank Baum)이 쓴 오즈(Oz) 이야기가 이 해석보다는 더 흥미롭게 읽을 만 하다고 하겠다.

### 역사적 해석

이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계시록은 교회사 전체를 전부 다루고 있

다고 한다. 물론 이 학파 내에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대체로 다음의 4가지 가정을 전체로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1. 계시록은 예루살렘의 파괴와 유대 전쟁들 그리고 로마의 내란들에 대한 예언적 묘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 견해는 웨스타인(Wetstein) 교수와 영국의 고교회(high church)에 의해 주창되었다.

2. 계시록은 로마의 이교도 황제들에 의한 그리스도인의 박해, 기독교 황제들 치하에서의 행복한 시대(콘스탄틴 이후로부터)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 이 견해는 초기 헬라 및 라틴 교회들의 교부들의 주장이다.

3. 계시록은 진정한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교황들의 폭정 및 학대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으며 이 교황 제도가 결국은 무너짐을 예언한다. 이 우화 같은 견해는 13세기 유행했던 요아킴(Joachim)에 의해 주창되었다가 후일 프란시스코 학파에 의해 수용되었고 후일 초기 종교 개혁자들(요한 위클리프, 마틴 루터, 요셉 미드, 아이작 뉴턴 및 기타 여러 사람)의 일반적 견해로 인정되었다. 알버트 반즈(Albert Barnes)의 책이 이 학파 중 가장 많이 읽히는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프로테스탄트들의 결실은 무너져 내렸고 웨스트코트(Westcott)와 홀트(Hort)에 의해 개신교도들은 급속도로 카톨릭 우리 안으로 끌려 들어가고 말았다.

4. 계시록은 마틴 루터와 개혁자들 그리고 이들의 후계자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단 사상을 침투시킬 것을 예언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 견해는 교황 지지파들에 의해 단순히 종교 개혁에 대한 보복으로서 만들어진 것 같다. 이 이야기는 월즈리(Walmsley)가 쓴 ‘교회사’ (The History of the Church)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옹호되고 있는데 저자의 성명은 파스토리니 주교(Signor Pastorini)로 위조되어 있다.

앞선 두 학파의 오류들이 역시 이 학파에게도 그대로 해당된다. 무엇보다도 이



세 번째 학파는 성경의 나머지 예언들과 계시록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계시록의 여러 구체적 예언들에 대해 전혀 적절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계시록을 다루는 주요 이단 종파들 (Koresh, White, Rutherford, etc) 역시 계시록을 성경 나머지 65권과의 관련을 무시한 채 독립된 책으로 별도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는 참조 구절 비교 방법이 없이는, 계시록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해석이 되고 말 것이다.

### 미래적 해석

이 학파는 계시록의 대부분 (4-22장)을 미래적 사건으로 해석하며 그 근거로 계시록의 열쇠 구절인 1:19절을 사용한다.

이 해석은 구약의 예언들에 초점을 맞춘다. 주의 날에 관한 여러 구절들(사 2,4,34), 왕국에 관한 구절들(사35), 그리고 재림에 관한 구절들(스가랴)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 예언의 성취는 그 어떤 과거적 견해 및 현대적 해석에 의해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 미래적 해석에 동의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들은 계시록의 구절들과 연관되어 해석된다. 물론 미래적 해석 체계 내에도 그리스도의 재림 및 지상 왕국의 건설에 대해 세 가지 입장이 있다. 이 세 가지란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리고 전천년설 이다.

### 후천년설

이 견해에 따르면, 교회의 복음 전파로 인해 이 세상은 결국 기독교를 수용하게 될 것이며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한다. 일단 이 일이 완수되고 나면 주 예수께서는 인류가 그분을 위해 준비한 그 왕국에서 통치하시도록 초

청을 받고 임하게 되실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후천년 주의자들은 실제적인 천년왕국의 존재를 믿기는 하나, 이 설은 비성경적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이 세상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주장은 1726년에 사망한 유니테리안(Unitarian)교 설교자인 다니엘 윗트비(Daniel Whitby)에 의해 많이 알려 졌으나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시들어 버렸다. 제2차 세계 대전은 이 견해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의 기초를 허물어뜨리고 말았다.

### 무천년설

이 견해에 따르면 실제적인 천 년의 통치는 없을 것이며 신약의 교회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약속과 예언들을 상속 받았다고 한다. 이 가르침은 히포의 어거스틴(354-430)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즉각적인 재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분께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거부했다.

이 주장을 지탱하는 유일한 길은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풍유적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의 많은 진리들을 부인하는 것뿐이다.

### 전천년설

이 견해에 따르면 주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으로 돌아오셔서 의의 왕국을 직접 세울 것이라고 한다. 이때 모든 인류는 천 년 동안 이분의 통치에 순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곧 성경이 의미하는 바라고 믿기에 전천년설만이 유일하게 받아들일 만한 결론이라고 믿는다.

만약 계시록이라는 책이 문자적으로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22장 속에 오늘날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갖고 있는 셈이다. 만약 이 책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셈이다.

만약 계시록의 내용이 그대로 사실이라면, 우리는 비록 개개의 그리스도인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그리고 교회가 집합적으로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들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소망을 갖게 된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또한 헛된 종교만 하나 더 갖고 있는 셈이다.

만약 계시록이 그대로 사실이라면, 민족들 간의 분쟁이나 미치광이 정치 지도자들마저도 소망의 전조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면 곧 영광스러운 아침이 도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만약 계시록이 실제로 그대로 사실이라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백성들은 구조하실 것이요 자신의 원수들은 처벌하여 제거하실 것이며 자신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혼란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계시록 말씀은 실제로, 그대로 사실이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 갈 때 다양한 주제들을 접하게 될 터인데 꼭 인쇄하시기 바란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말할 수는 없다. 앞에서 설명되지 않은 것들은 다른 부분들에서 보완되거나 분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르면 어느 부분에서 분명치 않았던 것들이 다른 곳에서 분명해 졌다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 계시록의 구조

1장	도입
2-3장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교회는 일하고 있음)
4-5장	하늘의 모습 (교회는 안식하고 있음)
6:1-7:8	이 땅의 모습 (여섯 인, 144000명의 증인)
7:9-8:6	하늘의 모습 (많은 무리들, 일곱 번째 인)
8:7-11:14	이 땅의 모습 (여섯 나팔)
11:15-11:19	하늘의 모습 (일곱 번째 나팔)
11:19	이 땅의 모습 (대 지진)
12:1-12	하늘의 모습 (여자, 아이, 용)
12:13-13:18	이 땅의 모습 (두 짐승)
14:1-5	하늘의 모습 (어린 양과 144000)
14:6-20	이 땅의 모습 (여섯 천사)
15:1-8	하늘의 모습 (일곱 병)
16:1-18:24	이 땅의 모습 (바벨론의 멸망)
19:1-16	하늘의 모습 (어린 양의 혼인식, 왕의 강림)
19:17-20:15	이 땅의 모습 (다섯 마지막 심판)
21:1-27	새 하늘과 사람들
22:1-22:5	새 땅의 사람들
22:6-21	결론

# I 기초농기

과거의 교훈 중 단 하나도 배운바 없고  
단 하나도 적용된바 없고  
오히려 상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위험하다.

Winston Churchill

The Gathering Storm 에서

## 1. 다섯 가지 복음

당신은 보고 있으나 관찰하고 있지는 않다.

Artur Conan Doyle경  
Scandal in Bohemia에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작하자. 제목을 보고서 시작하기도 전에 손을 놓지 말  
기 바란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하늘  
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길이요 진리이  
시며 생명이시기에 그 누구도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요 14:6).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죄의 속죄와 뒤이은 부활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  
남녀노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믿음을 통해 영원히 죄로부터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야말로 복음인 것이다.

그러나 선택하시며(마19:16~17), 그 영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갈  
5:22~23) 하나님께서 복음, 혹은 좋은 소식이라고 불릴 수 있는 메시지를 모든

시대에 단 하나만 전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내신 4가지 다른 복음(좋은 소식이 담긴 특별한 메시지)이 나와 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기 위해(딤후2:15)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서로 다른 메시지들을 인정해야 하며 이것들이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 1. 하늘 왕국의 복음

이 복음은(마24:14)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눅1:30~33)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 이라는 복된 소식을 말한다.

이 복음의 선포는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다. 그것은 침례인 요한(마3:1-3), 주 예수님(마4:17), 그리고 열두 제자(마10:7)가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기간 중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파한 것이었다.

왕국 복음이란 늘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고 수립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하늘의 왕국을 다루는 비유와 설교는 모두 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중 최고 국가로 하는 문자적인 왕국이 지상에 세워진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왕의 선두주자(침례인 요한)는 감옥에 갇혔다가 목베임을 당했다(마 14장). 열두 제자는 왕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마26:56). 그리고 유대 민족은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요19:15)라고 외쳐 댔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으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눅19:14). 그리고는 자신들의 메시야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에 요청했다.

그 결과 왕국 메시지는 하나님에 의해 한쪽으로 제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왕 없이 많은 날들을 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호3:4).

## 2.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은(행 20:24), 하나님의 아들께서 온 세상의 죄값을 갚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자신을 영접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의 구원을 보장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고전 15:1-4, 요 1:12)는 복된 소식을 말한다.

이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복음(롬 1:1), 그리스도의 복음(고전 9:12), 화평의 복음(엡 6:15)이라고 알려져 있다.

은혜의 복음은 항상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된 것이다. 이 왕국은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는(요4:24, 눅17:20-21) 것으로 이 왕국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의 왕국을 다루는 비유와 설교는 모두 다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몸의 구원자요 교회의 머리로서 모시게 될 그런 왕국과 관련된 것이다.

## 3. 영광스러운 복음

이것은 은혜의 복음의 특정 측면에 관한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고후 4:4, 딤후 1:11) 많은 아들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이들을 땅으로부터 데리고 올라와,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게 될 것을 다루고 있는 복음이다(히2:10).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복음이란, 은혜의 복음을 믿은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축복과 보상에 대한 복된 소식인 셈이다.

## 4. 영존하는 복음

이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왔다는 좋은 소식이다. 이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직전에 천사들이 선포하는 복음이다(계 14:6-7).



이 복음에는 야곱의 고난이 곧 끝나게 되고 왕께서 오신다는 선언이 포함되어 있다. 오래 전에 약속하셨으나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인해 제쳐 놓아졌던 그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결국 다시 말해 영존하는 복음이란, 왕국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축복과 보상에 대한 좋은 소식인 셈이다.

이 네 가지 복음의 핵심 요소들을 짧게 요약해 보도록 하자.

#### 왕국 복음

왕이신 그리스도

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지상에 세워짐

눈에 보이는 왕국임

#### 은혜의 복음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교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하늘에 세워짐

보이지 않는 왕국임

#### 영존하는 복음

위의 왕국 복음이 나타나게 됨

#### 영광스러운 복음

위의 은혜의 복음이 나타나게 됨

### 5.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복음이란(갈 1:6-12, 고후11:4) 참된 복음이 왜곡되거나 어느 한 시대에 해당되는 복음을 다른 시대에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 십계명에 순종하고 산상 설교에 따라 살아야 새로운 출생(거듭남)을 하게 되고 하늘에 가게 된다고 가르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복음”이다. 이는 왕국 복음의 요구 사항을 은혜의 복음의 보상에다 적용했기 때문이다.

\*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신뢰할 때 이 지상에서 풍요를 누리게 되고 모든

일에 평안을 얻게 된다고 확신시킨다면, 이 또한 “또 다른 복음”인 셈이다. 왜냐하면 이 또한 은혜의 복음의 요구조건을 왕국 복음의 보상에다 적용했기 때문이다.

\* 여호와와 증인이 왕국과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성경적 진리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다가올 환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속한 진리일 뿐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왕국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늘에 가지 못한다고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또한 “왕이 너를 위해 오신다네” 라고 노래하며, 사회 개혁을 위해 일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지상 왕국의 확장에 이 십일조가 쓰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모두가 진리가 잘못된 곳에 적용된 예이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비유의 차이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의 휴거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신약에 나오는 여러 복음들 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온갖 교리의 풍조에 떠밀려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공부하는 학도라면 “구원하다”(save), “구원 받았다”(saved), 그리고 “구원”(salvation)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를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반드시 주목해야만 한다.

전쟁에서 적에게서 구원받았지만(saved)후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물속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지만(마 14:30-31) 여전히 회심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눅 22:32).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 받았지만 죄의 권능과 다투고 있는 사람도 있다(롬 7장). 대환란 때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죄들로부터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신약 성경에는 하늘의 왕국에 관한 구절들 중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명령(계명)을 지켜야만 된다고 지적하는 구절들이 있다. 이때 서로 다른 복음들 간의 차이를 잘 이해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 지상(earthly)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가 하면,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늘(heavenly) 왕국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다루는 성경 구절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보내게 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긴 하다. 그러나 각 시대마다 자신의 믿음의 증거로서 해야 하거나 믿어야 할 것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히브리서 11장은은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또한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여기 등장하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의 지시 사항에 반응하며 행동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 받아 하늘로 가게 된다. 그러나 환란 시대의 구원은 민족들이 심판 받을 때 불 용광로로부터 건져질 구원으로, 이때는 광야로 도망가서 들키지 않고 숨어 있어야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만 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모든 것이 다 “구원”과 관련된 구절들이지만, 조건과 상황이 서로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시대든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지 오늘날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우리 시대 이전에 살던 분들과 교회 시대 이후의 분들에게도 주어진 책이기 때문이다.

## 2. 첫째 부활

인생은 실재이다! 인생은 열정적이다!

그리고 무덤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너는 먼지요, 먼지로 돌아가리니

이 말은 혼에 대한 것이 아니다.

Henry Wadsworth Longfellow

A Psalm of Life에서

우리는, 성경은 일관된 논조로 인류에게 무덤을 넘어서(내세) 삶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한다. 부활에 관한 사상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에 이미 알려져 있으며 선언되어 있다. 욥은 죽은 자의 다시 일어남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다음과 같이 열정적으로 선포한다.

“내 구속자께서 살아 계시는 것을 내가 아노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욥 19:25-27)

모세와 다윗, 그리고 그 밖의 많은 대언자들이 다시 살 소망의 약속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도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위대한 욕의 선언 이후 부활에 대한 진술들이 희미해지고 사라져 간 것이다. 죄의 영향과 범법과 사망으로 점철된 세대들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인류는 이 세상 너머의 삶에 대해 더 강한 소망과 확신을 체험하는 대신에, 죄의 노예가 되어 그저 이 땅에서 당장의 필요만을 찾는 짐승이 되어 버렸고 영원한 하늘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게 된 것이다.

성령께서는 전도서에서 이 땅에서 살았던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의 말을 빌려, 이 일시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저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소망이 어두움과 불확실성 속으로 가려져 버렸음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에 반해 신약 성경은 얼마나 다른 모습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으니 이 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시다(요11:25). 이로써 우리는 그 분께서 모든 어두움과 그림자들을 몰아내고 내세에 대한 충만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을 보게 되었다. 주님께서서는 바로 이 일을 하셨다.

우리는 4복음서를 읽어가다가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면 어김없이 제자들이 전적으로 혼돈에 빠져드는 모습에 충격을 받게 된다. 그들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깨닫지 못했다. 때로는 중얼대기도 하고, 그들끼리 따져 보기도 했고, 심지어는 그분을 꾸짖기도 했으며, 때로는 그 주제에 대해 주님과 대화를 시도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부활의 참된 특징에 대해 전혀 감을 잡고 있지 못했음을 드러내고 말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기뻐해야만 한다.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복된 소망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영생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나는 구약의 영웅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지 않는다. 또한 나는 그들보다 내가 더 거룩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서 기록

된 말씀으로 진리를 주신 것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요 16:13)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구구단을 알고 미국의 여러 주들의 수도(capital)를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너무도 많은 지식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의 조명이 없다면 우리가 영적인 것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지성을 내세운 모든 교만을 회개하고 진리의 계시자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야만 한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그저 단일한 일반적 부활만을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단 12:2, 요5:28-29, 행24:15). 그러나 성경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사건이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계20:1-5, 요11:23).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OF)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죽은 자들로부터(FROM)의 부활이라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다(요11:23-25).

그러나 이 의로운 자들의 부활(불의한 자들은 제외됨)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다(눅20:35-36, 14:14, 살전4:16, 히11:35).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째 부활(추수)과 비교되어 제시된다. 수확에는 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첫 열매들, 주 수확 그리고 이삭줍기이다. 이 세 가지는 동일한 열매를 거두지만 때와 계절에 따라 양이 서로 다르다. 마찬가지로 첫째 부활도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플로리다에서는 아직 겨울인 동안에는 토마토를 실내에 작은 항아리에다 심는다. 그러다가 서리가 내리는 시기가 끝나고 나면 이 작은 식물은 정원이나 밭으로 나가게 된다. 약간의 열매가 일찌감치 달려 대량 수확이 있기 수 주 전에

익어간다. 이 초기 토마토들이 소위 “첫 열매들”(first fruits)들로 알려진 것이다.

초여름이 되면 토마토는 다 자라게 되어 토마토가 가득 열리는데, 이때는 가지를 곧바르게 세우기 위해 지주를 받쳐준다. 곧이어 열매들은 익어가고 풍성한 생산을 하려면 매일같이 열매를 따줘야 한다. 이것이 주 수확(main harvest)이다.

이 주 수확이 끝나고 나면 토마토를 뽑거나 잘라서는 안 된다. 날씨가 따뜻할 경우 몇 개의 토마토들이 계속 달려 익어가기 때문이다. 비록 밝은 초록빛이 사라지고 잎들이 시들고 떨어지기는 해도, 주 수확이 끝나고 나서도 상당 기간 여전히 붉은 빛 토마토들이 여기저기 열린다. 이것들을 이삭줍기(gleaning)라고 한다.

하나님의 추수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죽은 자들로부터(FROM) 불러내어 자신 앞에 모으시는 세 가지 다른 시기가 있다.

### 1. 첫 열매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올라가시기 전 지상에 나타나셨었다(요20:16-18). 구약 성도 중 많은 자들 역시 무덤에서 나와 땅에서 다시 걸어 다녔다(마 27:52-53).

이로써 첫 열매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믿음 안에서 죽었던 자들의 부활도 발생했던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주님은 낙원에 있던 죽은 자들과 또한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 다니던, 성도들을 데리고 가셨다. 이로써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던 자에 의해 포로로 잡혀 있던 자들 모두가(히 2:14) 구출된 것이다(엡 4:8-10).

낙원에서 셋째 하늘(눅23:43, 마12:40, 고후12:1-4)로의 이동은 다음을 의미한다.

- a. 정사와 권능(골 2:15)을 노략질하였음(이 단어의 의미는 정복을 통해 다룬 자의 소유물을 취함을 뜻한다.)
- b. 아브라함의 품이 비게 되었음.
- c. 첫 열매를 의미하며, 알려진 추수(수확)의 일부분에 해당함.

## 2. 추수(수확)

추수로 알려진 대대적인 수확은 교회 시대 끝 무렵에 일어난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살전 4:13-18) 살아 있는 성도들이 이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 다시는 죽지 않게 될 것이다(요11:26).

어떤 사람은 성경이 “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상태에서부터 끌려 올라가게 되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땅에서 깨어있는 상태로 채여 간다. 이때, 눈 깜짝할 순간에 몸이 변화될 것이다(고전 15:51-58).

## 3. 이삭줍기

계시록 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죽음에서 보호하신 144,000명의 증인을 보게 된다. 그런데 계시록 14:1-3에서 이들은 하늘에서 발견된다. 우리는 또한 두 증인이 산 채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된다(계 11:11-12).

재림이 있기 전 환란 성도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고 하늘로 붙들려 가는 것, 이것이 이삭줍기에 해당 한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제목 하에 더 자세히 다루게 되겠지만 이 구절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성경을 억지로 풀다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휴거”는 환란 전인가? 후인가? 부활은 천년왕국 전인가 후인가?  
이런 질문을 자주 접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구분하고 있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적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죽은 성도와 살아 있는 성도를 영광으로 데려 갈 세 번의 사건이  
합쳐져 첫째 부활을 구성하게 된다. 셋이 결국 하나를 구성하는 이 패턴이 성경  
에서 얼마나 자주 반복되고 있는지 주목하라.

### 3. 대환란에 대한 정의

우리는 또 다른 위원회를 원치 않는다. 이미 너무 많이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담합시켜 우리가 빠져 있는

경제적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릴 만큼 충분한 역량이 있는 한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라. 그가 신이든 마귀이든, 우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Paul Henri Spaak

1957년 10월 NATO 사무총장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모든 논쟁은 대환란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정확히 이해한다면 즉시 종식되고 말 것이다.

대환란(great tribulation)이란 용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들어있는데 주님께서서는 이 환란의 날은 전무후무한 날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셨다(마24:21).

이 대환란은 유대인의 경륜에 속한 것으로 야곱의 고난의 때(렘 30:7)라고 불린다. 이 심판의 때에 주어진 세 번째 이름은 다니엘의 70째 주라고 알려졌으

며, 이는 다니엘서 9:24-27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경에는 모든 인류가 세 그룹으로 분명히 분류되어 있다(고전10:32).

첫째 그룹은 유대인이다. 이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다.

둘째 그룹은 이방인이다. 이들은 유대인 이외의 모든 인간을 다 포함한다.

세 번째 그룹은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성령에 의해 중생한 사람들이다. 오늘날 성경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이 세 그룹을 혼동하는 일이 다반사이나 성경은 결코 그런 적이 없다.

성경에서 천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His people)과 그의 거룩한 도시(His HOLY CITY)에 대한 예언적 시간표를 70주로 정하셨다고 말했다(단9:22-24). 우리는 이 문제를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것임을 분명히 이해해야만 한다. 다니엘은 이방인이 아니었다. 동시에 아직 존재하지 않았었던 교회의 일원도 아니었다. 오늘날 이교도 이방인들과 기독교의 거짓 신자들이 자신들에게도 거룩한 도시들이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거룩한 도시로 인정받는 것은 오직 예루살렘뿐이다.

다니엘의 백성 즉 유대인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으로부터 일곱 주, 그리고 62주가 유대인에게 주어졌다고 했다.

우리는 바빌론 포로 이후 예루살렘의 회복과 건축에 관해 네 번의 칙령이 있었음에 주의해야만 한다.

첫째는 고레스 왕에 의해 B.C 536년에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에스라 1:1-4에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하 36:22-23에도 언급되어 있다.

이 칙령은 단지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라는 내용뿐이었다.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아니었다. 더구나 이 칙령에 뒤이어 시작된 성전 건축은 즉시로 수그러들었고 결국은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는 이 칙령은

70주의 시작이 될 수 없다고 믿는다.

둘째 칙령은 다리우스 왕에 의해 B.C 519년에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에스라 6:1-12에 선언되어 있다. 이 칙령은 단지 첫 칙령을 재확인하고 성전에 대한 언급만 하고 있을 뿐이다. 예루살렘 성의 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 역시 70주의 시작 시점이 될 수 없다.

세째는 아타세르세스에 의한 B.C 458년의 칙령이다. 에스라 7:11-28이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공적인 칙령이 아니라 왕의 공식서신으로 에스라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처음 두 칙령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것이었다. 이 명령은 단지 처음 두 칩령을 되풀이한 것이기에 이 역시 성전의 재건에만 한정되었을 뿐 예루살렘 자체의 건축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이 역시 70주의 시작이 될 수 없다.

넷째 아타세르세스 론지마누스에 의한 B.C 445년의 칙령이다.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네 여행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돌아오려느냐? 하고 이처럼 왕이 나를 보내기를 기뻐하기에 내가 그에게 기한을 정해 주고 또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거든 강 건너의 총독들에게 내리는 편지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데려다가 마침내 유다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편지를 내사 그가 그 집 에 속한 궁궐의 문들과 그 도시의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짓기 위한 들보들을 만들도록 내게 재물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위에 임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시니라.”(느 2:4-8).

이 칙령을 보면 성전 재건과 아울러 예루살렘 성읍의 건축 또한 언급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이 시점이 다름아닌 다니엘의 70주의 시작점이라고 믿는다. 따

라서 포로로 잡혀 갔던 자들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오기 시작한 그때부터 시간 계산이 된다(느2:5).

이 도시의 재건은 곤란한 때(troubulous times, 단9:25)에 이루어졌으며 그 기록은 느헤미야 3-6장에 나와 있다. 이 재건이 끝마치는 때로부터 메시아께서 끊어지는 때까지는 62주가 있게 되는데 그 끊어짐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한다(단 9:26).

재건은 다니엘이 선언한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실시되었고 그 후 주 예수께서는 메시아에 관련된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다. 자기 자신의 백성(유대인, 요 1:11)에 의해 끊어져 죽으셨으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전혀 죄가 없었기에) 온 세상의 죄로 인하여(속 9:9, 마21:1-11, 단2:11, 고후 5:19) 죽으신 것이다. 이 역시 다니엘 9장의 시간표에 맞춰 정확히 일어났다.

여기서 말하는 주(week)는 민수기 14:34와 에스겔 4:6에 나와 있는 특정한 예언 시간 측정법에 따라 날(days)이 아닌 년(years)으로 계산된다.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적 날짜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함을 알게 된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재건은  $7 \times 7 = 49$ 년이 걸렸다. 이 재건의 완성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는 434년이다.

로버트 앤더슨(Robert Anderson)경의 “오실 통치자” (Coming Prince)와 클라렌스 라킨(Clarence Larkin)의 다니엘서에서 두 저자는 다니엘의 69주가 어떻게 바로 그날에 정확히 성취되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앤더슨(Anderson)은 이 기간을 정확한 날들(days)로 계산해 냈다. 483년  $\times$  360(창7:11,24, 8:3-4에 따르면 성경의 1년은 360일임) 69주(483년)는 총 173,880일이 된다. 만약 우리가 B.C. 445년 3월 14일로 계산을 시작한다면 A.D. 32년 4월 6일에 69주가 끝나게 된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신 바로 그 날이었다.

주께서 하신 다음의 말씀이 얼마나 암시적인지 보라. “이르시되, 적어도 이 날 곧 네 날에 만이라도 너 곧 네가 네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네 눈에 숨겨졌도다.”(눅 19:42).

그리고 다시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짐승이 일어나게 될 그 백성으로부터 파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 백성은 로마였고 또 로마가 될 것이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과 로마인들과의 전쟁이 70째 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로써 우리에게 1주가 남아 있는데 7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에 다니엘 9:24에 정해 놓으신 여섯 가지를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것이다. 이 기간 중 적그리스도가 군림하게 되어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나 나중에 언약을 깨뜨리게 될 것이다.

이 시간의 틀을 아무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한 때, 두 때, 그리고 반 때(계 12:14), 혹은 42개월 (계13:5) 그리고 1260일(계12:6)이라고 못박으셨다. 이 숫자들은 1주의 중간에(단9:27) 언약이 깨지는 때로부터 계산된 것들이다. 이 숫자를 두 배로 하면 7년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7년의 기간이 주어진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히브리 사람들의 범법을 끝냄.
2. 그들의 죄를 끝냄.
3. 그들의 불법에 대한 화해를 이룸.
4. 영원한 의를 가져옴.
5. 환상과 예언을 봉함.
6. 지극히 거룩한 분을 기름 부음(단 9:24)

이것들 중 교회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전혀 없다. 신약 성경

에서 교회와 관련해 가르치고 있는 진리와 위의 6가지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확인해 보자.

1. 믿는 자들의 범법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요 19:30)라고?  
하셨을 때 이미 완전히 제거되었다.
2. 믿는 자의 죄는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의 몸 위에 놓였다(벧 전2:24).
3. 회개하고 새로운 출생을 이룬 자들은 그 순간 하나님과 화해했다(고후  
5:19-21).
4. 영원한 의는 중생의 순간에 교회 시대의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고전  
1:30).
5. 구약의 기록 가운데는 신약 교회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환상이나 예언  
이 없다.
6. 교회는 구원자와 머리를 갖고 있으나 기름 부을 왕은 계시지 않는다. 교  
회의 각 지체는 왕이다(계1:6).

성경학도들이 구분해야 할 세 가지 용어를 살펴보자.

#### 1. 고통의 시작(The beginning of sorrows)

이 용어는 군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계 대전과 이에 따른  
사건들에 의해 시작될 시기를 묘사하시고자 이 용어를 사용하셨다. 전쟁, 기근,  
역병 및 지진 등이 고통의 시작이 될 것이다(마24:7-8).

#### 2. 다니엘의 70째 주

이 용어는 외교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용어는 많은 자들과 언약을 확증할  
때 사용된다(단 9:27). 이 용어는 고통의 시작에 정확히 반대되는 것으로 유대  
인을 포함한 많은 자들과의 7년간의 조약 체결을 할 통치자가 등장한다. 이것은

전쟁을 막기 위해 나라들 간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 조약에서는 경배의 자유와 국가별 주권도 어느 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렇게 보장된 자유는 잠시만 이어질 뿐이다.

### 3. 대환란

이 용어는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에 대해 마태복음 24:15-21에서 분명히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다니엘 9:27, 11:31, 12:1, 12:11 등에 대해 언급하셨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종교적 모독은 계시록 11:7-8에서 성취될 것이다. 성전 경배와(계11:2) 조약에 의해 보장되던 3년 반 기간의 증인의 사역이 주(週) 중에 중단될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터져 대환란은 시작된다. 사탄이 개입하면서 자기의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게 된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대환란에 대해 When(15절) Then(16절) Then(21절)을 주목하라. 대환란의 시작은 이 행위가 시작되는 순간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모습을 드러낼 때 시작된다.

이 행동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날 것은 성경적으로 보자면 고통의 시작(이것은 다니엘의 70째 주의 일부이다)에 속할지는 모르나 대환란의 일부는 될 수 없다.

#### 〈주〉

20세기가 끝날 무렵 약30년간 상당히 건전한 근본주의 저자들이 휴거의 시점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려는 압박을 받았고 이들은 2000년과 관련해서 그들의 날짜 계산을 했었다.(이런 짓만 안했더라면 비교적 건전한 분들이었는데....) 그들이 추정한 날들이 지나가 버렸건만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회개하고 사과하는 대신, 교회가 환란의 절반 앞부분을 통과하게 된다면 “교리”를



타협하고 말았다. 2000년이 다가오자 일부는(조심스럽게 포장된 표현을 사용하면서) 후천년 적 입장으로 교리를 바꿔 버렸다. 날짜를 잘못 정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회개치 않은 것은 물론이다.

## 4. 창세기와 계시록의 비교

이탈리아에서는 브루주아 계급 하에 30년 동안 전쟁, 공포, 살인, 살상이 있었는데 이들은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 그리고 르네상스를 만들어 냈다. 스위스에서는 형제 사랑, 500년간의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가 있었는데 이들은 낙원을 만들었을까?... 그것은 뼈꾸기 시계였다.

Orson Wells

The Third Man에서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성경 나머지 65권에 나와 있는 일들의 결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에는 구약성경으로부터의 인용이나 언급이 92번 나와 있으며 히브리서에는 102번이 나온다. 반면 계시록에는 무려 285번이 등장한다.

창세기와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책의 위대한 서론과 결론인 것이다.

창세기 / 계시록

창세기 ● 하늘과 땅의 창조(1-2) /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21-22) ●계시록

창세기 ● 첫 번째 아담이 땅을 다스렸음(1:26) /

마지막 아담께서 영광 가운데 다스릴 것임(21:5) ●계시록

창세기 ● 태양은 낮을 주관하고자 만들어졌음(1:16) /

태양이 존재할 필요가 없음(21:23) ●계시록

창세기 ● 밤이 창조되었음(1:5) /

더 이상 밤이 존재하지 않을 것임(21:25) ●계시록

창세기 ● 바다들이 창조되었음(1:10) /

더 이상 바다가 없을 것임(21:1) ●계시록

창세기 ● 신부가 아담에게로 데려와짐(2:18-25) /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와질 것임(19:7) ●계시록

창세기 ● 에덴에 생명나무가 있었음(2:9, 3:22) /

생명나무가 새 창조 때 있을 것임(22:2) ●계시록

창세기 ●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충돌이 있었음(3:15) /

사탄이 그 마지막 운명을 맞이할 것임(20:10) ●계시록

창세기 ●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쫓겨 감(3:23-24) /

인간이 영광 중에 주님을 얼굴을 볼 것임(22:4) ●계시록

창세기● 믿는 자들이 한 도시를 바라봄(12:1-4, 히 11:10) /

믿는 자들이 그 도시에서 살게 될 것임(21:1-3) ●계시록

창세기● 어린양은 어디에 있나이까?(22:7) /

어린양이 영원토록 다스릴 것임(22:3) ●계시록

창세기● 사탄이 첫 번째 거짓말을 하였음(3:1) /

거짓말 하는 자는 없을 것임(21:27) ●계시록

창세기● 니므롯이 바벨론을 세웠음(10:8-10) /

적그리스도와 바벨론은 파괴될 것임(17-19장) ●계시록

창세기● 죄가 사망을 가져왔음(3:14-19) /

더 이상 사망이 없을 것임(21:4) ●계시록

창세기● 첫 번째 살인자가 등장함(4:1-10) /

살인자들은 불 못으로 추방될 것임(21:8) ●계시록

창세기● 최초 세계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됨(3:14-19) /

저주가 제거될 것임(22:3) ●계시록

창세기● 사탄이 인간을 속이는 자로 등장함(3:1-4) /

사탄은 영원히 추방될 것임(20:10) ●계시록

창세기● 슬픔과 고통이 들어옴(3:17) /

더 이상 슬픔이 없을 것임(21:4) ●계시록

창세기● 인간의 고향은 강가에 있었음(2:10) /

인간의 영원한 고향도 강가에 있을 것임(22:1) ●계시록

창세기● 문화와 예술이 하나님을 대체함(4장) /

문화와 예술은 파괴되고 하나님에 의해 대체됨(18장) ●계시록

창세기● 그룹들이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고 있음(3:24) /

그룹들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합시켜 줄 것임(4:6) ●계시록

창세기● 문들이 닫힘(3:24) /

문들이 열려 있게 될 것임(21:25) ●계시록

창세기● 낙원의 상실(실낙원)(3:6, 23) /

회복된 낙원(21:1) ●계시록

창세기● 첫 번째 안식(2:2) /

마지막 안식(22:21) ●계시록

창세기● 창세기는 이집트(세상)에서 “관”(사망)으로 끝남(50:26) /

계시록은 하늘에서의 기쁨으로 끝남(22장) ●계시록



## 2 교회 시대

교수대에는 영원히 진리가,  
왕좌에는 영원히 잘못이,  
그러나 그 교수대는 미래를 흔들고  
아무도 모르는 어둠 뒤로  
그림자 속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네  
자신의 자녀를 지켜보시면서

James Fussell Lowell

The Present Crisis에서

## 5. 교회 시대 개관

세상은 자신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Henry Paylor경

Philip Van Artevelde

계시록 2,3장에서 일곱 교회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당시(제1세기)의 특정 교회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시대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이 휴거되는 때까지의 교회의 역사의 흐름을 예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견해에 대해 논란이 많기는 하나 우리는 여러 이유들로 인해 그 견해가 옳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 이유들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 1. 일곱 교회가 교회사를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이유들

슬픔의 길, 오직 슬픔의 길만이

슬픔이 알려지지 않은 그 땅으로 인도하네

그 어떤 여행자도 그 축복받은 거처에 도달한 적 없다네

도중에 가시와 엉겅퀴를 발견치 않고서는

William Cowper



## Epistle to a lady in France에서

(1)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이다.”(계2:29)라는 훈계의 말씀은 이 메시지의 대상이 단지 편지를 수신하게 될 특정 지역 교회를 넘어 섬을 보여준다.

(2) “성령께서 교회들(churches)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표현 속에서 이 편지의 수신자인 해당 교회만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한 교회를 수신자로 해서 쓰여진 편지지만 모든 교회들(churches)에게 적용된다고 하겠다.

(3)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게 될 모든 기간에 관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 책(계시록)에서 교회에 관한 예언이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 만약 계시록에서 교회에 관한 예언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계시록 2,3장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계시록 3장 이후부터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5) 성경 전체에 걸쳐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뭔가에 대해 완전한 진술을 하고 했음을 보여준다. 일곱은 성경의 “전형적인 숫자들” 중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들 중 하나이다. 일곱은 완전함, 충만함, 완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된 일곱 교회는 교회 시대 전체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6) 이 메시지 속에 상징적인 그 무엇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로 당시

지역 교회들에 것처럼 많은 분량이 할애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계시록은 너무도 간결하고 압축된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심지어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1장만을 할애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1장도 채 되지 못한다. 책 전체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두 장(2,3장)이 1세기 경에 있었던 작은 교회들에게만 적용되고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 못 된다.

(7) 이 메시지는 성경 중 가장 상징적인 책 속에 들어 있음을 염두에 두자.

(8)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에 대해, 이 서신들이 단지 그 두 교회에만 해당되고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 존재하게 될 신약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9) 그 당시 그 지역에는 적어도 세 교회가 더 있었다. 골로새 교회(골1:2) 히에라폴리스 교회(골4:13), 드로아 교회(행20:6-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들은 아무 서신도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일곱 교회는 각 교회의 전형적 특징으로 인해 선정된 “대표성”을 띤 교회임이 틀림없다.

(10) 무엇보다도 이 메시지들은 교회 역사의 정확한 모습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순서마저 정확하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견해를 지지해 준다. 이 서신들의 메시지와 교회사에 등장하는 교회들을 비교해 보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1)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교회들을 예언적으로 보는 것은 “지금 있는 것들”(계

1:19)을 취하여 “이후에 있을 것들”(계1:19)의 영역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회는 한 몸으로 요한은 물론 일곱 교회들도 이 몸의 일부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 오순절날 시작된 교회는 휴거 때까지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 2. 일곱 교회에게 보내진 서신은 4중 적용이 가능하다.

- (1) 지역적 적용 – 편지를 수신하게 될 지역 교회
- (2) 개인적 적용 – 개개 성도들이 각자 안에 존재하는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줌
- (3) 훈계적 적용 – 어느 시대 어느 교회든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게 해 줌
- (4) 예언적 적용 – 교회의 영적인 역사가 일곱 시대에 걸쳐 점진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를 예시함

## 3. 일곱 교회에 보낸 서신들의 구조

또한 이 서신들은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념해야만 한다. 각 편지에서 주님께서는 수신하는 각 교회의 도덕적, 영적 상태에 적합한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로써 특정한 잘못에 대한 그리스도의 태도와 입장이 계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 (1) 서신의 첫 부분에서는 칭찬 받은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주님께서 금등잔대 가운데서 걷고 계신 것은 (2:1) 단지 악한 것을 주목하고자 함만은 아니다. 주님은 우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해 주목하고 계신다.

(2) 그 다음으로 흠이 될 만한 것들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불법을 간과하시거나 덮으시지 않는다.

(3) 뒤이어 권면과 약속의 말씀들이 이어진다. 특히 이것들은 이기는 자들에게 해당된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여전히 열악한 가운데서 순종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 4. 일곱 교회의 역사적 시기

일곱 교회들에게 전달된 메시지들은 두 번에 걸친 환상 사이에 주어져있다. 그 첫 번째는 1장에서 일곱 등잔대 가운데 서 계시는 그리스도의 환상이며 두 번째는 4장에서 왕좌 주위에 서 있는 24장로들의 환상이다. 이 두 번째 환상은 영광스럽게 된 교회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모습이다. 이 두 번째 환상에 뒤이어 곧바로 환란은 시작되고 그 내용이 계시록에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일곱 교회에 보내어진 서신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 때로부터 그분의 교회가 영광 받는 때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셈이다. 일곱 교회에 보내어진 메시지가 다루고 있는 역사적 시기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에베소 - 사도시대
- (2)서머나 -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함.
- (3)버가모 -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받아들임.
- (4)두아디라 - 로마 제국이 교회를 통제함. \* 결과물: 로마 카톨릭 교회.
- (5)사데 - 로마 교회로부터 교회가 벗어남.
- (6)빌라델비아 - 근대 선교운동.
- (7)라오디게아 - 미지근한 대형 교회. \* 결과물: 죽은 개신교회.

## 6. 예언적으로 본 일곱 교회 시대

### 1. 에베소 교회 시대

첫 번째 서신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2:1-7)에게 보내졌다. 에베소란 “바람직한”이란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실로 이 교회가 그러했다. {주: 일부 사람들은 지역 교회들이 그곳에 세워지기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도시들의 이름으로부터 영적인 적용을 끄집어내는 것에 대해 반대할지 모르겠다. 이에 대해 우리의 답변은 이러하다. (1)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을 알고 계시며, (2) 그분께서는 다른 도시들에 세워진 지역 교회들에 편지를 보내실 수 있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셨다.}

주님 손에 별들이 놓여 있다는 것은 사역자들이 그분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 교회는 일했고, 수고했으며, 인내를 했고, 거짓 교리를 거부했고, 사람들의 주장을 시험했으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을 미워했다. 실로 이들의 수고와 인내는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다. 이 교회는 거짓 사도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사도는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들(방언, 해석, 치유-막16:17-18, 고후12:12)로 특징 지워진다. 이 당시 이러한 은사들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이 교회는 그런 자를 드높이는 대신에 시험코자 하였다.

그런 자량을 늘어놓는 자가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없거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언어로 말하지 못하거나, 독을 먹고 살아남지 못한다면 이 교회는 이런 자를 그에게 합당한 칭호 즉 “거짓말쟁이”라고 불렀다.

이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 간에 구분을 짓고자 하는 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 중 아무도 그 누구 위에 권위를 행사치 않도록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20:25-28), 칭호를 획득하고 지위를 얻고자하는 욕망이 이 교회에 침투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니콜라당의 교리를 붙들고 있는 자들을 미워하신다고 하셨다 (계2:6. 이분이 성경의 하나님이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들은 니콜라스(Nicholas)라는 자를 추종하는 어떤 이단 종파라고 하지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그 어떤 역사적 증거도 없다. 이 주장은 본 구절과 계2:15절로부터 유추해낸 순전한 추측에 불과하다.

우리가 계시록의 상징적 기록 방식 및 구조와 조화를 이루면서 성경 자체를 잘 들여다보면 이 구절에 대한 조명을 얻을 수 있다.

“니콜라”란 “니코”(niko)와 “라오스”(laos)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백성(평신도로 알려져 있음)을 정복 혹은 이기는 자라는 뜻이다. 이로써 우리는 이미 교회시대초기 때부터 제사장 제도의 조짐이 있었으며 목사 혹은 장로를 수평적 형제 관계와 만인 제사장 제도(계1:6, 마23:8, 벰전2:9)에서 분리해 내어 성직 계급으로 구분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소위 “성경의 잃어버린 책들” 혹은 신약의 외경들은 니콜라 교리를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레네우스(Ireneus), 저스틴마티(Justin Martyr) 그리고 이그나티우스(Ignatius)와 같은 교부들 역시 이런 짓을 하고 말았다.

평신도와 성직자를 구분하는 교리를 실행하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자신들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다른 모든 믿는 자들은 부름 받지 않은 것처럼(롬8:28-30) 내세우며 형제들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실행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하고 계신다(계2:6, 15). 안타깝게도 그분의 말씀은 거부되었고 역사적으로 성경적 기독교의 부패는 제사장 제도의 침투로 인한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제도 없이는 오늘날 교황제도는 불가능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교회가 그와 같은 거짓교리를 용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칭찬하셨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란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그들의 일에 대한 열심이 지나쳐 결국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주께서는 그들의 빛이 사라져 버리지 않도록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셨다. 그들의 일에 대한 열심은 칭찬의 대상이었으나 그럼에도 주께서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하여 다시금 주님과과의 사랑에 빠지도록 하라고 요구하셨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짓 교리와 싸우는 법을 배웠고 주님을 위해 인내하며 수고하는 것을 배웠으나, 내적으로는 기도와 성경 읽기에 대한 사랑이 식어 버리고 교회 예배가 너무도 짧아 아쉬웠던 때가 벌써 지나가 버린 그런 사람들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첫 사랑과 에베소 교회의 희미해진 사랑을 데살로니가전서 1:3과 계시록 2:2 을 비교하면서 살펴보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살전 1:3)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네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네가 스스

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계2:2)

(1)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살전1:3) /

네 행위와 (계2:2) (믿음이 언급되지 않고 있음.)

(2)사랑의 수고와 (살전1:3) / 수고와 (계2:2) (사랑이 언급되지 않고 있음.)

(3)소망의 인내를 (살전1:3) / 인내와 (계2:2) (소망이 언급되지 않고 있음.)

혹시 우리의 외적인 섬김은 여전하나 내적 사랑은 식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신다.

이 교회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인다면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에서 먹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교회는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등잔대는 옮겨져 버렸다. 그리고 현재는 회교도들이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

이 교회는 A.D. 34-170년경에 존재했던 초기 교회에 해당되며 우리가 설정한 169년은 서머나에서 폴리캅이 순교한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이다. {주: 일곱 교회가 교회 시대를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석가들 사이에도 이들 날짜에 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르다. 성경 안에서는 홍수 이전 시대와 홍수 이후 시대 혹은 그리스도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 등과 같이 시대 구분이 확실하지만, 성경 바깥에서는 시대 구분을 정확히 할 수는 없다.}

## 2. 서머나 교회 시대

둘째 교회는 서머나(2:8-11) 교회이다. 이 도시의 이름은 “몰약”을 뜻하며 아라비아와 동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식물에서 채취하는 수지인데 강하고 상쾌



한 냄새를 내뿜는다. 이것은 시체의 방부처리에 사용되며 향기를 내뿜기 위해서는 부셔져야 한다.

몰약(myrrh)이란 이름은 아라비아어인 미라(mirra)에서 나온 것으로, 그 의미는 쓰다는 뜻이다. 이는 이 수지의 맛이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서머나는 박해받은 교회였다. 교회가 첫 사랑을 버렸으니(에베소 교회) 징계가 뒤따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서머나).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은, 이교도 로마 제국 하에서 부서진 주님의 백성이 살던 시기에 해당된다. 이때 달콤한 순교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갔던 것이다. 이 고통의 시기는 대략 150년간 지속되었다.

물론 A.D. 70년까지 많은 성도들과 사도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 고난을 당하기는 하였지만 이 서머나 시기의 고난은 로마 제국이 정책적으로 박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초기 교회시대에 클라우디우스(Claudius)와 네로(Nero) 황제의 행동은 주로 자신들이 처한 정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니, 당시 그 지역의 상황에 대한 황제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 서머나 시대에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에 심각할 정도로 침투했고 이에 기독교를 “무신론적” 종교(당시 기독교는 신의 형상이 없는 유일한 종교였음—역자 주)를 규정짓고, 선동꾼으로 취급 받고 있던 신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민의 권리가 모두 박탈되었고 재산권이나 심지어는 생존권마저 거부당했다. 이것이 당시의 국가의 시책이었던 것이다. 국가의 법령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빼앗겼고, 고문을 당했으며, 추방당했고 불태워졌으며 혹은 원형 경기장에서 야수들에게 내던져짐으로 사람들의 여흥거리로 전락하였다.

라오디게아 시대와는 대조적으로 서머나 시대의 교회는 가난으로 얼룩졌

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자였다.

그들에게는 고난이 약속되었다. 그러나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그들에게 들려온 메시지였다. 마귀로부터 박해받고 투옥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나 이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10배나 강한 환란이 있겠으나 끝까지 신실하라는 권면이 주어졌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배워야 할 너무나 소중한 교훈이 아닌가! 주님께서는 고난을 미리 내다보셨으나 이를 제거하지 않으셨다. 교회가 직면할 어려움들을 미리 내다보신 주님은 이 세상의 흐름을 그들에게 유리하게 바꿔 놓는 대신, 오히려 그들이 그 어려움들을 능히 직면하기 위해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라고 훈계하셨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이런 종류의 성경적 기독교가 거의 사라지고 좀처럼 찾을 수 없다.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이생에서의 안락이나 축복이나 구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다.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동안 둘째 사망이 결코 그들을 해칠 수 없음(마10:28)을 깊이 명심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 서머나 시대로부터 고귀한 순교자의 군대가 하늘의 현관문을 통과하여 생명의 왕관을 받기 위해 행진했던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할 간증 중에는 로마에서 117년 화형당한 이그나티우스, 156년 로마에서 참수 당한 저스틴, 169년 서머나에서 화형당한 폴리갑, 프랑스의 노예 소녀 블란디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퍼페투아와 그녀의 동료들이 겪은 일들이 들어있다. 이들의 이야기는 놀랍다기보다 너무도 도전을 주는 이야기로 우리 모두에게 열심과 헌신을 촉구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다. A.D. 200년경 티톨리안은 “순교자들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 라고 기록했다.

이 교회에 대해서는 “바로잡으라는” 말씀이 전혀 없다. 그들의 고난이 그들

을 정결하게 했음이 틀림없다.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짓 유대인들에 대해 언급하셨고 이들이 사탄과 손잡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망이 없으셨다.

이 교회는 역사적으로 디오클레티안(Diocletian) 황제(170-312 A.D.) 때까지의 로마의 통치자들에 의한 주님의 몸체에 대한 박해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312년이라는 시점은 콘스탄틴 황제의 소위 “회심” 이라고 알려진 사건에 근거해서 택한 것이다.

### 3. 버가모 교회 시대

셋째 서신을 받은 교회는 버가모에 있었다(2:12-17). 페르가뭄(pergamum)이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볼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 된다. 제이 리치(J. Ritchie)는 “높음”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 뉴베리(Newbery)는 첫 번째로는 “승진”이라는 뜻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적 결혼”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을 의미하는 가모스(gamos)와 “최대한으로 이동된 무엇”을 의미하는 퍼(per)라는 접두사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이 교회는 가시적 교회가 콘스탄틴 황제의 칙령에 의해 세속 권력을 장악하게 될 정도로 높아진 교회시대를 대표한다. 이 시대에 교회는 세상과 결혼했거나 최소한 연합을 이루게 되어 교회의 영적인 능력과 영향력을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으로 맞바꾸고 말았다.

버가모 교회는 교회와 국가의 연합을 대표하며 이는 하나님께 매우 불쾌한 일이었다(약 4:4). 또한 이 시기에 교황 제도와 그 사탄적인 도그마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교회에는 발람의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 이 교리는 민수기 22-25장에서 엿볼 수 있는데,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악하고 불경건

한 자들과 연합하도록 독려했던 것이다. 이러한 연합은 그 지도자들의 재정적인 이득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러한 연합에 가담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말았다. 교회의 역사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 로마 왕궁에서 도망쳐 온 젊은 콘스탄틴은 군대에 의해 황제로 추앙받게 된다. 그는 영국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 십자가의 군기 아래 로마 근처의 밀비움(Milvium) 다리에서 막센티우스(Maxentius)를 정복하였다.

콘스탄틴은 이전 황제들 시대에 제정되었던 기독교 박해 칙령들을 폐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제국의 높은 지위에 올려놓았다. 이와 같은 황제의 후원은 기독교의 부패를 가져왔고 교회와 국가 간의 이 거룩치 못한 결혼 관계가 시작되어 결국은 교회가 지니고 있던 특징은 사라져 버렸고 간증은 무너졌던 것이다.

버가모 교회에는 또한 니콜라당의 교리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 앞서 보았듯이 사도시대의 교회는 이 교리를 미워했으나 퍼가모 교회 시대에 와서는 평신도에 대한 성직자 계급의 군림이 확고하게 되었다.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인다면 교회와 세상에 모두 이익이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용납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저항하는 몇몇 개인들이 있었겠지만 대중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에베소 교회 때만 해도 이런 자들을 시험해 보고 미워했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그런데 버가모 시대에는 악한 교사들이 용납되고 악한 실행이 범람했다. 나쁜 교리는 항상 나쁜 실행을 낳는 법이다.

버가모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었다(계2:13). 이는 이 세상의 신이 그곳에 거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로써 교회가 교회가 순례자로서의 모습을 잃게 되었고 세상은 교회를 박해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세상과 교회가 서로 연합했는데 박해할 그 무엇이 남아 있겠는가? 이 시대로부터 교회는 전반적인 의미에서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의 특성을 잃고 지구상에서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한다. 더 나아가 결국 교회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중을 교화하고 세속적 이익을 늘리는 수단일 뿐이라는 인식을 주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 무언가가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 이 교회는 그분의 이름과 그분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름이란 성경에서 한 인격체의 본질의 표현이며 따라서 그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제시하고 있다. “나의 믿음”(계2:13)은 성 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기독교의 진리의 틀을 말한다.

비록 교회 전반은 세상에 터를 잡고 하늘에 속한 모습을 포기하고 말았으나, 그래도 아직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진리를 붙들고 있었고, 근본적인 교리들을 부인하는 데까지 타락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계2:13).

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독교의 진리들을 왜곡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안 주의(Arianism), 주님의 인성을 공격하는 아폴리나리안 주의(Appollinarianism) 그리고 우리 주님을 두 인격체로 만들어 버리는 네스토리안 주의(Nestorianism)등이 4세기경에 발흥했다. 교회는 여러 번에 걸친 공회를 통해 이러한 이단들을 정리했고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진리들을 고수했으며 진리를 포기하기보다는 목숨을 내려놓기까지 싸우기도 했다. 이러한 순교자들 가운데 대표로 안디바가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서머나 교회가 사탄의 종교에 저항하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목숨을 희생물로 바쳤던 반면에 버가모 시대에는 순교가 너무도 드물어 안디바라는 순교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있는 것이다. 대다수가 순교했던 초대교회와는 달리 안디바는 예외적인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의 믿음을 자신들의 믿음으로 선포했으나 세상에 대항하는 성경적 입장

은 거의 고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버가모 교회에 보낸 서신은 312~606년 사이에 해당된다. 이때 교황 제도가 시작되었고, 로마는 사탄의 자리로서 자신의 입지를 굳게 하여 결국 교회사 전체에 걸쳐 그 “위상”을 드높이게 된다. 606년이라는 해는 로마의 감독인 보니파스(Boniface)가 “세계의 감독”(Universal Bishop)으로 인정되어 최초의 교황이 되었던 해였기에 선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 4. 두아디라 교회 시대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이다(계2:18~29). 이 이름은 두 단어의 합성어에서 나온 것으로 “희생, 혹은 희생의 향기”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계속해서 나아가는”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합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되는 희생을 갖게 된다.

국제 표준 성경 백과사전에 따르면 이 이름은 두아(Thya)라는 성에서 따온 것으로 18,19세기의 몇몇 작가들은 “고통의 향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시대의 교회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이 이름은 매우 적절한 셈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죄들로 인한 영원한 희생을 드리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다(히10:12). 그러나 교황은 “거룩한 희생 미사”를 명분으로 해서 성찬식에 쓰이는 빵(host)을 이용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희생을 드리신다는 교리를 발명해냈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로마의 제단 위에서 계속해서 희생물로 바침으로 고통을 가하고 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메시지는 교황권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대에 해당된다. 이 교회는 상당히 많은 좋은 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했고, 구제에 힘썼으며, 섬겼고 신실하였으며 그들 중 참된 성도들은 인내심이 많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이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계2:20)의 통제

하에 놓여 있었다. 최초의 이세벨은 이방의 페니키아 출신 여왕으로 왕좌를 찬탈하였고, 바알을 숭배했으며 제사장 민족을 지배했고, 재산과 땅을 바치지 않은 사람들을 살해했으며, 하나님의 참된 대언자를 죽이려고 했다(왕상18,19장). 이세벨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약하고 가장 악한 왕들 중의 한 사람과 결혼한 이교도 여인이었다. 그녀는 왕좌 뒤에서 권력을 휘둘렀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기 위해 세속 권력을 사용한 성경의 최초의 예는 이세벨과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그녀는 제사장이 이끄는 이방 종교를 국가의 종교로 삼았고 이로써 이스라엘을 우상들과 부도덕으로 가득 채웠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의 이름을 교회를 괴롭히고 있던 여인에게 붙여 주신 것이다.

콘스탄틴의 통치가 끝난 지 얼마되지 않아, 로마는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들의 중심지로 떠올랐고 이에 암흑시대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름뿐인 교회 안에 부패와 사악함이 너무도 극심한지라 불신자였던 역사가 기본(Gibbon)은 “교회의 역사는 지옥의 연대기”라고 기록하기도 했다. 교회가 이방종교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교도들의 축제는 기독교 축제가 되었고 이교도들의 신들은 기독교의 성자들이 되었으며 이방 종교의 의식들은 기독교의 의식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과 여사제들은 교회의 공식적인 종들이 되었다.

이 여자는 음행을 일삼는 자로 이 여자가 큰 환란 속에 던져지게 될 때 그녀와 함께 간음하던 자들도 그 운명을 함께하게 된다. 또한 그녀의 자녀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계2:20-23).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란을 피하게 되는 반면 그 여자(that woman)의 자녀들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믿음”의 신실한 아들딸이 되는 것이 주로 강조되었는데 이 믿음은 “거룩한 어머니 교회”

의 도그마와 교리가 되어버렸다.

이 시기에 소위 “하나의 참되고 사도적인 교회”가 주장하는 도그마의 일부로서 많은 이교적 미신들이 도입되었다.

- (1) 610년 로마의 감독에게 최초로 교황(Pope)이란 칭호가 주어졌음.
- (2) 709년 교황의 발에 입맞추는 의식이 시작됨.
- (3) 750년 교황의 정치권력이 시작됨.
- (4) 788년 형상들과 유품에 대한 경배가 승인됨.
- (5) 850년 성수 (Holy water)가 승인됨.
- (6) 890년 성. 요셉에 대한 숭앙이 시작됨.
- (7) 995년 죽은 성자의 시성이 시작됨.
- (8) 1090년 은둔자 베드로에 의해 로사리오(염주)가 도입됨.
- (9) 1184년 베로나(Verona) 공회에 의해 이단에 대한 종교 재판이 제정됨.
- (10) 1190년 면죄부 판매가 시작됨.
- (11) 1215년 교황 이노센트 3세에 의해 화체설이 교리로 선포됨.
- (12) 1215년 교황 이노센트 3세에 의해 사제에게 하는 고해성사가 교리로 선포됨.
- (13) 1220년 성병(host)을 찬미하는 것이 교리로 선포됨.
- (14) 1229년 자기 교회의 정체가 폭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렌시아 (Valencia) 공회에서 성경을 금지도서 목록에 포함시킴.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이 교회의 전 시스템이 구축된 기초가 된 것은, 그 악명 높고 신성모독적인 미사로 알려진 지속적인 희생 제사 제도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미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규범은 11세기에 제정되었다.

이 시기는 또한 십자군 전쟁의 시기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칼과 전쟁을 통해 성지를 정복하고자 시도했다. 교황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문하고 살해했던 종교재판 역시 이 시기의 산물이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교회에 회개할 여지를 주셨으며 이 기간은 다른 여섯 개의 교회사 기간 중 가장 길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회개하지 아니하였다(21절). 이로써 “로마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속담이 생겨난 것이다.

이 시기는 세속사가들로부터도 “암흑 시대”로 평가 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웠던 시기를 “사탄의 깊은 곳”(계2:24절) 이라고 부르셨다.

이 기간에도 얼마간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그 당시 사정으로 이들에 대한 그 어떤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들 대부분은 살해당했고 이들의 기록들은 불타 버렸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폭스(Fox)의 순교사 (가능하다면 편집되지 않은 8권 전체)를 반드시 읽어야 한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누가 하나님을 위해 서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공부를 원한다면 밀러(Miller)의 교회사를 권한다.

두아디라 교회 시기는 606-1517년에 해당된다.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예배당 문에다 95개 조항을 못 박은 사건이 일어난 해가 1517년 10월 31일이었으며, 이 날은 교회 역사의 전환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5. 사테 교회 시대

계시록 3장은 사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어진 메시지로 시작된다(3:1-6). 문헌에 따르면 이 사테라는 이름은 “남은 자” “도피한 자” 혹은 “기쁨의 통치자”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앞서 언급한 그 여자의 수중에서 도피한, 자신의 백성의

남은 자들의 마음을 채워 주실 기쁨의 통치자께서 계신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방식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사데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계신 것에 주목하라. 사데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주님은 오른 손에 일곱 별을 붙들고서 그 가운데 거니시고 계신 모습으로 등장하셨다. 사데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주님은 일곱 교회를 가진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계3:1). 이 말씀에 따르면 사데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는 하나(가진 분) 그분의 통제 하에 있지 않다(가운데 거니시고 있지 않은)는 것을 암시 받게 된다.

이 교회는 이름은 살았으나 실제로는 죽어 있다. 이 교회는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교리와 실행의 성경적 기초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이는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이 이 교회 안에 죽어 있기 때문이었다(계3:2).

우리는 종교 개혁이 로마 카톨릭과의 단절이 아닌 로마 제국과의 단절에 불과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비록 교황의 통치권이 약화되기는 했으나 로마 교회의 많은 거짓 교리들은 그대로 남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행위의 완전함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다(계 3:2). 사실 거의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유아 세례(침례)라는 로마 카톨릭 이단 교리를 붙들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수단이라는 거짓 교리를 붙들었다. 또한 거의 모든 개혁자들이 국가 교회라는 괴물 같은 사상을 지지하고 널리 전파하고자 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와 결별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으나 사실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매우 적었다. 이처럼 이 교회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는 죽어 있었던 것이다. 구원은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서도 개신교 안에서도 찾아 볼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이름만 살아있다고 하셨다. 어찌다가 정금이 빛을 잃

고 말았는가! 독일에서의 종교 개혁이 통치자들의 군사력에 의지하게 되자마자 그 활력은 멈추고 말았으며, 오늘날까지도 대다수의 독일인들은 로마 카톨릭 신자로 남아 있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은 종교 개혁의 기미도 보이지 못했다. 위클리프의 영국, 닉스의 스코트랜드 혹은 루터의 독일은 지금 어디 있단 말인가? 안타깝게도 죽어 있는 개신교는 자신의 조상(개혁자들)의 이름에만 매달려 있을 뿐 자신의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 개혁의 초기에는 하나님의 영의 강력하신 역사가 있었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회복됨은 물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됨) 교리가 전파되었었다. 이는 강력한 진리의 증거였다. 그러나 로마의 압제 하에 신음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 개혁 운동과 연합했을 뿐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로마가 미워서 종교 개혁에 동참했던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정통이라는 명성을 얻었는데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이 없이 죽어 있게 되었다. 이로써 처음에는 성령님의 인도 하에 강력한 진리의 증거로 특징 지워졌던 개혁운동이 사람들의 주도 하에 로마의 독재와 학정에 대항하는 항의 집단(Protestant)이 되고 만 셈이다.

이 항의는 로마의 적대감을 불러왔다. 항의자들(Protestants)은 로마와의 투쟁에서 자신을 방어 하고자 세상의 보호 하에 머물게 되었다. 이로써 세상을 지배하고자 했던 로마 카톨릭의 체계와는 달리 개신교회는 세상의 보호를 구했고 결국은 세상에 의해 지배당하고 만다. 이 최종 결과가 사데 교회의 모습인 셈이다.

(미국은 이 모든 과정을 잘 보여주는 훌륭한 예가 아닐 수 없다. 식민지 시대의 미국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극소수의 성경 신자들이 칼빈주의 국가 교회에 의해 휘방받고 박해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박해로

부터 권리장전이 나왔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타 여러 법률이 제정 되었다. 부패한 정부와 거둬나지 못한 사람들이 제정한 법률에 의해 제공된 보호(종교의 자유)로 인해 교회는 향후 교회의 안전과 복지에 대해 정부를 신뢰하게 되고 만다. 20세기 말부터 발흥한 교회의 정치 참여는 “우리의 조상들의 미국”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이 아니라 물질적 평안을 지키고자 하는 교회 회원들의 “사역”인 것이다.)

이 시기에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참된 성도들은 각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이로써 성경은 로마의 제사장들의 손에서 해방 되었다.

사데 교회는 1520-1750년까지의 시기에 해당된다. 물론 이 시기가 정확히 언제까지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18세기 전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개신 교단의 시스템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위대한 필라델피아 시대의 부흥을 시작하고자 이들을 사용하셨던 것이다.

## 6.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여섯째 교회는 필라델피아에 있었던 교회였다(계3:7-13). 이 단어의 의미는 “형제 사랑” 이었다.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려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데(요일 3:16), 이 시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랑을 실천하였다. 이 교회 앞에는 열린 문이 놓여 있었고 이들의 손에는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들려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 시기는 요한 웨슬리, 조지 헛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남부의 군목들, 피터 카트라이트, 그리고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위대한 부흥이 있었던 때였다.

이 시기는 모라비안, 플리머스 형제단 그리고 복음을 들고 해외로 나간 스코트랜드 및 웨일즈의 수백 명의 남녀들이 위대한 선교사역을 펼쳤던 시기였다. 허드슨 테일러, 아도니람 저드슨, 윌리엄 케리, 존 페튼, 그리고 수천 명의 동일한 믿음을 소유했던 일꾼들이 해외에서 혼들을 얻어냈다.

하버드, 예일 및 프린스턴 등과 같은 위대한 교육기관들이 젊은 남녀들을 기독교 믿음의 교리를 가르치고자 세워졌었다. 영국의 브리스톨에서는 조지 물리가 고아원을 세워 하나님을 위해 어린아이들을 훈련시켰다.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책망을 받지 않았다. 이들은 형제를 사랑했고, 하나님을 거룩하고 참되신 분으로 인정하였으며, 교황의 손에서 열쇠를 취해(계3:7-8, 사22:22) 교회의 참된 머리이신 분께 되돌려 드렸다.

이 교회는 그분의 말씀을 지켰다(계3:10).

이 교회는 성경 말씀에 순종했고 이 말씀을 전 세계로 퍼뜨렸다.

이 교회는 은혜 대신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해 방해를 받았으나 주님께서는 이들 거짓 교사들로 주님의 참된 교회의 발 앞에 와서 경배토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계3:9). 이러한 권능은 사도 시대 이래로 찾아 볼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존중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읽어 보아야 한다.

이 시기 미국에서 일어난 대 각성 운동은 전 세계에서 재연되었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형제 사랑을 지닌 교회에 의해 회심했던 것이다.

이 위대한 열린 문 교회 시기는 1750-1881년까지였다. 영국에서 변개된 개역본(Revised Version)이 발행되던 해에 부흥은 저물기 시작했고 라오디게아 시대의 음침한 동녘이 터 오고 있었다.

## 7.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로 그 이름의 의미는 사람의 권리를 뜻하며, 이 이름이 벌써 모든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로 가득 차 하나님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정하고 수정하는 자로서 자신을 내세웠고 인간을 드높이려는 선생들을 많이 쌓아 두었다.

이 교회는 영적으로는 미지근하고, 물질적으로는 풍요하며, 도덕적으로는 가난하기 짝이 없다. 이 교회는 인권, 여권, 소수의 권리, 동성애자들의 권리, 그리고 제3세계의 자기 결정 권리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교회이다.

이 교회는 또한 여자와, 동성애자와 그리고 위험한 자들을 목사로 임명하는 교회이다.

이 교회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피를 제거하고, 찬송가에서 예수님이 남성이심을 없애고, 강단에서 회개의 교리와 거룩한 삶의 기준과 단정한 옷차림과 순결한 언어 생활을 제거하고자 한다.

이 교회는 수백만 달러가 들어가는 건물을 짓고도 세상의 기근을 끝내자는 교황의 주장에 동조하는 교회이기도 하다.

이 교회는 포르노 영화에 대해 언론을 비판하면서도 10대를 모아 밤샘 파티를 여는 교회다. 이 교회는 세상의 헤어스타일과 목소리 형태와 춤추는 소녀들과 리듬을 택하고서는 그것을 두고 현대식 예배라고 부른다.

이 교회는 거리 설교와 킹 제임스성경을 중요심을 품은 채 정죄하면서 소위 “하나 뒹”과 교회 일치 운동은 환영한다.

이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짧은 바지(무릎 위)와 스포츠에 가까운 머리를 하고 남자들은 향수, 귀고리 그리고 파마를 하고 다니면서도 소위 “가정적 가치”에

대해 강조하는 라디오 심리학자들에게 현금을 보낸다.

라오디게아 시대에는 노만 필, 로버트 솔러, 제시 잭슨, 루스 카터, 힐러리 클린턴, 에이미 그랜트, 돌리 파튼 그리고 러시 림바우 등이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되는 반면 깨끗한 삶을 사는 근본주의 목사들은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자들”로 분류된다.

이 교회 시대에서는 카톨릭 사제, 감독교회(성공회) 주교, 감리교 목사 그리고 침례교 사역자들이 낙태 시술 병원 앞에서 함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는, 함께 맥주를 마시러 간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병”이 나게 만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에서 이 교회를 토해 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계시록 3:20이 주님을 영접하라는 초청에 자주 사용되고 있으나 실은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바깥에 계시고 문은 그분에게 닫혀 있어, 그분께서 그 누군가가 자신을 들어오도록 해 줄지 알아보고자 교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말씀이다. 주님께서는 교회 전체가 주님을 환영할 것을 전혀 기대 하지 않고 계시며 다만 독보리들 중 알곡 몇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실 뿐이다.

오늘날 기독교는 로마 카톨릭(두아디라)과 개신교(사데)가 거대한 종교 제도를 이룩해 놓은 양상을 띠고 있다. 필라델피아는 하나님의 영께서 주장하시는 도덕적 정통 운동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필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를 대조해 비교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지 모른다.

이 두 교회는 마지막 날들에 존재하고 있는 도덕 운동을 대표하고 있다. 필라델피아는 에베소 교회가 교회 시대 초기에 집합적으로 대표하고 있던 그 도덕적 가치를 회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라오디게아는 에베소 교회시대의 도덕적 가치를 포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필라델피아의 특징을

지닌 자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 들림 받게 될 것이며 라오디게아에 속한 자들은  
그분의 입에서 토해 내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데리러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지상에는 더 이상의 큰 부흥은 없을 것이다.



## 7. 교회시대 총정리

처음 세 교회가 교회사의 처음 세 시기에 대한 교회의 상태를 순서적으로 보여 주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 교회들의 상태는 교회사 전체를 통해 그대로 계속 되지는 않았지만, 이들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은 늘 기독교의 부정적 표식으로 남아있다.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 시대를 특징지었던 전체적인 모습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지만, 첫사랑의 상실이라고 하는 “악”은 그때 이래로 기독교 신앙의 부정적 특징의 하나로 남아있는 것이다. 또한 서머나 교회 시대의 박해는 이제 더 존재 하고 있지 않지만 거짓 교사들의 누룩은 교회사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퍼지고 있다.

더욱이 버가모 시대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거나 믿음을 유지하는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지만, 교회가 하늘의 부르심을 상실하고 전적으로 세 상적이 되어버린 그 특징은 여전하다고 하겠다.

나머지 네 교회에 보내어진 서신들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은 다음 세 가지 사항이 앞선 세 교회들과 구분된다는 것이다.

1. 주님의 다시 오심이 격려 혹은 경고의 말씀으로 제시되어있다.
2. 신실한 남은 자들이 대다수의 주류와 구분되어 있다.

### 3. ‘들으라’는 초청의 말씀이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 뒤에 제시된다.

이 세 가지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교회 앞에 주님의 재림이 제시되었다는 사실은, 이들 네 교회가 교회 시대의 끝까지 그대로 존속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비록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없기는 하나 이는 라오디게아 시대에 속한 자들이 자신들이 문 밖에 세워 놓은 “그분”에 의해서 토해 내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두아디라, 사데,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 안에는 참된 신자들이 있다.)

남은 자들이 따로 언급되고 있다는 말은 교회 전체로서는 회복이 없을 것임을 보여준다. 처음 세 교회에서는 들려오던 회개로의 부르심은 이제 더 없다.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은 그들 중의 불경건한 자들이 회개해야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으나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다. 점점 늘어나는 부패한 대중은 심판에 넘겨진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을 위해 이 부패로부터 얼마간의 사람들을 보존하신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 다음에 들은 자들에 대한 권면이 주어진 것은 교회 전체가 너무 부패해서 교회 안에서는 들을 자들이 거의 없을 것이고, 단지 이기는 자들 중에서만 들을 자들이 있을 것임을 입증해 준다. 또한 마지막 네 교회들의 처음 두 교회와 나중 두 교회 사이에 어떤 구분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두아디라와 사데에 관해 보자면 이 두 교회는 교황 제도(그리스 및 러시아 정교회 포함)와 개신교회(국가 교회 및 민족 교회 그리고 세계 교회 협의회 등 포함)로 알려진 거대한 종교 조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란 이 두 교회 회원을 뜻한다. 이들 두 교회의 모습은 예언적으로 볼 때 오늘날 세상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난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는 셈이다.

나머지 두 교회(필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는 그 어떤 특정한 거대 종교 조직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교회 중 필라델피아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라오디게아는 주님께 구토를 일으키게 하는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두아디라와 사데는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는 거대 종교 조직체로 이 중 경건한 남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셈이다.

한편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우리는 교황 제도 및 개신교를 벗어나 있는 남은 자들을 보게 되는데, 이들은 주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도덕적 특성을 갖춘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며, 세상이 인정할 만한 그 어떤 종교 제도를 자처하지 않는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우리는 두 거대 종교 조직에 속하지 않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거나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거대한 대중의 무리를 보게 된다.

이들 편지들에 제시되어 있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주목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1. 에베소 :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으며 아직까지는 세상에 대해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2. 서머나 : 교회는 세상에 의해 박해를 받았으며 이로써 당분간은 타락이 멈추어진 상태이다.
3. 버가모 : 박해는 끝났다. 곧이어 교회는 세상 안에 정착했고 반면 세상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이로써 기독교 왕국(christiandom)이 탄생했다.
4. 두아디라 : 소위 교회가 우위를 점하게 되어 기독교화한 세상을 다스린다.
5. 사데 : 교회의 일부가 세상의 보호와 지배 하에 자신을 내려놓았다.

6. 필라델피아 : 박해받은 남은 자들이 부패한 종교적 세상으로부터 분리했다.

7. 라오디게아 : 기독교계 전체가 세상이 되어 세상으로 대접받고 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서 성경 이외에 한 가지를 더 배우고자 한다면 꼭 교회 역사를 공부하기 바란다. {주 : 이 모든 교회들은 요한의 시대에 실제적으로 존재했다. 이 일곱 교회 안에서 발견된 장단점은 교회사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우리는 이 교회들의 순서가 지난 2000년 동안 일정한 특성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는 교회사의 순서와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8. 일곱 비유와 일곱 교회

앞서 우리는 계시록 2,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게 전달된 메시지와 신약 교회사의 일곱 시기와의 관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마태복음 13장을 조심스럽게 읽어보면, 왕국에 대한 일곱 비유와 교회가 서로 호응한다는 것을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마태복음 13:3에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에베소 교회 시대에 해당되며(계2:1-7) 이때 좋은 씨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뿌려진다. 씨가 뿌려지는 네 지역은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이다. 초대 교회는 또한 네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는데,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이었다. 주님께서는 씨앗의 극히 일부만이 참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이때 사탄이 복음 사역을 방해하려 할 것임을 미리 경고하셨다(마13:18-23).

그 다음으로 가라지 비유는(마13:24-30) 서머나 교회에 해당한다. 이때 원수는 성도들 안에 자신의 자녀들을 섞어놓는 짓을 저질렀다(27-40). 이 둘은 겉 보기에는 같으나 열매가 다르다. 이 시기에 “교부”들이 이단 교리들을 교회 안에 도입하여 결국 교회는 절뚝거리기 시작했다.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로(마13:31-32) 버가모 시대에 해당된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식물은 괴물처럼 되어 버렸다. 풀(채소)에 불과했던 겨자가 나무가 되

어 버린 것이다. 동일한 내용이 에스겔서 31:3-14에 앗시리아 왕국으로 등장하며, 다니엘서 4:10-19에서는 바빌론 왕국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들 구절들에 언급된 나무들이(땅의 왕국을 대변하고 있는 나무임) 천국 비유에 나오는 나무와 유사하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각각의 경우 지상의 왕국은

- (1)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이며
- (2) 공중의 새들의 거처이고
- (3) 주님에 의해 잘렸다.

그렇다면 어쩌서 그렇게 많은 주석가들이 이 나무를 복음의 확장이라고 가르치고, 새들은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온 세상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비유에서 주님께서 공중의 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버리는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말씀하셨다. 버가모 교회 시대에는 이들 새들이 교회 안에 동지를 틀고 말았다.

기독교가 시작되었을 때는 겨자씨처럼 비교적 보잘것없었다. 겨자씨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모든 씨들 중 가장 작은 씨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이 작은 씨가 나무가 되어 그 가지에 하늘의 새들이 깃들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이것이 교회의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이 비유는 영적인 하늘에 속한 주님의 몸이 세속 왕국이 되어 버렸음을 보여준다. 이 일은 버가모 시대에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 누룩 비유가 나온다(마13:33). 이 또한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만들어서 성경을 바르게 풀이하는 길을 잃게 만들었다. 대다수 주석가들은 누룩을 복음으로, 여인을 교회로, 그리고 이 비유를 기독교의 전세계적인 전파로 해석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 걸쳐 누룩은 부패를 의미한다. 고린도전서는 교회들에게 회중들로부터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하고 있다. 이 진리를 무시한 채 두아디라 시기 동안에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세벨 즉 창녀들의 어미로 불리고 있는 여인이 생명의 빵 속에 온갖 “전통들”을 집어넣음으로써 교회를 부패시켰다.

다섯 번째 비유는 숨겨진 보물의 비유로(마13:44), 이는 사데 교회 시기 즉 종교 개혁 시기에 해당된다. 이때 보배는 밭에 있었다. 사람들은 그 밭을 매일 지나가고 그 위로 다니다가, 누군가가 드디어 그 보물에 걸려 넘어져 그것을 캐내어 모두가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루터가 이신칭의 교리를 성경에서 발견한 것을 뜻한다. 이 성경은 사실 루터 같은 수도승에게 수세기 동안 주어져 있었다.

교황의 통치 시기였던 암흑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저 남은 자들만이 살아남았다. 이 시기에 성령께서는 이들 “몇몇 이름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진리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다. (출애굽기 19:5절의 보물을 이 전형적인 문맥에서 상고해 볼 것.)

우리는 진주의 비유에서(마13:45-46) 부와 물질이 보석을 사는 데 희생된 것을 보게 된다. 이는 필라델피아 시대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수많은 생명과 재산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드러졌으며, 이것들은 한때 잃어버렸으나 이제는 되찾게 된 진리를 선포하는 데 쓰였다. 이 시기의 재정적, 산업적 풍요가 사도 시대 이래로 가장 큰 선교 운동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하나님께 의해 사용되었다. 그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일 것이다.

마지막 비유는 그물 비유이다(마13:47-50). 바다는 백성, 민족 혹은 무리를 대표하며, 이 비유는 교회 시대 끝 무렵에 심판받을 자들을 묶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오디게아 시대는 주님께서 선한 자들을 모으시는 것과 아울러 나쁜 것들을 불 용광로에 던져 넣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 9. 일곱 교회들에 대한 다른 견해들

### 1. 일곱 교회와 이스라엘 왕국의 비교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들과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비교 설명한다.

- (1) 에베소 : 새로 시작된 왕국이 성장하는 시기로, 솔로몬의 통치가 최고로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음.
- (2) 서머나 : 르호보암 치리 하에서 급격하게 꺾게 되는 쇠락. 솔로몬과 더불어 시작된 최초의 희망찬 모습과 너무도 대조됨(왕상12장).
- (3) 버가모 : 산당들과 배교한 종교의식이 참된 경배를 대체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치리 하에 놓임(왕상12:26-33)
- (4) 두아디라 : 남자가 왕좌에 앉아 있으나 악한 여자가 권력을 휘두름. 아합과 이세벨의 시기(왕상18장 이하).
- (5) 사테 : 육신적인 그릇들을 통한 보잘것없는 부흥. 질투 많은 예후의 통치 시기(왕하9-10장).
- (6) 필라델피아 : 하나님께서 깊이 있는 영적 사역을 통해 큰 성과를 이루심. 히스기야와 요시아의 통치 시기(대하29-35장).

(7) 라오디게아 : 부패와 파산, 므낫세와 시드기야 치리 하에 궁극적인 몰락  
(대하33,36장).

## 2. 일곱 교회와 이스라엘 민족의 비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전체를 이 일곱 교회를 통해 더욱 넓  
게 쇠퇴하는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1) 에베소 : 이스라엘이 주님과 약혼함(출애굽).

(2) 서머나 : 광야 시대의 방황(민수기).

(3) 버가모 : 광야 시기의 불신으로인해, 약속의 땅의 정복과 가나안 민족들  
의 정복에 있어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함(여호수아-사사기).

(4) 두아디라 : 왕들의 시대(열왕기 상하).

(5) 사데 : 이스라엘 왕국의 몰락(역대기 상하).

(6) 필라델피아 : 유다의 선한 왕들(대하).

(7) 라오디게아 : 유다 왕국의 몰락(소선지서).

## 10. 일곱 교회를 통해 살펴본 오늘날의 오류

### 1. 에베소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오늘날의 오류

#### A. 거짓 사도들

- (1)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표적 은사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
- (2)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명령, 칙서, 칙령 등을 더할 수 있다는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는 자들
- (3) 자신들의 교회만이 유일한 교회라고 하면서 사도적 계승을 주장하는 자들

#### B. 사랑이 없는 수고

- (1) 옳은 일들을 옳은 방식으로 행하는 근본주의 그룹에 속하나 죽어 있는 정통 교회들은,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일들을 강조할 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마음은 없다.

#### C. 니콜라 당의 행위들

- (1) 성직자와 평신도로 계급이 구분된 제도가 거의 모든 교단에 존재함
- (2) “높은” 지체들에게 “낮은” 지체들이 종속되도록 만들어 놓은 성직 제도 (카톨릭, 정교회 등)
- (3) “하나님의 사람”을 믿는 자들로 구성된 지역 교회 안에서 우월한 지위로

높이려는 “목사의 권위”에 관한 교리들

## 2. 서머나 교회에서 발견되는 오늘날의 오류

### A. 거짓 유대인들

(1) 율법주의 : 교회가 유대 민족에게만 주어진 율법 중 그 어느 것이라도 추구한다면 이단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a)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안식교 등)

(b) 음식 관련 법을 지키는 자들

(c) 의식법과 도덕법을 분리하여 도덕법을 주장하려는 자들

(2) 브리티시 이스라엘주의 : 이들은 북왕국 10지파가 영국으로 이주하였다가 후에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이에 잉글로색슨 민족이 신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a) 암스트롱의 범세계적인 하나님의 교회

(b) 정체성 운동

(c) 반유대적인 극우 정치 단체들

(3) 왕국 신학 : 많은 개신교단들은 신약 교회가 구약 교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에 땅을 점령하라는 약속과 왕국을 이 땅 위에 세우는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믿는다.

(a) 모든 개혁 교회들

(b) 모든 진정한 장로교회들

(c) 모든 칼빈주의 교회들

(d) 상당수의 은사주의 교회들

(e) 지배 신학을 가르치는 자들

※1~3번 교회들은 “영국 교회”와 같은 국가 교회의 개념을 갖고 있음을 주목

할 것

(4) 제사장 제도 : 교회 안에 구약 시대 레위 지파 같은 성별된 집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모든 교단은 “거짓 유대인”들로 간주할 수 있다.

(a) 로마가톨릭 교회

(b) 그리스 러시아 정교회

(c) 감독 교회(성공회)

(5) 은사주의

(a) 모든 “신유”주의자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을 자기들 것으로 주장한다.

(b) 모든 “형통”주의자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을 자기들 것으로 주장한다.

### 3. 버가모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오늘날의 오류

A. 발람의 교리 : 세상에 “적응”하고자 쾌락과 부도덕한 것과 타협함

B. 니콜라주의 : 성직계급으로 하여금 “평신도”를 지배하도록 함

### 4. 두아디라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오늘날의 오류

A. 여자 교사들

(1) 기독교를 자처하는 거짓 종교들

(a) 안식교 - 메리 엘렌 화이트

(b) 크리스천 사이언스 - 메리베이커 패터슨 글로버에디

(c) 신지주의 - 블라바츠키 여사

(d) 현대 오순절 운동 - 에미 심플 맥퍼슨

(2) 기존 교회들 내에서 발견되는 오류

(a) 여성 목사, 감독, 집사들

(b) 남녀로 구성된 회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라디오, T.V. 여성 사역자들

(c) 남녀로 구성된 회중을 가르치는 여성 교사들

B. 부도덕

(1) 음행을 용납함

(2) 간음을 용납함

C. 우상 숭배 관행에 참여함

5. 사데 교회에 뿌리를 둔 오늘날의 오류

A. 거듭난 혹은 거룩한 삶이 없이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기독교

B. 자신들이 여전히 붙들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본적 진리들에 대해 부주의한 무관심을 보임

6.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발견되는 오늘날의 오류

A. 주님보다 사람들을 더 높임

B. 물질적인 부를 자랑함

C. 영적 소경

D. 타협적인 태도(미지근함)

## 11. 교회가 사라짐

이곳 이 세상에서, 즉 이 낮은 곳에서 살면서  
 나는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을 누렸으니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과 친구들과 더불어 누렸도다.  
 그러나 그 어떤 기쁨도 비교될 수 없노라.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가 나누게 될 그 기쁨에는

요엘 험필(Joel Hemphim)

“위로 오르는 길”에서

현재 사탄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계6:2)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살후2:6-7). 이번 과에서는 이 위대한 사실(휴거)을 지지해 주는 성경 기록들을 통해 그 증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의 문들이 그분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다(마16:18). 계시록 13:7절에서 사탄은 성도들을 이기고 이 세상을 통치한다. 주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으므로, 이때 교회는 분명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2. 계시록 2, 3장에서 우리는 지역교회들의 활동에 관해 읽게 된다. 계시록 4장은 “이리로 올라오라”(4:1)라는 외침과 함께 시작된다. 이 부름의 소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13-18에 나오는 주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떠남에 대한 자세한 약속과 잘 맞아 떨어진다.

3. 이 부르심에 이어 요한은 자신이 즉시로 하늘에 있는 왕좌 앞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로부터 계시록에서는 지상에 있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4. “대환란에 대한 정의”라는 앞선 과에서 이미 주목한 바와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부르심은 야곱의 고난(렘30:7, 단9:24-27) 이전에 있다.

5. 대환란은 진노의 때이다(계6:16-17, 습1:15).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진노가 아닌 진노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실로 위대하고 보배로운 약속이 주어졌다(살전1:10, 5:9). 교회는 사람들의 진노로부터는 분명코 자유롭지 못하나 하나님의 진노의 경우 결코 교회에 해당될 수 없다. 교회는 용서함을 받아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완전하게 된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해당이 된다.

6. 교회가 하늘에 있게 되는 또 다른 증거는 24장로들이다. 하나님의 왕좌 주위에서의 이들의 활동은 계시록 4:4-5:14에 묘사되어 있다. 장로라는 칭호는 천사들에게는 결코 주어진 적이 없다. 우리는 성경 그 어디에서도 천사들이 왕좌에 앉아 있다든가 왕관을 쓰고 있는 장면을 접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은 천사들



이 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왕관들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벰전5:2-4, 딤후4:8 등). 사도와 동료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계1:6)는 약속을 받았고,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는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라는 약속도(딤후2:12)받았다. 이들 24장로들이 분명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받았다는 사실(계5:9-10, 1:5) 하나만으로도 너무도 분명하다고 하겠다. 이들의 왕관들은 지상에서의 왕관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왕관들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고후5:10, 고전3:11-15) 받은 것임이 틀림없다.

7. 우리는 이 무리가 또한 흰 옷을 입고 있음(4:4)을 보게 된다. 이것은 제사장의 의복이다. 그러나 그 어떤 레위 지파의 제사장도 왕관을 쓰거나 왕좌 위에 앉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들은 구약 시대의 성도가 될 수 없다. 이들은 왕가의 제사장 직분(벰전2:9)을 지닌 자로 성령에 의해 중생한 자들이다(딤후3:5).

8. 성경의 관련 기록 중 대부분에서 장로란 한 민족, 지파, 가문 혹은 도시의 대표로 나타난다. 구약 경륜 하에서는 24명의 제사장이 직분을 담당했었다(대상 24:1-19). 다윗은 24명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찾아내어 모든 제사장 직분의 대표로 삼았다. 새 예루살렘에는 12개의 기초석이 사도들에게 속한 반면, 12대문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을 따라 불리고 있다(계21:10-14). 이 사실과 더불어 다윗 시대의 제도도 '첫 열매들'이며, 이는 하늘로 데려가신 자들 또한 이 그룹에 속해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다.

9. 또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거듭난 성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진노의 날에 대한 예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이다. 요엘서 2:31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경고가 이렇게 나와 있다. “크고 두려운(terrible)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욥2:31).

그러나 베드로가 오순절 날 성령의 권능 하에 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저 크고 주목할 만한(notable)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행2:20)를 선포하도록 하셨다. 이 날은 대환란을 겪을 자들에게는 두려운(terrible) 날이 될 것이다. 환란을 피하게 될 자들에게는 주목할 만한(notable) 일일 뿐이다.

10. 교회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하늘에 있기 때문에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렇다고 이들이 환란을 통과하여 벌을 받기 위해 땅으로 되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11. 골로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이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골1:22)로 드러질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다. 그런데 이 거룩한 구별의 약속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져 있다(고전1:2). “선한”(좋은) 그리스도인은 휴거되고 “나쁜”(악한) 그리스도인은 환란 전체, 혹은 일부를 일종의 연옥 같은 것으로 통과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비성경적이다.

12. 우리는 화해를 이룬 대사들이며(고후5:17-21),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어떤 국가도 적대적 행위가 외국 땅에서 발발했을 때 자기 나라의 대표를 포기할 정도로 무책임하지는 않다.

13. 교회의 예표인 에녹에게는 그가 동참하지 않을 두려운 일들이 계시되어 있다.

14. 죽어 있든 살아 있든 모든 성도들의 복된 소망은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살전4:13-18). 주님께서 이 땅으로 오실 때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견디거나, 살아남고자 끝까지 견디는 것이 아니다.

15. 사람들은 환란 때 안식일과 관련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마24:20). 그러나 안식일은 그리스도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골2:16).

16.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다가올 적그리스도와 그가 통치하게 될 위험한 때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2절에 따르면 이 내용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는 그 누구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된다. 만약 우리가 이 위험한 때에 살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17.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들의 삶에 대해 다루는 서신들에서 바울은 단 한 번도 대환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징계에 대해서는(고전11:32) 주목해야 하지만, 이 세상의 정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18. 롯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지 않으실 것임을 입증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창18:25). 사실 롯의 의로움은 그 누구에게도 나타나 보인 적이 없었다(벧후2:6-9, 창19:14).

19. 대환란은 복된 소망이 아니다. 환란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의 표적을 기다리게 한다. 교회가 야곱의 고난의 전부, 혹은 일부를 겪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 하는 벽을 허물려고 시도하는 또 다른 이단일 뿐이다. (이와 더불어 교회의 휴거(사라짐)에 대한 20여 가지의 증거들을 계시록에서 더 찾을 수 있다.)



### 3 야곱의 고난

우리는 이 세대 이 나라에서 -선택했다기보다는 운명에 의해-  
세계 평화를 감사하는 자인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힘  
과 책임에 합당한지, 지혜와 절제를 가지고 우리의 힘을 사용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대와 향후의 모든 시대를 위해 땅  
에는 평화와 사람들에게 호의라는 옛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지  
를 묻고자 한다. 이것이 항상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  
이미 오래 전 기록된 그대로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걸음이 헛된 것이다.

John F. Kennedy 대통령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 달라스에서 연설하려고 했었던 내용 중

(연설을 못한 채 암살당함)

## 12. 환란 때 나타날 하나님의 증인들

이 세상에는 비겁한 자들은 거할 곳이 없다. 우리 모두는 어찌하든  
 애쓰다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준비를 해야 한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매일의 전투를 위해 나갈 때 아무도 복을 쳐 주지 않고 당신이  
 패배든 승리든 전투에서 돌아올 때 아무도 소리쳐 주지 않는다 해서  
 덜 고상한 것이 아니다.

Robert Lewis Stevenson

지구가 마지막 때에 임할 심판으로 인해 파괴되기 전에(계7:1-3)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이 인을 받아(4), 다니엘의 칠십째 주 기간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사역을 위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각각에서 만 이천 명의 남자들이 선정될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들”(파수꾼)의 잘못된 주장과는 반대로 이들 14만 4천 명은 모두 남자들이며, 동정으로 그들의 지파가 추정이 가능한 흠 없는 성품을 지닌 유대인들이다(계14:1-5).

환란 기간 중에는 그 어떤 종류의 상업적 거래를 위해서는 짐승의 표가 요구될 것이다(계13:15-18). 짐승은 표범과 같다고(계13:1-2) 했으므로 그 짐승의

표를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 어떤 표범도 U.P.C. 바코드를 몸에 지니고 있지 않으며 표범은 모두(비록 검은 표범이라 할지라도) 검은 점을 갖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는 컴퓨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컴퓨터가 발명 되기 훨씬 이전에도 이미 “불법의 신비”는 활동 중이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마에 검은 점을 받기 위해 재의 수요일(사순절의 첫날-역주)에 줄을 선다. 힌두교도들은 이마의 정중앙에 보석이나 다른 장신구를 단다. 동양인들은 존경의 표시로 손을 이마에 댄다. “뉴 에이지 종파”는 이마 한 가운데에 있는 “제3의 눈”의 신비를 탐구하고 이것과 송과체(간뇌의 윗면에 있는 기관-역주)와의 관련을 밝히고자 옛 신비 종교의 의식을 수용한다. 오늘날의 “치유” 사역자들은 영적 능력을 전달하기 위해 이마에 손바닥을 올려놓음으로써 마술의 능력을 나누어 주기도 한다.

계시록 13:16은 오른손 안에 받을 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세상의 여러 신화에 나오는 신들, 힌두교의 우상들, 그리고 교황의 인사 예식 등은 모두 신비적인 종교 의식의 일환으로 오른손을 들어올리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온 세상의 종교가 주식 시장과 국제 은행에 눈을 돌려도 성경 신자들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상업이 아닌 종교와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신문이 아니라 성경이 예언적 진리를 푸는 열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환란 시대의 증인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도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만의 특별한 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읍에서 이들 신실한 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실 것이다. 이들은 기록관의 잉크통의 열린 끝 부분을 이마에 눌러 인을 받으며, 이 인이 곧 짐승의 표를 대신하게 된다(겔9:1-

11).

이들의 점은 짐승의 점과는 다를 것이다(신32:5).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계14:1). 이들 증인들은 강하고 공적을 세울 것이며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줄 것이다(단11:32-34). 이들에 의해 회심한 자들 중 일부는 시험을 당하고 정결케 되며 희게 될 것이며, 이 일은 마지막 때까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단11:35, 12:10).

그 중 두 명의 증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다(계11:3-10). 이들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들이다(속4:11-14). 이들은 거의 삼 년 반 동안 예언을 하게 되며 원수들을 소멸하기 위해 불을 사용하고 하늘로부터 비를 멈추게 하며 물을 피로 변하게 하여 땅을 재앙으로 치는 권능을 지니고 있다(계11:5-6). 이들의 사역은 심판과 정죄의 사역인 것이다. 그들은 사역이 끝나갈 즈음에 예루살렘에서 짐승에게 살해 당해서 길가에 그 시체가 내팽개쳐진다(계11:7-8).

“오 하나님여, 이교도들이 주의 상속 재산 안으로 들어와 주의 거룩한 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 위에 두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하늘의 날짐승에게, 주의 성도들의 살을 땅의 짐승에게 먹을 것으로 주었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주변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묻을 자가 아무도 없었나이다.”(시79:1-3)

이들의 죽은 몸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매장도 되지 않은 채로 길에 나뒹구는 동안, 바알 숭배자들은 X-mass를 축하하고 자신들을 괴롭히던 자들이 죽은 것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주님의 재림 시기를 맞이하려는 사람 중 그 누구도 이 사건이 12월 25일과 현저한 관련이 있는 것임에 주목하지 못한 것 같다. 이때 사람들이 선물을 서로 교환하고는 즐거워한다고 (Merry) 말씀하고 있음을 주목하라(계11:10).)

영어에는 휴일(holy-days)과 관련된 인사말이 여러 종류가 있다. happy New Year, happy birthday, happy Halloween등이 있으나 유독 Christ-



mass만은 happy 대신 “Merry”를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하기 바란다.

이 두 증인은 에녹과 엘리야라고들 하는데, 이는 이 둘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기 때문인 것 같다. 성경에 따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히9:27), 이들은 죽음을 보지 않았으므로 이때에 이 두 사람이 죽을 기회를 얻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한 첫째 문제는, 죽음을 한 번 이상 경험한 사람이 여럿 있다는 사실이다. (저자의 창세기 3장 개요를 참고할 것), 유두고, 도르가, 나사로 등은 육신의 죽음을(첫째 사망) 한 번 이상 겪었다.

이 견해의 둘째 문제는 만약 에녹이 계시록 11장에서 환란 때 죽게 될 두 증인 중 한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될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예표가 성경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에 따르면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한다. 올리버 그린은 이 견해를 가장 잘 대표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구약 성경에 마지막으로 언급된 세 사람은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이다(말 4:3-6). 이 구절의 문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지구가 겪게 될 환란이다. 몇몇 사도는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왕으로서의 영광을 지닌 채 나타나셨을 때 하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마17:1-3, 눅9:30). 이때도 이 산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하였다.

성경에는 40주야를 금식한 세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모세와(출33:21), 엘리야(왕상17:1), 그리고 예수님이시다(행7:56).

계시록 11장의 사역과 관련하여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이(마10:1-8, 요1:11), 그들도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특별한 사역을 수행하였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들의 사역 하나하나에는 당시의 종교 제도에 대한 결정적인 분량의 심판이 있었다. 성경에는 원수들이 불살라진 사람이 셋

등장한다. 이 역시 모세(민16:31-35), 엘리야(왕하1:10), 그리고 예수님이다(말 4:1-3).

이들 세 사람은 기적적으로 물을 건넜으며(모세; 출14-15, 엘리야; 왕하2:8, 예수님; 마14:25-26), 세 사람 모두 사역 기간 중 자연에 대해 권능을 행사했다(재앙, 출5-10; 왕상17:1; 약5:17, 막4:39).

이 둘 중 하나가 엘리야라는 사실을 반대하는 자들은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에 대해 예언된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주장한다. 즉 마태복음 11:14, 17:12에서 그리스도께서 요한이 예언된 그 엘리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선언은 “만일 너희가 그것(왕국)을 받아들이려 할진대”라는 조건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들은 왕국을 거부했고 결과적으로 요한은 예언을 성취할 엘리야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스가랴에게 요한에 대해 예언한 천사 역시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라고 했을 뿐, 요한이 문자적인 엘리야라고 하지는 않았다. 더군다나 요한 자신 역시 자기가 엘리야라는 사실을 부인하였다(요1:21). 우리가 엘리야에 관한 말라기 구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엘리야가 돌아오게 될 그때의 시기에 관해서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즉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는 올 것이다.

자신들의 해석 체계를 고집하는 주석가들은 이들 증인들을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는데, 그런 짓은 이스라엘 혹은 교회의 사역을 상징적 방법으로 기술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스가랴서 4-5장에는 두 올리브나무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두 사람으로 나와 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을 백성에게 전달하도록 쓰임 받은 하나님의 도구이다. 이들은 온 땅의 주님 앞에서 그분을 섬기는 책임을 스스로 감당코자 하는 사람들이다. 여호수아는 스가랴서 3:1,3,6,8,9에서 언급되어 있다. 이

두 사람은 또한 학개서에서 하나님을 위한 공동 증인으로 함께 서 있는 모습으로 등장한다(학1:1, 2:2-4).

이들은 유대인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증인들이었다. 우리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신원을 알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한다면 이는 단지 추측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에 대해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 13. 환란 때의 구원

이때야말로 좋은 때인데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 사람뿐이다.

Henry Ford

1931년 3월 15일 신문 인터뷰에서

대환란 기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이 주제에 대해 제대로 된 연구를 하려면 사전에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먼저 답변을 얻어야 한다.

1. 무엇으로부터(from what)의 구원인가?
2. 무엇을 향한(Unto what) 구원인가?

교회 시대에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다. 환란 때에는 죽음으로부터 구원 받아 천년왕국 안으로 들어간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여호와의 증인은 여러 책자들을 들고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예수를 믿고(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어느 정도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은 지상에서 낙원에 거할 수 있게 된

다고 말한다. 파수대 책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이 이론은 성경 구절들을 문맥을 무시하고 끼워 맞추어 만들어진 것들이다. 성경 말씀을 잘못된 곳에 잘못 적용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

역사는 반복된다(전3:15).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양의 피로 구속을 받고(출12장), 속박에서 벗어나 침례를 받았다(고전10:2).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었다(민수기).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조심스럽게 읽어보면,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 그 누구도 하늘에 있는 영생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그들이 출애굽, 광야 여정, 계명, 율법, 그리고 심지어는 희생물과 예물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의 삶을 겨냥하고 있다. 따라서 대환란 기간은 교회는 사라졌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으로서 다루고 계시며 하늘의 왕국(물질적 왕국)에 대한 약속이 다시 유효하게 된 상황이다.

이때 신실한 사람들은 메시아께서 세우실 지상 왕국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환란 때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들의 조상들과 동일한 운명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의 4가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대환란 때에는(마24:21) 구원 받으려면 끝까지 견뎌야 한다(마24:13). “다른 복음”(갈 1:6)을 전하는 모든 설교자들이 지난 2000년 동안 한결같이 신약 성도들의 구원의 보장을 무너뜨리고자 이 구원을 사용해 왔지만, 이 구절의 문맥에 따르면 여기서의 구원은 육체적 죽음으로부터 육체가 구원받는 것(마24:22)임이 명백하다.

2. 신랑이 오실 때(마25:6), 어리석은 처녀들은(복수로 되어 있음을 주목할 것, 교회는 하나의(단수) 정숙한 처녀로 나와 있음, 고후11:1-3)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마25:10-12). 이들은 등잔(성령이 아님)이 타오르도록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 잔치에서 배제됐다(마25:1-10).

이들 처녀들은 혼인식의 증인이었을 뿐 신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시편45:9에서 입증된다. 이들 처녀들은 신부를 따르는 자들로 (수확 이후에 있게 될 이삭 줍기에 관한 앞선 설명을 참조할 것) 신부의 동료들이다(시45:14).

3. 야곱의 고난 기간 중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도, 그리스도의 형제들(유대인)을 돕지 않은 자들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마25:31-46).

4.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비록 시작은 잘 했다 해도(히6:4-6),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써(계13:6-17) 자신의 혼을 저주하도록 미혹당할 것이다(살후2:11-12).

교회 시대에 죄로부터 하늘에 있는 영생으로 구원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 없이 복음으로, 은혜로 된다(엡2:8-9, 롬11:6, 행15장). 그러나 환란 때에는 죽음에서 구원 받아 하늘의 왕국(천년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구원은 당연히 계명을 지키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두 가지가 다니엘의 70째 주 기간에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계12:17, 14:12, 15:3, 마24:15).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구원이 행위에 의해 획득된다고 믿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왜냐하면 대환란을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들은 믿은 후에도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환란 전 휴거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들의 교리에 일괄성을 유지하기 위해, 믿는 자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부인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로써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셈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류가 나서서 우리 모두를 혼동으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이다.

## 14. 야곱의 고난 전3년 반 기간 중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모든 전쟁은 비밀 위원회 방에서  
옛 사람들에게 의해 몰래 계획되었다.

Grantland Rice  
The Final Answer에서

신약 성경은 다니엘의 70째 주를 동일한 두 기간(3년 반씩)으로 나누어 “그  
날들의 환란”과 “대환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과에서는 우리는 전반기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지상에 보내실 심판들에 관해 상고하고자 한다.

시편 75편은 마지막 때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제공해 준다. 1-5절에는 회  
중을 맞아들이는 곧바르신 왕께서 지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벌 주시고, 두 부류  
모두를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온다.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데려가서  
서 자신에게로 받아들이심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회중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에 서 있는 동안 자신들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던 어리석은 자들  
은 의로우신 왕의 심판들을 자신 위에 쌓아 가고 있다.



6절에서 우리는 교회가 높임을 받는 모습을 본다. 우리는 주님의 거처가 북쪽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배운 바 있다. 이 높임은 자기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고 북편에 계신 위대한 왕께서 권능으로 행하시는 역사이다.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보게 된다. 이곳에서는 믿는 자들의 일들이 시험을 받으며, 이로써 우리는 누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섬겼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8절은 대환란에 대한 묘사이다. 성경에서는 “잔”, 혹은 “이 잔”이라는 표현이 진노와 심판을 언급함을 보게 된다(사51:17-23, 합2:15-16, 겔23:31-34, 렘25:27, 48:26, 49:12).

우리는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라고(마26:39) 아버지께 드린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주님께서 결국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분께서 베푸신 용서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죄인들이 직접 그 잔을 마셔야 할 차례인 셈이다.

9-10절에서 우리는 영원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며 아마겟돈에서 사악한 자들을 끊으실 것이고 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계시록 6장으로 가면 우리는 흰 말을 탄자를 보게 된다. 이 자가 첫째로 흰 말 탄 자이며 둘째로 흰 말을 타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계19:11 이후). 첫째 인물은 그리스도를 너무도 잘 흉내 내서 이를 통해 세상을 속인다. 그는 평화의 이름으로 등장하나 그의 뒤에는 전쟁과 사망의 상흔만이 남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붉은색 말 탄 자가 나와서 땅에서 평화를 앗아가 버린다(계6:3-4). 이 자는 전쟁과 소요를 동원하여(마24:6-7a), 폭동과(눅21:9-10) 배반(마4:10, 렘9:4-5)을 이용하여 그 일을 수행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의 종말론 학파”들의 주장 중 두 가지를 반박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첫째로 휴거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부추기지 않는다. 여러 책들과 영화는 비행기 충돌, 자동차 충돌, 무덤의 개방, 등이 휴거 발생 시 일어나게 되고 엄청난 공포가 발생하며, 이에 적그리스도가 이러한 혼란으로부터 질서를 회복하여 기회를 포착할 것이고 뒤이어 지상의 독재자가 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황당한 이야기를 가르치려면, 그 길은 좁고(narrow) 그것을 발견하는 자는 적다(few)는 사실을 무시해야 할 것이다. 노아의 날들에는 (눅 17:26에 따르면 재림 직전도 이와 같다고 함) 겨우 8명만이 구원을 받았다. 롯의 날들도(눅17:28에는 재림 직전의 상황이 이와 같다고 함) 겨우 한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3년 반 동안 기적 같은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추종자는 겨우 120명만 얻었을 뿐이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중 다수가 휴거에 대해 “늘상의 생업”에 종사하는 세상을 뒤흔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것은 순진한 발상일 뿐이다. 1991년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의 연감에 나와 있는 자료를 살펴보자.

전 세계 인구	5,292,178,000
무슬림(회교도)	935,000,000
무종교	866,000,000
힌두교	705,000,000
불교	303,000,000
무신론자	233,000,000
중국 민속 종교	180,000,000
신흥 종교	138,000,000

부족 종교	92,012,000
시크교	18,100,000
유대교	17,400,000
샤마니즘	10,100,000
유교	5,800,000
바하이교	5,300,000
야인교	3,650,000
신토이즘(일본)	3,100,000
기타	17,938,000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아무도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통계 자료는 35억 2천 3백 4십만 명의 사람들이 종교는 갖고 있으나 휴거는 되지 못함을 보여 준다.

나머지 통계는 다음과 같다.

로마카톨릭	995,780,000
개신교	363,290,000
정교회	166,942,000
성공회	72,980,000
기타 기독교	159,785,700

성경에 따르면 구원은 행위가 아닌 복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다(엡2:8-9). 그런데 카톨릭과 정교회 그리고 성공회는 전적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선행을 해야 한다는 교리 위에 세워져 있다. 그러므로 이 종교 집단에 속한 사람들 중 진정으로 구원 받은 사람은 아마 극소수일 것이다.

개신교단들 역시도 상당히 암울한 상태이다.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물몬교 및 기타 은혜를 부인하는 종파들을 포함하는 “기타 그리스도인”들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에 대해 상당한 조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거의 20년이 넘게 교회 회원들을 접해 오고 있기에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갖게 되었다. 개신교 혹은 근본주의 교회 회원 1000명 중 한 300 명 정도는 성경적 구원의 개념을 알지 못한 채 ‘입으로만’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나머지 중 또 300 명 정도는 물 침례가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또 300명 정도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뭔가 선행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나머지 100명 중 50명 이상은 교회를 망치거나 이용해 먹고자 하는 불법의 일꾼들이고(이들은 사회적, 정치적 혹은 상업적 목적으로 교회 회원이 되었다), 나머지 40명은 구원의 방법을 알고 있으나(머리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았다.

물론 일부 개신교도와 카톨릭 그리고 성공회나 기타 종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도 아주 약간의 구원받은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53억 인구 중 백만 명 미만 정도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 사역만을 신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휴거는 길어야 2, 3주 정도 뉴스에 다루어질 현상에 불과할 것이다. 뉴스 앵커들에 의해 세뇌되어 쉽게 속아 넘어가는 대중들은 이 사건을 곧 잊게 될 것이다. 몇 개월만 지나면 대중은 ‘그 다음 사건’으로 관심을 옮길 것이고 일요 신문 특집 기사들이 가끔씩 휴거를 다루는 것을 제외하고는 휴거는 과거의 사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휴거에 대한 첫째 그림은 다름아닌 에녹(한 사람)이 사라진 것이었으며, 홍수가 와서 사람들을 다 쓸어가 버릴 때까지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지속

했을 뿐이다(마24:39). 전세계가 한 사람을 그들의 왕으로 자원해서 등극시키려면, 전 지구상의 여건이 충분히 악화되어야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것이다.

아마도 미국의 남부지역과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정도에서는 휴거가 충격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겠지만 일본, 중국, 프랑스, 남부 유럽, 와이오밍 주, 북아프리카, 유타 주 등에서는 휴거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사실 이 땅의 대다수의 나라들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떠나 버리는 사건이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나 도시나 행정부서에게 의미 있는 충격을 줄 만큼 충분한, 진정한(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다. 그러나 권력을 지닌 붉은 말 탄 자가 땅에서 평화를 앗아가고 전 세계적 규모의 전쟁을 일으킨다면 사람들은 속게 될 것이다. 아마 이번 전쟁은 세계 제2차 대전을 그저 ‘연습 게임’ 정도로 보이게 만들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42개월 동안 보내실 자연 현상들이 가세하면 이 세상은 해결사를 찾을 필요를 느낄 것이다.

그 다음에는 검은 말을 탄 자로 기근을 의미한다(계6:5-6). 물품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르게 마련이다. 이 시기에는 빵 한 조각을 위해 하루치 임금을 다 지불해야 할 정도가 될 것이다(마20:2).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그들의 빵 지팡이를 부숴 버리시겠다고 경고하셨다.

“또 내가 너희의 빵 지팡이를 부러뜨릴 때에 여인 열 사람이 한 화덕에서 너희의 빵을 구워 다시 저울에 달아서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레26:26).

이러한 기근은 부분적으로는 우박과 피가 섞인 불에 의해 생길 것이다. 두려운 폭풍으로 지구상의 나무 삼분의 일과 풀이 전부 타 죽게 된다(계 8:7). 이로써 “녹색 평화”는 더 존재할 수 없게 되고 비를 저장하지도 못하고 멸종의 위기에 처한 종(species)을 보호할 방법도 없게 된다.

땅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 하나님은 아니다. “환경 숭배”는 다른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지옥으로 몰고 갈 뿐이다.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은 결국 전염병과 질병을 가져온다(마24:7b, 눅21:11).

이와 같은 재앙들 외에도 바다의 물 3분의 1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계 8:8-9).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에 대해 출애굽 전에 이 심판을 하신 바 있다(출7:19-21).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적적인 심판을 전세계적인 규모로도 되풀이하실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민물의 삼분의 일도 썩이라 불리는 별(계8:10-11)에 의해 중독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우상에게로 돌아서서(신29:18) 창녀를 따르다면(잠5:4)이 쓴 물을 주시겠다고 경고하신바 있다.

“주가 말하노라. 그 까닭은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내 법을 버리고 내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 안에서 걷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마음에서 상상한 것을 따라 걸으며 자기들의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라 걸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썩을 먹이고 썩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며” (렘9:13-15)

우리는 지구상에서 물 공급이 중단될 때 발생할 재앙에 대해 상상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일의 주범은 산업 발달도 아니고 재활용에 실패한 미국인도 아니며 참치를 잡다가 돌고래를 죽이거나 작고 귀여운 바다표범을 때리는 어부들의 잘못이 아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바닷물을 피로 바꾸시고 자신의 민물에 독을 타실 것이다. 그러니,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 물에 대한 심판의 결과 모든 바다와 강이 피가 될 것이다(계16:3-4).

나는 이제껏 수백만의 짐승들과 수십억 마리의 바다 생물들이 죽음으로 인

해 있게 될 끔찍한 악취에 대해 다루고 있는 주석가나 설교자를 본 적이 없다. 또한 이들 시체들과 일련의 전염병의 창궐과의 상관 관계를 언급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다. 실로 그 날은 두려운 날이 되고 말 것이다.

이때에는 타오르는 태양의 열기에 그슬린 사람들은(태양 광선으로부터 인간을 막아 주거나 그 열기를 차단할 비구름이 전혀 없는 상황임을 기억할 것) 목이 탈 것이며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독하는 가운데(계16:9) 스스로가 그런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임을 입증하고 말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반역하는 죄인들을 회개로 이끌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사람을 회개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롬2:4)이기 때문이다.

환란의 처음 3년 반에는 해, 달, 그리고 별들의 삼분의 일이 빛을 잃게 된다(계8:12). 따라서 열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강도가 낮아지겠지만 동시에 어두움이 등장하게 된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문명 사회를 돌볼 자가 없어지면 가시나무와 새와 짐승들이 신속히 번져나가 한 때는 대도시였던 지역을 삼키게 될 것이다(사34:11-15).

인간은 자신들이 모든 것의 지배자로, 정복자로 생각했으나 인간은 그의 지구에 대한 지배권을 동산에서 빼앗기고 말았었다. 이제 인간은 가시와 엉겅퀴를 퇴치하고자 땀 흘리고 애를 써야 하며 동물의 왕국을 초원에 국한시키려면 모든 재주를 총동원해야만 한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강박한 마음이여!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대신에 나사로는 물론 예수님마저 죽이고자 했다. 주님의 권능의 말씀에 의해 뒤로 나자빠졌던 자들이 일어나 주님을 체포하기도 했다.

대환란 기간 중 너무도 심하게 심판을 받게 된 인간은 더욱 더 바알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앞서 잉크통 든 자들이 찍어주는 표 덕분에 환란 증인들은 짐승의 경제 시스템 안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살펴본 바 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들로 하여금 사도들의 표적을 재현시키심으로써(막16:17-18) 중독된 물과 전염병과 야수들로 가득 찬 상황에서도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교회가 휴거되기 전인 오늘날에마저도 땅은 이미 고장이 난 듯하다. 땅은 비료 같은 화학 첨가물을 끊임없이 공급받지 못하면 지력을 내지 못하는 듯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씨가 들녘에 떨어지면 절로 싹이 나고 자랐다. 그러나 이제 는 씨에 땅에 심기기 전에 잘 처리되고 개선되어야 하며, 일단 심고 나서도 세심 하게 수고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는다.

영양학자들과 생태학자들, 그리고 생물학자들은 인간이 지구 환경을 너무도 오염시켜버렸기에 이를 정결케 하는 데는 아주 짧은 시간만이 남았을 뿐이요, 자칫 시기를 놓치면 지구는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에서만 인간은 매년 3억 4천만 톤의 쓰레기를 내버리고 있다. 이는 하루에 한 사람당 평균 5파운드(2, 3kg)에 해당한다. 인간의 진화와 적자생존을 자랑하는 동일한 과학자들이, 다가오고 있는 인간의 환경 자살에 대해 가장 볼멘소리를 하고 있으며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제아무리 다원주의자들이 인간은 진화의 최종 단계인 가장 고등한 동물이라 주장하여도, 지구상에서 가장 확실히 생존할 피조물은 고작 바퀴벌레일 뿐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 사실이 그들을 얼마나 당혹스럽게할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고린도 전서 1:19-21 말씀이 이들에게 얼마나 큰 모욕을 안길지 모른다.



## 15. 야곱의 고난 전(前) 3년 반 기간 중의 적그리스도

나는 섭리가 명하는 그 길을 가노라

몽유병 환자의 확신을 가지고

Adolf Hitler

1936년 3월 15일 뮌헨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번 과에서 우리는 죄의 사람, 일명 멸망의 아들(살후2:3), 그 사악한 자(살후2:8), 짐승(계13:1-2), 그리고 적그리스도(요일2:18)라고 불리는 자에 대해 살피보고자 한다. 우리는 체계나 조직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인격체를 다루고 있음을 잊지 말자.

이 자는 세상 전체를 왕으로서 통치할 존재이다. 이 자는 성경에 열 팔 달린 짐승으로(단7:7-8), 그리고 작은 뿔(단7:8, 8:8-9)로 등장하는데, 이스라엘과 민족들의 죄가 가득 찰 때(단8:23) 마지막 이방 제국들의 시대에 발흥할 자이다.

이 자는 바벨론 제국의 몰락 후(after)에 넷째로 등장한 주요 통치자로(단7:3-6), 이제껏 이 세상에 등장한 자들 중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 자는 사나운 얼굴과 숨겨진 글을 깨닫는 능력, 강한 권세, 그리고 놀라운 파괴력으로(단8:24-25) 정복하고 정복할 것이다(단11:21-24, 계6:2).

이 자는 마지막 날들의 종교계의 우상과 영웅이 될 만한 네 가지 특징을 지니게 될 것이다. {계시록에서 알게 되는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마지막 때에는 정치와 종교 세력이 서로 손을 맞잡고 힘을 합칠 것이라는 사실이다.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그리고 지배 신학 같은 거짓 교리, 그리고 종교와 국가의 연합, 그리고 기독교계 안에서 일고 있는 정치와 사회 참여에 관한 강조 등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돕는 무대 장치가 될 것이다.}

첫째로 그는 은사주의적 특성을 가질 것이다(살후2:9, 계13:14).

둘째로 그는 자신을 드높이면서 인본주의(humanism) 교리를 설파할 것이다(살후2:4, 단8:25).

셋째로 이 자는 통합을 추진할 것이다(계13:2는 흰 배와 검은 점을 지닌 황색 짐승을 보여줌),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나누신 것은(창11장)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임을 잊지 말라(행17:26-27).

넷째로 이 자는 평화에 대하여 말할 것이며 장인(craftsman)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 것이다(단8:24-25).

이 자는 바벨론 체계를 허락하여 3년 반 동안 그를 그 체계 위에 태우도록 하나(계17:7-8), 열 왕은 그의 것이다(계13:1, 단7:7). 적그리스도는 종교를 이용하는 정치 지도자인 반면 거짓 대언자는 짐승을 드높이는(계13장) 종교 지도자이다. 많은 주석가들이 교황 제도가 반기독교적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 어떤 유대인도 로마 카톨릭 교황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

의 기억력이 그 정도로 나쁘지는 않다. 그 어떤 추기경 모임도 유대인을 교황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이들의 증오와 시기는 너무도 깊다.

계시록 13장에 따르면 거짓 대언자(아마도 교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가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짐승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할 것이다. 비록 이들이 권력에 이르기 위해 거짓 종교 제도를 이용하기는 할 것이나 짐승과 세계 지도자들은 권력을 얻자마자 그 창녀를 파괴해 버릴 것이다(계17장).

이 죄의 사람은 사방으로 크게 될 것이다(단8:8-9). 그는 남방의 왕과 갈등을 겪을 것이다(단11:25-26). 이 나라가 어디인가에 대한 추측은 헛되다. 이 두 지도자들간의 평화 회담은 열매가 없으리니(단11:27), 이는 서로가 거짓말쟁이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예루살렘을 휩쓸고 약탈할 것이고(단11:22, 9:26), 그 결과 그들로 자신과 동맹 혹은 언약을 맺도록 할 것이다(단11:23, 9:27). 짐승은 전쟁을 벌이던 중 한쪽 팔과 머리에 상처를 입게 되고 오른쪽 눈이 튕겨나갈 것이다(스 11:15-17). 그는 이 상처로 인해 죽거나 죽은 것처럼 보일 것이다(계13:3).

이 자가 전쟁을 하면서도 평화를 통해 권력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왜냐하면 이 방식은 동서고금 모든 정치인들이 써 온 바로 그 방식이기 때문이다. 세계 정부가 세계 정치를 안정시키고자 할 때 마다 유엔은 평화 유지 군대를 보내서 일정한 사람들을 파괴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수법을 쓴다.

주의 : 시편 83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 울부짖는다(1절). 이때 그분의 원수들은 소동을 일으키고 머리를 들어올렸다(2절). 이때 그 사악한 자는 교활한 계략으로 유대인을 완전히 몰살시킬 음모를 꾸몄다(3-4절).

5-9절에서 우리는 이 계획이 10 개국으로 된 연합군이 롯의 자녀들을 돕는 그것임을 보게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을 취하고자 했다(12절). 이스라엘 민족은 이들을 멸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푸라기 같게, 불이 나무를 태우는 것같이 태풍으로 하듯이 그리고 수지로 가득하여 영원히 멸망시켜 주실 것을 구했다. 그런데 이 모든 표현들은 재림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들에 자주 쓰인다. 그 결과(18절)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천년왕국에서의 주님의 칭호임) 온 땅을 다스리게 된다.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10명의 왕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게 된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불법의 신비가 완전히 나타나는 것을 저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알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지기까지 막으리라.’(살후2:6-7) 이 구절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어 왔다.

어떤 사람들은 막는 세력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제국은 실상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를 썼을 당시 큰 권력과 명성을 갖고 있었다.

만약 바울이 막는 세력으로 로마 제국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바울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셈이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후서가 기록된 후 얼마 안 되어서 로마 제국은 백성들 사이에서나 정치가들 사이에서나 잊혀져 갔지만 그래도 죄의 사람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음이 입증된 셈이다.

그 어떤 성경 신자(Bible believer)도 축자영감이라는 위대한 사실과, 사도에 의해 기록된 말씀들의 일부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동시에 믿을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그 세력은 인간 정부라고 주장한다. 이는 앞의 견해보다는 수

용 가능성이 없는 바는 아니나, 막는 세력이 제도보다는 한 인격체 즉 개인임을 본문이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 역시 거부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죄의 사람의 등장과 그의 통치를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들은 이 자가 인간 정부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권력과 권위를 행사할 것임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인간 정부는 그를 받아들이고 도울 것이요, 그를 막는 세력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상당히 널리 수용되고 있는 셋째 견해는 막는 자는 사탄이라는 주장이다. 도박꾼이 에이스(최고의 패)를 소매 속에 움켜쥐고 있듯이 사탄도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적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기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견해이다. 왜냐하면 그 장대로라면 사탄이 사탄을 대적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사탄이 영적인 소경일 수는 있지만 그가 바보는 아니다. 주님께서도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신 적이 있다. “그분께서 그들을 불러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내쫓을 수 있겠느냐? 또 만일 어떤 왕국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왕국은 서지 못하고 만일 어떤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은 서지 못하며 만일 사탄이 자기를 대적하여 일어나 분쟁하면 서지 못하고 종말을 맞느니라.”(막3:23~26)

사탄은 실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에 대적하는 자이지만, 그 역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할 만큼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다.

이 견해에 대한 치명타는 바로 다음 구절이다(살후2:9-10).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죄의 사람의 등장은 사탄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사탄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막는 자인 동시에 그의 등장을 도모하는 자가 될 수 있겠는가?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막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다. 거의 모든 근본주의자들이 이 견해를 지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성령님 안에 내재하고 있는 신성한 권능만이 사탄의 권능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다(요일4:4).
2. 이 견해는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라는 사실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이 시대에는 성령께서 영적인 능력을 주로 행사하신다.
3. 사탄의 활동들은 온 땅에 걸쳐 전개되고 있지만 성령님만이 언제 어디서든 이러한 활동을 막으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쉽게 반박할 수 있다.

첫째, 성령님은 “스타워즈” 세력들처럼 이리저리 떠다니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시기 위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던 것이다.

둘째, 이 교회 시대의 성령의 능력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행사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들은 믿는 자들과 분리되어 이루어지지 않고 믿는 자들 안에서 행해진다.

셋째, 구원받은 자들이 온 세상에 걸쳐 있음은 명백하며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지역이야말로 사탄의 세력이 무제한적으로 활개를 치는 지역이라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 견해는 성령께서는 교회가 휴거될 때 지구를 떠나게 된다는 거짓 교리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교회가 형성되기 전부터 지구상에 존재하셨으며 야곱의 고난 시기에 성령께서는 더 이상 역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성경 어디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자, 지금 막는 자가 성령님이라는 견해를 지지하여 이를 교회에 적용해 보도록 하자.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주님의 몸이라고 불린다. 교회는 마귀와 이 자의 사역을 거부하고, 저지하고, 대적하는 존재이다. 이 일을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 안에서 해내시는 것이다. 따라서 그분의 몸 된 교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려감을 당하게 될 때 불법의 신비는 본색을 드러내고 등장할 것이다.

## 16. 대환란 기간 중의 세계 종교

소경들의 나라에서는 외눈박이가 왕이다.

H. G. wells

The Country of the Blind.

우리는 계시록 2,3장에서 발람의 교리와 이세벨의 가르침에 대한 경고를 살펴본 바 있다. 다름아닌 바로 이것들이 대환란 기간 중 세계 종교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 종교의 첫째 양상은 민수기 22~25장에 등장하는, 돈을 사랑했던 그 거짓 대언자 발람의 교리에서 비롯된다. 이들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망을 원하는 한 이방 왕이,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토록 한 사실을 보게 된다. 하지만 주의 천사가 이를 막았고 주님께서는 발람에게 오직 축복만을 선포하도록 하셨다. 이에 발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유인했다.

발람은 이 유인 책을 모압왕 발락에게 가르쳐 주었고, 이에 이 왕은 모압인들과 히브리 민족이 서로 혼인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 혼혈과 음행으로 인해 하



나님의 진노가 타올랐다(민25:1-8). 왜냐하면 이로써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분리의(이방인과 유대인의 분리, 창11장, 행17:26-27) 원칙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스라엘을 성적 부도덕으로 점철된 우상 종교에 빠져들고 만 것이다(계2:14).

마지막 때의 세계 종교의 다음 양상은 단 지파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단 지파는 뱀이라고 불리고 있으며(창49:17) 또한 사자새끼(신33:22)이다. 이 명칭은 둘 다 루시퍼와 연관되어 있다.

단 지파는 젊은 청년을 제사장으로 고용하였다(삿18:4). 그들은 그를 아버지라 불렀다(삿18:19). 그는 자식이 없었다. 그는 그 지파의 제사장으로서 경배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던 형상들을 관리하였다(삿18:20). 이로써 이 자는 우상 목자(슥11:17), 즉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이다.

단 지파는 이 제사장을 모시고 페니키아 해안에 있는 시돈 근처에 정착했다. 이들은 가나안 인들의 땅에서 가나안인들과 함께 경배함으로써 배교는 더욱 가중되었다. 당시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음을 기억하자(삿18:30-31).

후일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사악한 왕 아합이 왕좌에 오르게 되었다. 그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였다. 그는 그녀를 기쁘게 하고자 페니키아의 신 바알을 섬겼다(왕상16:29-33).

그녀가 궁궐로 들어 온 바알 숭배는 단 지파와 연관이 있었다. 이들의 제사장들은 태양을 경배하였고 기도 응답을 받고자 몸을 상하게 했다(왕상18:24-28). 이들 제사장들은 예복으로 긴 옷을 입었다(왕하10:22).

이처럼 대환란 때의 종교는 온갖 종류의 성적 부도덕을 용납할 것이며 혼합종교, 인종 혼합, 민족 통합(특히 국제 공동 성서의 도움으로 그리 될 것임)이 장려되고 이는 평화, 사랑, 그리고 상호 이해를 가져오는 수단으로서 환영받게 될 것이다.

이 종교는 “아버지(신부)”라 불리는 제사장들의 인도 하에 유지될 것이다. 이 제사장들은 각종 예배 보조 도구를 사용하며, 긴 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사람들에게 자해를 장려할 것이다. 이 대환란 시기의 종교는 이미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확고히 정착되어 있다.

이세벨이 미혹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계2:20) 포도주와 부(富)이다(계 17:1-8). 이 여자는 옛 발람처럼 주의 백성을 세상과 짝하도록 미혹할 것이며 이 세상 종교를 받아들여 영적 간음을 저지르게 할 것이다(약4:1-4, 고전 6:15-20).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녀의 통치로부터 빠져나오라는 경고가 내려졌다(계18:1-8).

## 17. 세계 종교의 본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 자는 명성을 얻기 위함이 아닌즉,  
결코 자신의 이름을 대리석 조각 위에 새기지 않으리라.

Alexander Pope  
Moral Essays 에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신 것과 지구를 덮고 있던 물들로부터 마른 땅을 나오도록 하셨음을 배웠다. 이때 바다들이 한 곳에 모였고 땅 역시 한 곳으로 모여 그 마른 땅은 지구(Earth)라고 일컬어지게 됐다.

벨렉(Peleg, 지진 혹은 나뉘는다는 뜻)의 날들에 땅은 나뉘게 되었고(창 10:25) 대륙은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과 참된 과학은 서로 아무런 모순이 없다. 참된 과학과 참된 성경 해석은 항상 일치한다. 대륙들과 섬들은 조각그림 퍼즐처럼 서로 잘 들어맞는다. 지구의 지진대들은 이동 중이다. 산들은 압력에 의해 솟구쳐 올라 생긴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들은 성경 안에서 발견된다.

이 땅덩어리의 분리의 원인은 창세기 11:1-9에서 찾을 수 있다. 창세기 11장에서 우리는 인간들이 힘을 합쳐 “우주” 개발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자 과학적 경제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들은 탑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도달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힘을 합쳐 일했으나 이 계획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오늘날 NASA의 우주 계획 역시 이와 유사하다. 발사대에 장착된 우주선의 끝에는 캡슐이 있고 그 안에 사람과 기계를 실어서 둘째 하늘로 데려가게 된다. 추적과 통신을 범세계적 규모로 만들어 인류의 공동 선에 이바지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라고 하지 않는가? “인간을 위한 자그마한 발사국이요, 거대한 [Giant, 창6:1-6] 도약”이라는 선언이 1969년 당시 발표되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우주 계획때 우주선의 이름을 노아 홍수 이전의 신들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타이탄, 머큐리, 아폴로, 제미니 등등)

이에 대해 주님께서서는, 땅으로 내려오사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심으로 이 계획을 중단시키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끼리 힘을 합쳐 인류의 공동 선을 위해(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태어났으니) 모두가 하나 되고 하나가 모두라는 정신으로 하나님 없이 하늘에 도달하기 위해 통일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심을 이 심판을 통해 분명히 선언하신 셈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나누심으로써 민족들을 분리하셨다. 나뉜 대륙은 인간들끼리 다시 재통합을 시도하는 데 큰 장애가 되었다. 그러다가 마르코 폴로가 등장하면서 이 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마젤란과 드레이크를 비롯한 여러 탐험가들이 대륙간의 벌어진 틈을 메우기 시작했다. 지식과 여행(오고 감)이 너무나 증가하게 되었고, 결국 바벨탑 사건으로 땅을 나누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효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현상이 마지막 때의 현상임을 성경은 말

숨한다(단12:4).

인간 최초의 우주 계획 본부는 다름 아닌 시날 평야(창11:2)였다.

성경은 인류 역사의 한 시기에 이방인 세력의 수장으로 등장할 한 왕을 주목한다. 이 자는 하늘의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다. 그는 예루살렘을 파괴했고 히브리 민족을 수없이 죽였으나 살아남은 자들은 노예로 삼았다. 그의 지배 하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그의 권위에 복종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해야만 했다.

이 자의 이름은 느브갓네살이었다. 그는 자신의 통치가 전성기를 구가하자 한 형상을 만들고 누구든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 왕은 여러 방면에 걸쳐 다가올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눈치 채지 못하는 독자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밴드가 울리고 음악이 시작되면 모두들 이 형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이 이교도 왕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만 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풀무 불 (불타는 용광로)에 내던져져 죽임을 당해야만 했다(단3:6). 그런데 이 거대한 형상은 다름 아닌 시날 평야에 세워졌던 것이다(단1:2).

우리는 대환란 기간에 있게 될 에바에 관한 특이한 예언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슥5:5-11). 이 에바는(제사장의 의복인 에봇과 다른 것임) 바구니로 한 부셀보다 약간 더 큰 크기이다. 이 부셀은 히브리 측정 단위 중 가장 큰 단위였다.

그런데 이 바구니 안에 납덩이 한 달란트가 던져졌다. (‘던져졌다’를 뜻하는 cast 라는 단어는 단순히 던져진 것 이상으로, ‘형상을 만들다’라는 form, fashion의 뜻이 있다) 무게와 측정 단위는 출처에 따라 다르지만 히브리인들의 달란트는 45~50kg 정도였다. 납이란 은의 찌꺼기 혹은 모방이다(겔22:18).

이 바구니는 덮개가 있는 것으로 덮개를 열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 안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슥5:7).

성경 전체에 걸쳐 이 여인은 항상 영적인 악을 대표하는 존재이다. 이 여인

은 생명의 빵을 부패시키려고 가루 안에 누룩을 숨긴 여인이며(마13:33), 하나님의 백성을 음행으로 미혹시킨 장본인이다(계2:20). 이 여자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살해하면서(계17:1-7) 사치스럽게 살았다. 이 여자는 모든 왕족의 씨를 멸하여 참된 왕 대신 자신이 통치하려고 했고, 자식들에게 주의 집의 기물을 가져다가 바알들에게 바치라고 지시했다(대하24장).

그녀는 자기 자신을 거룩한 어머니라고 불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땅의 청녀들과 기증한 것들의 어머니”라고 부르셨다(계17:5).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피에 취하였고(계17:6) 날개 달린(속5:9) 두 딸을 갖고 있다(잠30:15).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천사도 여성은 없다. 그 어떤 천사도 날개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어째서 모든 위대한 예술가들이(이들은 거룩한 어머니 교회의 회원들임) 천사들을 날개 달린 여자로 그린 것일까? 어찌면 스가랴서 5장의 사건을 위해 이 세상 사람들을 준비시키고자 함은 아닐까?

마태복음 13:4에서 우리는 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함으로써 복음의 전파를 대적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이들 날개 달린 창조물이 사탄의 수하임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다(마13:19).

마태복음 13:31-32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참된 교회와 대조되는)가 더러운 영들(공중의 새들로 상징되어 있음)의 거처임을 보게 된다.

전도서 10:20에 따르면 날개 달린 존재들은 비밀을 다루는 방들에 침투하여 그 은밀한 메시지들을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덧붙여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더러운 날짐승들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는 스가랴서 5장에 나오는 이 황새와 비슷한 존재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둘은 더러운 존재이며 저주와 연관되어 있고(속5:1-5) 그 여인을 섬기는 존재들이다.

대환란 기간 중에는 형상 및 우상 숭배가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특히 그때

엔 거짓 선지자가 온 세상으로 하여금 부활한 적그리스도를(계13:11-14) 섬기라고 강요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이다(계13:16-18).

이때 짐승의 형상에(짐승에게 속한 형상을 일컫는다. 반드시 짐승의 모양을 본뜬 것은 아닐 수도 있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목이 잘려(계20:4) 죽게 될 것이다(계6:9-10, 13:15).

그렇다면 어째서 꼭 에바여야 하는가?

지금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는 이 형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제단에서 참수를 당하게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들은 단두대의 칼날 아래에 얼굴을 아래로 하고 엎드려 죽게 된다. 이때 이들은 머리가 잘려 에바에 떨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그 바구니 안에 앉아 있는 그 여인을 보게 될 것이다. 이들은 결국 “하늘의 여왕”을 대표하는 그 형상 앞에 엎드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의 바빌론은 상업(에바), 거짓 종교(여인), 속도(날개), 그리고 더러운 영들(날개 달린 여인) 등이 협력하여 세워진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 아래에서 여인의 형상을 담고 있는 바구니가 시날 평야에 있는 기지로 옮겨진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바벨탑의 본부와 느부갓네살의 큰 형상의 기지와 환란 성도들의 처형 장소가 동일하지 않는가?

시날 평야에 주의하라.

이 모든 일은 신비의 바빌론이 몰락한 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이때 예루살렘으로 옮겨 갈 것이고 그의 독재 정권의 정치적 본부는 상업적 바빌론으로 이동될 것이다. 이때 순교자들은 이삭줍기 시기가 될 때까지 심을 얻을 것이다(계6:11).

## 18. 바빌론과 그 몰락

기독교는 번영을 낳았고 그 딸은 그 어미를 삼켜 버렸다.

Cotton Mather

우리가 바빌론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사탄이 거하는 자리(계18:2)를 대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로 소유하고 계시듯이 이 세상의 신 또한 거룩하지 못한 도시를 갖고 있다.

이 도시가 거룩한 도시의 모조품이 되고 위조된 영적 왕국의 중심지가 되려면 반드시 종교적인 도시가 되어야 한다.

바빌론은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계17:1)로 불리며, 이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정의 되어 있다(계17:15). 바빌론의 음행의 대상은 세상의 민족들이다(계17:2, 18:3). 이 큰 음녀는 술 취함과(계17:2, 렘51:7), 부와(계17:4, 렘50:37),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계17:4). 또한 그녀는 성도들을 살해하는 잔인성을 보이고 있다(계17:6, 18:24).

이 여자의 상징은 금잔으로(계17:4, 렘51:7, 45), 일곱 산 위에 앉아 있다(계17:9). 이 땅 위에는 민족이 아니고 도시인 정치 경제 세력이 단 하나 있을 뿐이다(계17:16-18).



이로써 우리 앞에는 정치 경제 세력인 동시에 종교 세력인 존재가 놓여 있다. 이 도시의 영향력은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미치며 이 도시는 각 민족의 지도자들(평민은 결코 아님)이 부자가 되도록 돕는다(계18:3).

이 여자는 이 땅의 거주민들과 상거래를 하는 동안 마법을 통해 그들을 속이고 있다(계18:23).

바빌론은 학자들, 거짓말쟁이들,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우상에 열광하는 새긴 형상들의 땅이다(렘50:25-26, 37-38). 이 여자의 몰락을 천사들이 선포한다(계14:8). 그런데 이 심판은 이미 오래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대언자들에게 의해 약속된 바 있다(슌1:4-6, 렘51:25).

이 여자는 짐승을 타고서(계17:3)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결국 교만한 자들의 왕(욥41:33)과 같음을 빗게 된다.

어떤 경우이든 결국 마귀는 거짓말쟁이이다. 마귀는 쓸모가 있는 동안만 자신의 종들을 이용하고는 결국은 그들을 내팽개친다.

사탄은 종교를 이용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모독하도록 유도해서 순수한 종교가 세상에 의해 멸시받도록 한다. 사탄은 이 종교로 하여금 민족들의 부를 착취해 전세계적인 경제 세력이 되도록 힘을 더할 것이다. 이로써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종교 영역이 모두 이 종교의 지배 하에 놓일 때까지 이 여자가 전성기를 구가하게 될 것이다.

이 여자는 루시퍼처럼 자신을 하늘까지 드높이고 자신의 힘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앉아 있던 바다가 그녀에게 대들게 된다(렘51:42). 열 나라가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계17:16). 결국 사탄의 지시 하에 그녀를 패망시키게 된다(눅4:6).

이 바빌론 체계의 몰락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인 것이다(계17:17). 그녀의 몰락과 더불어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 왕좌를 세울 것이다. 뒤이어 다니엘의 70째 주 중간에 두 날개 달린 여자가 시날 평야로 날아가게 된다(슌5:9-11). 이

로써 짐승의 제국의 본부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며 그곳에는 큰 바빌론이라고 알려진 도시가 재건될 것이다.

시날 땅에 처형 장소가 세워진다는 것은, 야곱의 고난 첫 3년 반 기간 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국경을 그 지경까지 넓히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민족들이 유대인들에 대해 분노할 것이라는 예언을 일부 이해할 수 있다.

신비의 바빌론이 몰락하고 그녀의 형상들과 신들이 파괴될 것에 대한 뉴스가 전령들에 의해 알려지게 될 것이다(사21:8-9).

42개월 후 주님께서서는 이 재건된 바빌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왕들과 상인들과 선장들이 이 몰락을 슬퍼하고 탄식하며(계18:9, 11, 17-18), 민족들은 울 것이다(렘50:46). 세상을 지배하고 그 찬란함으로 남녀노소를 매료시켰던 그 도시가 짐승들의 거처가 되어 버리다니(계18:2, 사13:19, 22, 렘50:39, 51:37)! 사람들이 죽어 텅 빈 곳을 재빨리 차지해 버리는 동물의 왕국의 지체들이 바로 이 짐승들인 것이다. 이들은 또한 큰 바빌론에 자신들의 영적 동반자들이 오랫동안 터를 잡고 있던 바로 그 계시록 9장의 창조물들이다. 이 도시가 멸망할 때 하늘에서는 노래 소리가 들릴 것이며(렘51:48),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기뻐할 것이다(계18:20).

이 모든 상황이 다음 구절에 잘 요약되어있다.

“또 그가 북쪽을 향하여 자기 손을 내밀어 아시리아를 멸하고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광야 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양떼들과 민족들의 모든 짐승이 그것의 한가운데 누우며 가마우지와 해오라기가 그것의 위 문인방에 깃들이고 그것들의 노래 소리가 창에서 나며 문지방이 황폐하리라. 그가 백향목으로 지은 것을 드러내리라. 이것은 기뻐하는 도시요, 염려 없이 거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하던 곳인데 어찌 그녀가 황폐하게 되고 짐승들이 누는 곳이 되었는가! 그녀의 옆으로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리라.”(슌2:13~15)

## 19. 야곱의 고난 후반부에 적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는가

사람들이 시저와 나폴레옹 같은 자들을 숭배하는 한  
시저와 나폴레옹들은 늘 등장할 것이며  
사람들을 결국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Aldous Leonard Huxley

Ends and Means에서

계시록 13:11-18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거짓 대언자를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첫째 짐승(적그리스도)과 같은 권능을 지닌 또 다른 짐승이다. 치명적인 부상으로 죽게 된 적그리스도를 이 둘째 짐승이 살려 일으키게 된다. 사탄이 준 이러한 권능과 카리스마로, 거짓 대언자는 지상에 거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 것이다.

그 후 짐승의 형상이 만들어질 것이고 거짓 대언자는 이 형상에 생명을 부여할 것이다. 이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상 숭배를 미워하셨다. 반면 사탄은 항상 인간을 미워했다. 마귀는 인류가 우상 숭배의 최종적 형태인 이 경배에 완전히 바쳐진 것을 보고 스릴을

만끽할 것이다. 바빌론 제국이 우상 때문에 패망하였는데도(렘51:13-18, 47), 사람들은 이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죽음을 가져온 부상이 거짓 대언자에 의해 치유되고 난 후, 사탄은 적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갈 것이며 이 정치 지도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이제 적그리스도는 단순히 마귀에 의해 통제받는 초인(슈퍼맨)을 넘어서 마귀 자신이 그 안에 내주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는 42개월을 통치하며 하나님께 속한 것은 그 무엇이든지 모독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성도들(이스라엘)과 민족들을 지배할 것이고 회개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이 짐승을 경배할 것이다(계13:5-8).

나머지 왕들(열 왕으로 이룩된 연맹에서 빠지고 남아 있던 자들)이 한 마음으로 짐승에게 왕국을 바칠 것이며(계17:17, 12-13),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하신 이 땅의 통치권이(창1:26) 완전히 마귀에게 넘어갔음을 보여 준다.

부활 후 짐승은 즉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폐하고, 희생 제사를 금지시킬 것이다(단9:27).

기독교로부터의 반대에 마음이 상한 짐승은, 처음부터 그 언약에 반대했던 다른 민족들과 통치자들과 연합하여 “거룩한” 언약(단11:30-31)을 폐기할 것이다.

그는 매일 드리는 희생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로써 진리는 내동댕이쳐지고 한 군대(an host, host는 군대란 뜻과 아울러 카톨릭 미사 때 사용하는 빵을 지칭함을 주목할 것)가 그곳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단8:11-12).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마24:15)이란, 성전에 버려진 돼지고기나 왕좌에 앉은 이방인이나 그 어떤 추측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한 인간의 끔찍한 모독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이 우상이 되어 경배 받는 것을 의미한다(살후2:3-4).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은 것을 두고 성경은 질투의 형상이라고 부른다(겔8:1-6).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자에 의해 성소가 점령당하였

고(사14:13), 이 점령자는 질투의 하나님(출20:5, 신5:9, 수24:19)의 진노를 촉발시켰기 때문이다.

이 자리가 북쪽 문과 연관되어 있음을 주목하라(제1장을 볼 것).

이 기간에 이 자는 성도들과 전쟁을 벌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들을 제압할 것이다(단7:19-26). 이 자는 또한 평화를 이용하여 미혹하여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킬 것이며, 통치자들의 통치자(단8:25)에게 마저 대적할 것이다.

이 자는 위선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의 마음은 파괴로 가득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자를 사용하여 지상의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토록 하실 것이다. 이 임무가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자를 멸하신다(사10:5-13).

이 진리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1. 이 땅의 일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한다. 비록 사탄이 지상에서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그는 그저 악한 자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시는 하나님에게 이용당하고 있을 뿐이다.
2. 우상 숭배와 거짓 종교는 평화와 안전을 약속할지 모르지만 항상 파괴로 끝난다.
3.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수행하시고자 어떤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이,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4.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신사'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신다. 어떤 민족이 사랑과 긍휼을 지니신 참된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이 세상 신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사울을 원했을 때 사무엘을 보내어 항의하셨다. 하지만 백성들이 이를 무시하면 결국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백성들의 선택이었다. 성전에서 왕좌에 앉아있는 적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스스로 다스리고자 하는 인간들의 의지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뿐이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3:9)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을 경우 그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짐승은 유대인들을 발 아래에 두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시도할 터이다. 이에 대한 군사적 저항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몇 가지 사항들이 다니엘서 11:36-44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짐승의 억압에 울부짖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외면하실 것이다(삼상8:18). 스스로 왕을 자처하는 적그리스도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큰 해악을 끼칠 것이다. 그들을 구출할 수 있었던 왕은(호13:10-11) 자신의 백성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며 이로써(요1:11, 19:19, 행3:15) 데려감을 당했다(계12:5).

재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맞바뀌게 될 것이다(겔21:25-27).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행해질 것이다(계17:17).

## 20. 정사들과 권능들

그 사악한 자의 악독함은 너무도 지독한지라  
 자신이 파멸시킬 수 없는 자는 고문을 가할 것이다.  
 이 자는 죄를 짓도록 유혹할 수 없을 경우  
 그를, 허락되는 범위에서, 고통당하게 할 것이다.

요한 웨슬레

사탄의 권능에 관한 설교에서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엡6:12) 이 말씀에 따르면, 영적 세계에는 영적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점령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적들이 존재하고 있다.

지상에 있던 기쁨부음 받은 그룹(겔 28:11-15)이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에 올라가려고 시도했던 당시(사14:12-15), 많은 수의 천사들이 반역에 참가하였다(유6).

이들 반역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었으며(창6:1-6), 이들은 지구가

처음으로 창조되는 당시 창조주를 찬양하던 자들이다(욥38:7). 하나님의 아들 이란 창조 시점에 죄가 없던 그 어떤 사람이나 천사임을 성경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눅3:38), 셋은 죄가 이미 인류 안으로 들어 온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단지 아담의 아들일 뿐이었다(창5:3).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거듭난 사람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고전1:30, 롬5:19) 새로운 창조물이기에(고후5:17, 갈6:15),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다(요1:12).

사탄은 타락 후 천사들 가운데서 발견된다(욥1:6). 이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노아의 날들에 사람의 딸들과 동침하였고(창6:2-4), 이와 같이 다른 육체를 따라간 결과(유7),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인(superman) 거인이 생성되었다(창6:1-6). 이들 거인에 대한 역사는 그리스, 로마, 북구 및 기타 여러 민족들의 기록에서 발견되나, 세월이 흐르면서 혼란이 가중되어 오늘날에는 그저 신화로 알려지고 있을 뿐이다.

노아의 홍수 후에는 이들 거인들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등장한다(시78:49).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기간 중에 주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요6:70).

이교도들은 홍수 이전부터 이 신들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도행전 당시에도 사람들은 “초인”(superman)들이 외계로부터 내려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행14:11). 성경은 이 존재들이 땅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단10:13, 20-21).

사탄이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자 야곱의 고난 기간 중간에 지상으로 내려올 때 그는 천사들의 삼분의 일을 대동할 것이다(계12:3-4). 이들이 앞서 이미 타락했던 자들인지 아니면 새로운 반역자들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타락한 천사들 혹은 이들의 후손들이 세계 정부의 핵심 요직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단2:43), 나머지 인간 통치자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계16:13-14).

노아의 날들 때와 마찬가지로(마24:37, 눅17:26),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전 이 땅의 마지막 왕국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으로 태어날 거인들(superman)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쇠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단2:43-44).

## 21. 이스라엘의 두 번째 광야 여행

당신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큰 정부라면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을 만큼 큰 것이다.

Barry Goldwater 상원의원

1964년 10월 21일 연설에서

우리는 실로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다시 한번 국가로 모인 것이다. 오늘날 히브리 민족이 다윗의 성읍에 깃발을 흔날리게 된 사실은 실로 주목받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성경 예언의 성취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신문 대신 성경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이 모든 것은 성경 예언의 성취를 위한 예비 단계일 뿐, 아직은 그 성취라고 할 수 없다.

오늘날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에 재정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모여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마지막 날들에 히브리 민족이 집단적으로 재귀환하게 되는 현상은 자발적이 아닌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시107:1-7, 렘16: 14-15). 자발적

이 아닌 강제적 명령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힘에 의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며(겔20:33-34),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방인들(겔36:24)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실 것이다.

지난 50년간 예언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책을 팔거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금을 줄 요량으로 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 왔다. 즉 유대인들은 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땅에서 환영받거나 번영을 하고 있는 한, 결코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마지막 날에 그들이 “강제로” 조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임을 시사해 준다. 이와 같은 조치가 유대인들을 추방하고자 하는 민족들의 명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나치 시대의 박해와 유사한 박해에 의한 것이 될지는 분명치 않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히브리 민족의 대량 귀환은 결코 자발적인 움직임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일단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나면, 이들은 여호와와의 징계의 막대기를 통과해야 한다(겔20:37, 렘16:16-18, 30:11-14, 사54:7-8). 이 고통스러운 채찍질은 그들이 율법에 불순종하였고, 메시아를 거부하였으며, 우상 숭배에 빠진 것에 대한 보응으로 실로 지당한 귀결이다.

대환란 기간 중엔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의 3분의 2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슥13:8). 이는 하나님에 따르면 이들의 반역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셈이다(겔20:34-38, 슥13:9, 말3:1-3, 겔22:19,22).

야곱의 고난 중간쯤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광야로 도피하라는 명령을 듣게 된다(마24:16, 호2:14, 계12:14-16).

하나님께서서는 이들을 그곳에서 위로하시고(호2:14),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그들을 숨기시고(사26:20-21), 삼년 반 동안 그들을 먹이시는 데(계12:14), 이는 이집트로부터 그들의 조상이 탈출했을 때와 동일하다(호2:15).

시편 78편에 따르면 출애굽기 15장과 민수기 23장 사건들이 그때 반복됨으로써, 적어도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받고 부양받은 것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시편78:2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째 광야 여행을 풍유(Parable)라고 말씀한다.

적그리스도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주하게 될 것이다(눅21:21).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머뭇거리다가(호13:13) 거의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 사방에 죽음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암5:19).

대환란 때에 있게 된 광야로의 탈출이 출애굽과 다른 점은, 출애굽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나 광야로 향한다는 점이다. 야곱의 고난 시기에는 모든 것의 질서가 뒤죽박죽이 되고 만다.

이들의 탈출을 막기 위한 홍수가 있을 것인데(계12:14-16), 이는 아마도 이집트, 리비아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추격이거나(렘46:7-9), 아니면 요단 강물로 발생하게 될 실제 홍수일 것이다(욥40:23).

홍수가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든, 땅이 입을 벌려 이 홍수를 삼킴으로써(시107:33-34), 이스라엘은 도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면 첫 번째 광야 여행 시절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들을 땅이 갈라져 집어 삼켰으며(민16:32) 실제 홍수가 이집트 추격 군을 집어삼켰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출15:4).

적그리스도를 수장으로 하는 세상이 주님의 두려운 심판 하에 죽어가고 있을 때, 광야의 산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시 하나가 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 자들을 보호하실 것이다(시107:1-7). 이 도시는 바위 도시일 것이다(시18:1-6, 31:3, 42:9, 71:3).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을 때, 이들은 홍해를 건넜고 잠시 시내 산에 머물러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웠다. 그리고 이집트

를 떠난 뒤 1년 후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이들은 가나안 땅을 살  
펴보고자 정탐꾼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으로 올라가 소유할 것을 거부  
한 채 결국 사해 남쪽 광야 지역을 방황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들을 40년 동안 돌보고 먹이셨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짐승(적그리스  
도)에 의해 쫓기는 신세가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피성을 제공하시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에 대해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가또한 영화로운땅으로들  
어가며 많은 나라를 뒤엎을터이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파하리라.”(단11:41)

이 말씀에 등장하는 에돔 땅은 이스라엘이 지난 40년간 방황했던 그 광야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공하신 도피성이 있는 곳이 바로  
에돔인 것이다. 이 지역은 아마도 오늘날 페트라로 알려진 그 장소가 틀림없다.

이 페트라 시는 솔로몬 당시에 거대한 상업 중심지였으나, AD 105년 로마가  
이 지역을 정복하고 아라비아페트라라는 이름을 붙였다. 로마가 몰락하자 페트  
라는 아랍인들의 수중에 넘어가 7세기 경에는 문명 사회로부터 전적으로 숨겨져  
버렸다. 그러다가 1812년 부르카르트(Burckhardt)에 의해 재발견되었다.

이 성읍은 산 속에 자리잡아 있으며, 이는 마치 화산 속의 분화구가 숨어 있  
는 것과 같다. 이곳의 출입구는 단 하나뿐으로, 구불구불하고 좁은 (너비가  
3.7~12.2m) 통로가 있을 뿐이다. 통로의 양쪽은 거의 절벽처럼 가파르고 어느  
지점은 서로 맞닿을 정도로 가깝고 하늘이 보이지 않아, 마치 지하도를 지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양면의 높이는 60~300m 정도이고 계곡의 길이  
는 3km 정도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도시도 이처럼 놀라운 입구를 지니지 못  
했다. 계곡 옆면으로는 놀라운 기념물과 사원들이 바위로 된 모래들로 조각되  
어 늘어서 있다. 이 성벽의 바위 입구 안으로 들어서면 놀라운 건축물, 무덤, 기  
념비 등의 잔해가 널려 있다. 성읍을 둘러싼 절벽은 조각품처럼 되어 있다. 계

곡의 바닥 위 약 1m정도의 높이에 많은 동굴들이 벌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것들은 붉은색, 자주색, 푸른색, 검은색, 흰색, 그리고 노란색 같은 바위의 여러 층들에서 깎아내어 만든 것이다. 이 형형색색의 동굴들의 아름다움은 압권이며 바라보는 모든 이들을 압도한다.

이스라엘 백성 중 남은 자들은 이곳에서 적그리스도를 피하여 환란 가운데 안식을 누릴 것이다(렘31:2). 이 도피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3년 반 동안(계12:6) 먹이실 것이다(미7:14).

페트라에 도피한 유대인들 외에 일부 유대인들은 갈멜, 바산 그리고 길르앗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렘50:19-20, 겔20:35). 이들은 만나를 먹을 것이며(미7:14-15, 시105:40) 마실 물을 공급받게 될 것이고(시78:16), 밭과 포도원에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시107:35-37). 이 밭과 포도원은 전쟁에 나간 자들이 버린 것이거나 대환란의 심판으로 인해 죽은 자들의 소유이거나 어찌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양으로 분리된 민족에 의해 선물로 주어진 것일 수도 있다.

피난처로 도주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전형적인 기도가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다. 이 기도문을 환란을 겪는 유대인의 문맥에서 읽어보면 실로 경외롭다 고백에는 말할 수 없으리라.

이 모든 사건들은 이사야 33:13-17에 잘 요약되어 있다. “멀리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가 행한 것을 들을지이다. 가까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내 능력을 인정할지이다. 이에 시온의 죄인들이(광야로 피신하지 않은 유대인들) 무서워하며 두려움이 위선자들을 놀라게 하므로 (이는 환란 때의 증인들이 마태복음 24장의 경고를 선포했는데도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리요? 우리 가운데 누가 영영히 불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는도다. 의롭게 걷는 자, 올바르게 말하는 자, 학대하여 얻은 재물을 멸시하는 자, 손을 저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

를 막아 피 흘리려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끔찍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할 소망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고자 함)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바위로 된 요새(페트라) 요새가 그를 보호하는 처소가 되며 그는 빵(만나) 공급을 받고 물을 확보하리라. 네 눈은 아름다움 가운데 있는 왕(재림하시는 예수님) 을 보며 그들은 매우 멀리 있는 땅을 바라보고(회복)”(사33:13-17).

## 22. 야곱의 고난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시기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

항상 긍휼만을 보이시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일 뿐이다.

Edward Young  
Night Thoughts에서

하나님께서서는 분노 가운데 이방인들을 탈곡하셔서(사28:23-29) 이들을 가  
루로 만드신 후(마21:44) 겨처럼 날려 보내실 것이다(단2:35).

많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의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오늘날의 라오디게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귀가 가려워 이  
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막대기이다(미6:9). 이 막대기  
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다름아닌 사탄이다(렘48:17, 겔19:11-14).  
이 두려운 인물은 앗시리아 인으로 묘사되어있다(사10:12, 렘50:17).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위한 심판의 도구로서 자  
주 사용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다(히2:14, 고후12:7, 고전5:1-5, 사



10:15).

이 42개월 동안 사망(의인화 함)은 말을 타고 온 땅을 누비고 다니며 뒤를 이어 지옥이 따라 다닌다(계6:7-8).

다소의 사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을 때, 주님께서는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 그에게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행9:4)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나”란 주님의 몸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망과 지옥은 바닥 없는 구렁이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을 대표하고 있다.

파괴자는 지하 세계의 거주자들을 지표면으로 이끌고 나와, 이로 인해 사람의 삼분의 일을 죽인다(계9:1-21).

계시록 9장에 대해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주석가들의 다양한 해석이 시도되었다(아마도 성경 다른 어떤 구절보다도 논란이 많은 것 같다), 필자는 헬리콥터, UFO, 탱크, 폭격기, 컴퓨터 형상 등 셀 수 없는 많은 해석을 접했다.

가장 흥미로운 해석은, 수염이 달리고 머리가 긴 이 자들이 로큰롤 가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철 흉갑은 전기기타이고 꼬리는 확성기에 연결 된 줄이라고 했다. 이 주장은 그 어떤 설교자들보다 사탄과 지하세계에 대해 더 많은 통찰력을 지녔으리라고 생각되는 찰스 맨슨(Charles Manson)이 제시했다.

바닥 없는 구렁이에서 올라온 메뚜기는(계9:3) 보통 메뚜기가 아니다. 다음의 성경적 사실로 미루어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1. 보통 메뚜기는 깨끗하며 먹을 수 있는 창조물이다(마3:4, 레11:21-22).
2. 이들은 보통 메뚜기와는 달리 그 어떤 야채도 먹지 않는다(계9:4, 출 10:3-20).
3. 보통 메뚜기는 왕이 없다(계9:11, 잠30:27).
4. 이들은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에 타지 않는다(계9:2-11).

5. 이들은 현재 지옥에 갇혀 있거나 형성 중에 있다(계9:1-11).
6. 이들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보통의 곤충들은 그렇지 않다(계9:5-6, 11).
7. 이들 메뚜기들은 명령을 받고 지도자를 따를 수 있는 지적인 존재들이다(계9:4-6, 11).
8. 이들은 전갈처럼 고통을 주는 권능이 있다(계9:3-10).
9. 이들은 모습이 너무도 다르다(계9:7-9).

이들 창조물들은 지옥에서 나와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은 채 고통만을 준다(계9:5). 이 고통이 너무도 심해 사람들은 자살을 시도할 것이나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거절할 것이다(계9:6). 이 핏박은 5개월간 지속될 것이다(계9:10).

사망과 지옥과 맺어진 언약은 거꾸로 인간을 해치게 될 것이며 인간은 그 대가로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조롱하는 자들은 소멸케 하는 고난의 날에 자신의 반역으로 인해 사로잡힐 것이다(사28:15-22).

짐승의 왕국 위에는 어두움이 임할 것이며 사람들은 굶주리고 고통으로 인해 허를 깨물 것이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며, 주님께 긍휼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할 것이다(계16:10-11, 사8:19-22).

이 고난의 날에 이스라엘 민족은 약탈을 당할 것이며 병거들과 활 쏘는 자들로 인해 당혹해 할 것이다(사22:4-7). 이것들은 탱크나 스텔스 폭격기가 아니라 실제의 병거일 것이다. 이 시대에는 그 어떤 군인들도 기관단총이나 로켓 발사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경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어휘를 사용하

서야만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 아직도 성경의 많은 부분이 닫혀 있으며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지 않는 한 결코 깨달을 수가 없다.

우리는 구약성경에 걸쳐 교회의 모형과 예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알려 주시기까지는 신비로 남아 있었다. 주님께서는 숨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경우 평범한 말들을 사용하면서도 능히 그리하실 수가 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그분과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들의 눈은 닫혀 있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때 그분께서 지각을 열어주셨고 그들은 그제서야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아차렸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21세기의 어휘에 일치시키고자 성경을 뜯어고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술 문명을 다 제거해 버리심으로써 세상을 하나님의 언어에 일치하도록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바빌론이 몰락하면 전 세계의 교역은 어떤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전면전이 벌어져 중동의 유전을 싹 쓸어버리면 현대의 교통 및 산업 체계는 완전히 파괴되지 않겠는가? 하늘들에서 발생될 커다란 재앙들은 인간의 통신 체계를 무력화 시키지 않겠는가?

연료 없이는 전투기들이 날 수 없다. 라디오와 인공위성이 없이는 현대전은 불가능하다. 음식과 식수가 없이는 전방 및 후방의 부대를 먹일 수 없다.

오늘날 예언 작가들은 성경을 신문의 헤드라인에 갖다 맞추므로써 자신과 독자들을 오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들(호리병, 화, 그리고 트럼펫)은 오늘날의 현대문명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말 것이다.

이로써 이 때에는 말, 병거, 보병, 활, 창 및 줄을 지어 행진하는 군대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예언 작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려면 인간의 기술을 사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진흙덩이에 불과한 피조물의 허황됨과 교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 4 재림

그리고 나서 끝이 오는도다.  
소동과 외침이 끝나고-  
대장들과 왕들이 떠나고-  
여전히 당신의 옛 희생물은 서 있네,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며  
만군의 주 하나님,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 우리가 잊지 않도록!

Rudyard Kipling

Recessional에서

## 23. 그러는 동안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가장 똑바른 선이 가장 많은 저항을 받게 된다.

Leonardo da vinci

우리는 앞 단원에서, 교회는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기 위해 끌려 올라가고 문을 통해(계4:1, 요10:1-9) 하늘로 인도된다는 것을 배웠다. 주님과 결혼한 이 신부는(고후11:1-3, 엡5:32)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결 과정을 거쳐(엡5:27, 계19:7-9) 결혼식을 올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교회가 땅에서 하늘로 가는 여행이 가능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땅에 속한 더럽고 썩을 몸으로부터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야만 한다(빌3:20-21, 고전15:51-57). 이때가 되면 이들 믿는 자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요일3:1-3).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난 아내로서 자기 몸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다(고후5:9-10). 이 모든 것들은 불 가운데를 통과하면서 테스트를 받는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은 그대로 남을 터이나 헛되고 이기적인 동기로 행한 모든 일들은 불타 버릴 것이다(고전3:9-15).

이때 이 생에서 보상받지 못했던 모든 선한 것들과 더불어, 심판받지 않고 남아있던 모든 불의한 일 역시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딤후5:24-25). 그러니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의 실패와 잘못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롬14:10-13).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섬김의 종류에 따라 다섯 가지 왕관이 예비되어 있다.

첫째는 영광의 왕관으로, 이것은 신실한 감독에게 주어진다(벧전5:4). 물론 좋은 의미에서 보자면 이 말씀은 지역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문맥이지만 아마도 주님께서 주신 영향력을 그 어떤 분야에서건 신실하게 발휘한 사람들에게도 이 왕관이 주어지리라 생각한다.

둘째는 생명의 왕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시험을 이겨 내기까지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진다. 이 왕관이 때론 순교자의 왕관이라고 불리나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 죽음에 이르기까지(UNTIL death) 승리하라고 하셨지 꼭 죽음으로(IN death) 이겨내라고 하신 것은 아니다(약1:12, 계2:10).

셋째 왕관은 썩지 않는 왕관으로, 이것은 육신의 욕심을 이겨내고 몸을 성령님의 통제 하에 잘 관리한 자들이 받을 보상이다(고전9:25-27).

넷째는 기쁨의 왕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혼을 이겨 온 자들에게 주어진다(빌4:1). 데살로니가전서 2:19를 잘 읽어보면, 죄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도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급을 받을 때 이들 구원 받은 자들도 함께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선교사 여러분들이여! 해외에서 수고하실 때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

곤에 지친 사역자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을 구출하려고 노력하실 때에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우리가 왕좌 주위에 모일 때 우리는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과 우리가 복음으로 주님께 인도했던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의의 왕관이라고 하는데 이는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딤후4:8).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왕관은 당연히 받으리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스도인들이면 누구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적어도 이 상급만은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러나 성경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조건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돌아오시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야 그들이 하늘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주님께서 오셔야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과 골치 아픈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복된 소망 안에는 이러한 “해방”이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나 이 왕관은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이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성령이 하늘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히12:2)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한다. 그래야 왕관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의 문체로 보아 주님께서서는 의의 왕관을 받을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그것을 수여하시는 것 같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딤후4:8)

왕들의 왕이신 분께서 우리 같은 자들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을



그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만약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생각 자체가 신성모독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외의 여러 가지 다른 보상들도 있다. 인내로 고통을 감내하는 자들(마 5:12),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들(막9:41), 보상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들(고 전9:18), 그리스도의 말씀에 신신했던 자들(골2:18), 옛 방식의 선한 행실들(딤후 5:18), 그리스도의 신성 교리를 신실하게 선포하고 옹호하는 자들(요이8)에 대한 보상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타고난 재능과 성령께서 주신 선물(은사)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세우실 왕국에서 우리의 지위와 권위가 결정 될 것이다(눅19:11-27).

이 구절에서는 한 귀족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다시 돌아와 왕국을 소유하게 될 때까지 종들에게 그 소유를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데 이 귀족의 백성들은 이분의 권위에 순복하기를 거절하였다. 이에 귀족이 돌아와 그가 없는 동안 자신을 신실하게 대변한 그 종들에게 도시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었다.

주목할 것은 이 신실한 섬김이 그 귀족을 미워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일을 하지 않은 악한 종은 보상을 잃었으나 왕국에서의 삶과 지위를 잃지는 않았다. 그 반면 그 귀족을 미워한 백성은 죽음에 처해졌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안 계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사역(일)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때 주시게 될 보상의 약속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도시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문자적인 의미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과연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계시록 2-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게 보내어진

서신은 모든 교회들과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다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된 보상들 또한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갈망해야 할 것이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은 구약의 역사를(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추적하며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는(에베소 교회)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에 접근할 권리가 주어진다(계2:7). 이는 우리를 에덴동산으로 인도하며, 아담의 타락 당시 상실된 위대한 축복들이 문자적으로 다시 회복될 것임을 보여준다.

둘째 교회의 이기는 자들(서머나 교회)에게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으리라는 약속이 주어졌다(계2:11). 이를 통해 우리는 창세기 4장의 아벨의 슬픈 무덤 곁으로 인도되며, 더 나아가 “그리고 그가 죽었더라.” 라고 기록된 차가운 명단으로 가득 찬 창세기 5장을 보게 된다.

셋째 교회의 이기는 자들(버가모 교회)에게는 감추인 만나의 축복이 약속된다(계2:17). 이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이끌며 천사의 음식(시78:25)을 하늘로부터 기적같이 공급받은 사건을 상기시킨다. 우리 역시 주님의 상에서 함께 정찬을 먹는 영예를 누릴 것이고, 그분의 왕국에서 왕의 음식을 먹는 영광을 누리게 될 터이니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가?

넷째 교회의 이기는 자들(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왕관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다(계2:26-27). 이는 우리를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로 이끈다. 우리가 이 모든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살펴보게 된 계기는 우리가 도시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이 과연 문자적으로 사실인지를 확인하고자 함이었음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들을 잘 살펴보자.

주님께서 말씀의 주체이시다(24절).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이의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리라”(26-27절)

계시록 1:5-6말씀을 보자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라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이 구절은 교회에 관련된 말씀이다.

왕들은 이 시대의 왕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왕들은 이 교회 시대(눅 4:6)와 환란 기간에는(계17:12) 사탄에게 속해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계시록 1:6을 보자.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계1:6) 우리는 이 구절에서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이기는 자들이 왕들의 통치자이신 분의 영도 하에 천년왕국 동안 도사들과 민족들을 다스리게 됨이 분명해진 셈이다.

다섯째 교회의 이기는 자들(사데 교회)에게는 제사장의 사역들이 약속되었다(계3:5). 이는 구약 시절의 레위인들의 제사장 직분에 해당된다. 이 진리가 문자적으로 확실하다는 사실은 방금 살펴본 계시록 1장의 동일한 구절들에서 확인된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천년왕국 때의 경배는 새로 재건된 성전과 새로 제정된 제사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들은 교회 시대 성도들이 이 경배(예배)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여섯째 교회의 이기는 자들(필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성전 안에 상주할 자리가 약속되었다(계3:12). 이는 이스라엘이 영화를 누렸던 그 시기에 해당된다. 천년왕국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하에 도시와 민족을 다스리며 섬기는 것은 엄청난 영예임이 틀림없으나,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성전에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영예라고 하겠다.

일곱째 교회의 이기는 자들(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이 모든 것보다 가장 큰 보상이 약속되었다. 이들은 단지 어떤 땅을 다스리거나 심지어는 성전에 자리를 확보하게 되는 정도가 아닌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큰 약속이 주님에 의해 주어졌고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좌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계3:21)

아마 주님의 오른편에 단 한 시간만이라도 앉도록 초대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초청을 실제로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난 구원 받았어, 나는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 하나면 죽한테 왜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나구?” 라고 말하고 있다. 과연 이 놀라운 축복들을 갈망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묵상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앞서(제 2장 교회사) 일곱 교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영적으로 쇠퇴해 가고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이들 교회들의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각 시대의 어려운 여건에 상응하고 있음은 매우 흥미롭다고 하겠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바깥으로 내몰아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따라서 이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는 다스리시는 권능자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을 것이 약속된 것이다. 실로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요한이서 7-8절에서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신실하게 꾸준히 섬기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일해 놓은 그것들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게 된다.

구원은 주께 속해 있다(요2:9).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며 따라서 영원하다(전3:14).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의 일이 모두 불타 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혼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고전3:15).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 주신 그분 앞에 서서 불 가운데 타고 있는 자신의 일들을 보며, 이러한 주님을 위해 보답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지켜보는 것은 얼마나 큰 비극이겠는가?

주 하나님은 우리의 보상이시다(창15:1). 따라서 모든 “선한” 행위를 위한 내적 동기는 우리와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소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행위(일)가 그분의 눈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분의 말씀에 일치하도록(시19:11) 하는 것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일(행위)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배우자 혹은 친구들이 행한 것에 대해 보상받지 않을 것이다(고전3:8). 우리가 타인으로 하여금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와 기준과 규례와 규범을 제시하고 성경에 제시된 진리의 길로부터 벗어나게 만들면 결국은 복을 잃게 될 것이다(골2:18).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운동, 환상, 혹은 꿈 같은 사람의 기초 위에 뭔가를 세우고 있으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 위에 세워진 것만이 보상받게 될 것이다.

오늘날 사역자들은 목사에게 권위를 두라고, 혹은 강단에서 전하는 사람을 따르라고, 혹은 자기 지역 교회를 섬기라고 가르침으로써 성도들로부터 보상을 빼앗고 있다. 하나님께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섬기라고 구속받은 자들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실 때에 각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다음 구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계22:12)

우리가 과거 무엇을 했거나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보상이 결정될 것이다.

우리가 이미 해 놓은 것들을 잃지 않도록 하자. 오히려 충만한 보상을 받도록 우리의 가야 할 코스를 끝마치도록 하자. 다가오는 하늘의 왕국에서 우리의 신실한 섬김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될 영예와 특권과 권위 외에도, 우리 믿는 자들의 일이 시험을 통과한 후 영예가 수여될 때 있을 위대한 경축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스물네 장로가 왕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계4:10)

사랑하는 주님을 섬기는 독자여,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주님의 발 앞에 던져드릴 그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경배를 단순히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이 경축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복된 일이 아니겠는가? “많은 왕관으로 그분께 관 씌우라”는 노래가 천상의 합창단에 의해 울려 퍼질 때 영광의 왕께 씌워드릴 우리 각자의 왕관들을 모두 다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골3:23-24)

## 24. 이삭줍기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한 이름 모를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던진 질문

우리는 제 1장에서 하나님의 첫째 부활이 추수(수확)와 연관되어 있음을 살펴 보았다. 우리는 또한 첫 열매들과 본 추수가 대환란 전에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제 남은 것은 야곱의 고난 기간 중 회심하게 될 성도들(죽은 자와 산자)의 휴거이다. 이 이삭줍기는 땅의 수확물의 추수라고도 부른다(계14:15-16).

이것이 환란 성도들의 휴거라는 몇 가지 증거가 있다.

첫째, 다음 구절을 보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계6:11)

이 구절에서 흰 옷은 순교 당한 자들에게 주어지는데 이 순교자들은 희생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계시록 7:9-14에 보니 그들은 하늘에 있다.

둘째, 이 속량받은 무리는 자신의 예복을 씻었다고 한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계7:14)

현대 번역본들과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삭제하여 각 개인에 의한 씻음이라는 구원의 요구 조건을 없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제한된 이해력에 일치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하고 점 없는 의가 주어졌으므로(고후5:21), 이들 피상적인 성경 교사들은 어느 시대에나 모두가 동일한 방식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들은 성경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전형적인 신학자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성경을 비난할 자들이다. 문제의 초점은 환란 성도들은 스스로를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며(계13:16, 약1:27),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박해를 받아 처형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계13:15).

따라서 옷을 씻는 행위란, 교회에게 주어진 그 영예를 환란 성도들이 스스로 얻게 될 때, 그들을 위한 보상의 척도가 될 것이다. 또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무리가 성전에서 섬기면서 왕좌 앞에 있다는 사실이다. 교회의 뭉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는 반면 환란 성도들의 뭉인 지상 왕국에는 성전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셋째, 144,000명의 증인들은 그들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인을 받게 되므로 그들의 임무가 완성될 때까지는 죽거나 죽임 당할 수 없다(계7:1-4). 게다가 이들은 계시록 14:1-5에서 하늘에 있다. 따라서 이들은 산 채로(하나님 자신에 의해 죽음으로부터 보존되었으므로) 들림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넷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승리한 자들은 하늘에 있음을 알 수 있다(계 15:2-4). 자세한 상황은 환란 증인들이 들림받는 내용이 기록된 계시록 11장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산 채로 땅에서 하늘로 들림받을 것이다(계11:11-12).

다섯째, 이삭줍기에 해당하는 이들이 하늘에 있는 시온 산으로 들려 올라갈 때 그들은 교회가(일부가 아닌 총회) 이미 하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히 12:23).

주님께서는 자기를 자신의 수고의 열매를 인내로 기다리고 있는 농부로 비유하시는데(약5:7), 그분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 그 열매들이 다른 아닌 그분의 수확물 중 마지막인 “이삭줍기”인 것이다. “그날에 아곶의 영광이 쇠하게 되고 그의 살의 기름진 것이 아위게 되리니(환란) 그것은 마치 수확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며 자기 손으로 이삭을 수확하는 것 같겠고 이삭을 모으는 자가 르바임 골짜기에서 모으는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것 안에 이삭줍기를 할 만한 포도들(아곶)이 남아 있을 터인데 이것은 곧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열매 두세 개가 남은 것 같겠고 가장 밖에 있으면서 열매를 많이 낸 그것의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17:4-6)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포도를 따듯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철저히 주워 모으리라. 포도 따는 자같이 네 손을 바구니로 거두어들이라.” (렘6:9)

이 이삭줍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적으로 나타나 믿는 자들을 가시적 방법으로 데려가시는 사건(계11:12, 행1:9-12)과 일치한다. 이때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분께서 지구를 한 바퀴 도실 때(계1:7, 속12:10),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일부만이 데려감을 당하게 된다(마24:29-31).

이들 들림 받는 자들(데려감을 당하는)은 다음의 모형으로 제시된다.

1. 등잔불에 기름을 간직하고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마25:1-13).
2. 자신들을 지켜 정결을 유지하는 의로운 자들(시18:16-20).

### 3.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히9:28).

이 모든 구절들은, 환란 성도들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과 그렇지 못할 경우 이삭줍기 때 그대로 뒤에 남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구절들은 문맥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잘못 적용되기도 한다.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거나 휴거되지 못할 수 있다고 가르치기 위해 잘못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은 한결같이 환란 시대에 적용될 구절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주목하기 바란다.

우리는 앞서, 믿는 그리스도인이 선한 행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할 경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잃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살펴본 바 있다.

이번에는 선한 행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환란 성도의 휴거를 놓치고 어린양 혼인식에 참석을 못 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환란 성도를 불러 하늘로 데려가는 사건은(아2:8-14) 재림 직전에 있게 되며(사26:14-21) 이 때 이방의 군대들은 므깃도에 모여 있을 것이다(계16:16). 들림받는 자들은 어린양의 혼인식에 참여할 것이며(마25:6) 신랑과 동행하는 처녀들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이다(시45:8-14).

이 혼인식에 뒤이어 있을 파티는 지상에서 열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어린양 혼인 만찬인 것이다. 이 파티는 영광스러운 축제이며 1000년간 지속한다(눅22:16-30, 계19:9, 마26:29).

많은 주석가들이 혼인 만찬이 하늘에서 열릴 것이라고 가르치나, 만약 그 피로연이 지상왕국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면 이 잔치에 몰래 들어오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마22:11-14)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

## 25. 이스라엘 민족의 회심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은 진정한 기독교적 사랑(charity) 안에서  
그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Alexander Wiley

위스콘신주 상원의원(美)

환란 성도들이 많은 무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휴거될 때,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속12:10, 계1:7). 이때 혹은 그로부터 잠시 후에 한 천사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경배하라고 촉구하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계14:6-7).

그런데 이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는 메시지와는 아주 다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왕께서 땅위에 눈에 보이는 하늘의 왕국을 곧 세울 것임을 선포한다.

끔찍한 환란 때의 심판들이 끝나갈 무렵에 살아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렐50:4-5). 이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사66:7-14).

이 회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겔36:25-29). 이때 이스

라엘은 용서(렘50:20)와, 정결케 됨(렘33:8), 칭의(사45:25), 죄들이 지워짐(행 3:19, 사44:21-22), 불법이 제거됨(슥3:9, 단9:26-27), 그리고 믿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는 축복을 받는다(히8:10-12).

그런데 이스라엘이 받게 될 이 축복들을 빼앗아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적용 함으로 인해 엄청난 해악이 발생했다. 비록 이들 축복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축복과 짝을 이루기는 하나, 이들 성경 구절들의 문맥은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바울의 교리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필자 외에 또 다른 누가 내 의견에 동조할지는 모르겠다. 내 생각으로는 한 민족 전체가 한 날에 회심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큰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엄청난 일이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그대로 일어날 것을 의심하는 분이 혹 계시는지? 그러나 우리는 이집트에서 아홉 가지 재앙이 내려진 후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같이 자신의 문기둥들에 어린양의 피를 발라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갔고(pass over), 결국 속박으로부터 구속받았음을 생각해 봐야 한다. 성경은 계시록의 일곱 호리병, 일곱 대접, 그리고 일곱 나팔에 뒤이어 동일한 기적이 연출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야 곁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아키리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롬11:26-27).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끔찍한 대환란 시기의 징계를 넘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라. 칠십 주는 정해져 있고 선택받은 백성은 끝내 안식을 찾을 것이다.

에스겔 37장에서 선지자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의 한가운데 서게 된다.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를 살갓으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에 내가 명령 받은 대로 대언하니 내가 대언할 때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보라, 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내가 또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며 그것들 위에 살갓이 덮였으나 그것들 속에 숨은 없더라.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네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 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하라.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한 줄을 그때에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겔 37:4-14)

## 26. 아마겟돈과 재림을 위한 준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문명은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이다.

Will Rogers

1929년 12월 23일 뉴욕 타임즈에서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바빌론 시스템은 역사상 가장 큰 지진에 의해 파괴되었다(계16:18).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아직 한 번 더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흔들 터인즉 모든 민족들의 바라는 바가 이르리니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학2:6~7)

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때 이 땅의 우상 숭배자들은 동굴과 지하 대피 시설, 그리고 지하 피난처로 달려가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할 것이다. 이들 동굴에 거하게 될 자들은 형상과 거짓 신들을 두터지와 박쥐들에게 내던져서 이런 가증스러운 것들을 자기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찾지 못하시기를 바랄 것이다(사2:19-21). 이 지진은 이삭줍기와 동시에 일어날 것이며 이때 예루살렘의 10분의 1이 무너진다. 7000 명이 죽을 것이며 유대인 남은

자들은 영원한 복음에 순종할 것이다(계11:12-13).

천사가 끝이 다가왔음을 선포하고(계10:5-7) 또 다른 천사는 이 세상의 왕국들이 주의 왕국들이 되었음을 선언할 것이다(계11:15).

아담은 지구를 다스릴 통치권을 받았으나(창1:28), 에덴의 동산에서 이 통치권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 되었고(고후4:4), 자가 원하는 그 누구에게도 이 왕국을 줄 수 있었다(눅4:6).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사셨고(요일2:2), 부활하신 후 자신이 온 땅의 소유권을 갖고 계심을 선언하셨다(마28:18).

이방인들의 때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될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과 그 정부를 소유하시고자 돌아오시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외치는 선언문인 것이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계11:15)

이때 땅의 왕들은 무너진다(시110:5-7). 왜냐하면 은혜는 오직 의를 통해서만 통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롬5:21). 결국 정권은 태어나신 아들의 어깨 위에 놓이게 된다. 이 아들은 오래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다(미5:2).

기적을 일으키는 영들이 나아가 왕들을 미혹하여 군대를 아마겟돈으로 모을 것이다(계16:12-16). 이들 세 동방의 왕은 마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군대를 이끌고 올 것이다(사11:15).

예레미야가 바빌론의 멸망에 관해 예언을 끝마쳤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들을 담고 있는 책을 돌에 묶어 유프라테스 강 가운데로 던지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었다(렘51:63). 이로써 이들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밟고 강을 건너게 되어 멸망을 초래하고 만다.

그들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으나 그들은 겨우 므깃도 골짜기까지만 도달

한다. 바로 이곳이 두 큰 무리가(욥3:14) 전쟁을 위해 다윗의 성읍의 문 앞에서 전열을 갖추게 될 그곳이다(사22:6-9).

한 무리는 동방의 왕들을 대표하고(계16:12-16) 또 한 무리는 바로 그 북방의 군대이다(겔 38-39장).

필자는 러시아, 독일, 중국, 일본 혹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았음을 주목하기 바란다. 한때 소련을 다루는 예언 서적들이 많이 있었으나 그 소련이 세상 지도에서 사라진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은 쓸데없는 홍물이 되고 말았다. 황금 해안, 콩고 및 기타 한때는 남아있던 지역들이 지도 상에서 사라져 버리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땅의 지명을 결국은 자신의 말씀에 일치시키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현재의 지도에 끼워 맞추려 하지 말라.

이들 민족들과 군대들의 신원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에 대해 온갖 억측들이 이들에 대해 난무하고 있으나 헛된 일이다.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잠30:6)

종말에 관해 “신문의 중요기사”를 사용해 해석을 시도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견지하지 않는다. 이들은 국경이 없어지고 민족간의 구별이 제거되어 온 세상이 단 하나의 정부로 통합되는 날이 올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이들 왕들과 군대들의 신원을 확인한답시고 과거 역사에 존재하던 국경과 각 민족들의 이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명확히 모순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구체적이고자 하실 때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아무도 함부로 추측하지 못하게 하신다.

어린양과 전쟁을 벌이는 10명의 왕들의 연합이 있게 될 터이나(계17:12-14) 오늘날 이 시점에는 10명의 왕은 없다. 있더라도 오늘날 두각을 나타내는 큰 인



물들은 아닐 것이다. 분명히 환란 기간 동안 이 땅의 정치 구도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며 이는 사람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분명해질 것이다. 이들 10명의 왕은 예수님의 재림 시점에 예루살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슥14:1-2). 주께서는 이들을 다 모아서 삼켜 버리실 것이다(슥3:8, 마 13:39-40).

## 27. 재림과 하나님의 진노

가문의 영광, 권력의 화려함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다움, 부가 가져다준 모든 것

이 모두는 다 같이 피할 수 없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노라!

영광의 길은 무덤에 있을 뿐이 아닌가?

Thomas Gray

교회 묘지에 쓰여 있는 한 애가에서

어린양의 혼인식이 끝나고 재림이 선포될 것이며(계11:14-15), 구속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것이다(계11:16-18).

우리는 주님께서 전사(man of war)이신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출15:3). 그분은 어두운 때에(슥1:15) 도둑처럼 오실 것이다(마24:43).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니 그분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도 그분 앞에서 도망할지이다. 연기가 밀려가는 것 같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밀초가 불 앞에서 녹는 것 같이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참으로 그들은 심히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노래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신의 이름 아를 힘입어 하늘들을 타신 분을 높이 찬양하며 그분 앞에서 기뻐할지어다.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이시며 과부들의 재판장이신 분은 자신의 거룩한 거처에 계신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외로운 자들을 가족들 가운데 정착하게 하시며 사슬에 매인 자들을 풀어내시거니와 오직 거역하는 자들은 마른 땅에 거하는도다. 오 하나님이며,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나아가시고 광야를 지나며 행진하셨나이다. 셀라. 그때에 땅이 흔들리고 하늘들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으며 심지어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움직였나이다.”(시68:1-8)

천둥소리, 우박, 불, 번개가 그분을 위해 길을 내고 주께서는 바람의 날개를 타시고 아마겟돈에 도착하실 것이다(시18:7-15). 신화에서 날개 달린 흰 말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구절 때문이다(계19:11).

주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심판을 집행하기 위함이다(시82:8, 딤후4:1). 천사가 땅의 포도를 수확하고 그 열매를 포도즙 틀에 던져 넣을 것이다(계14:17-20, 율3:9-15). 주께서 이 틀을 밟으실 때 피가 될 것이며 심지어는 말고삐까지 될 것이고 이로써 그분의 겉옷이 피로 물들 것이다(사63:1-3, 계14:20).

아마겟돈은 므깃도 골짜기를 의미한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골짜기(이 골짜기는 지중해로부터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팔레스타인 땅을 가로지르고 있는 큰 골짜기임)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으로, 길이가 320km 폭이16km정도이다.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은 “베어 버리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의 어원에서 나왔다. “군대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므깃도와 합쳐지면 주님의 의도가 선명해진다고 하겠다.

므깃도는 또한 에스드라엘론 지역으로 알려진 지역의 일부인데 이 지역은 갈멜산 남쪽에 있다(대하35:22, 슥12:11). 므깃도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의 수도였다(수12:21, 17:11, 삿1:27). 므깃도는 갈멜 산지를 지나 앗시리아와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대로로 들어가는 입구이며, 유프라테스와 나일 강 사

이에서 가장 핵심적인 군사 요충지이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의 머리 정수리를 내리치시면 성도들의 발이 그들의 피로 물들게 된다(시68:21-23). 그 누가 이 엄청난 살상과 살육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갖고 있지 않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쏟았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피를 마시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계16:6). 그들은 칼로 살았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칼로 죽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마26:52).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친히 복수하겠다고 약속하셨다(롬12:19). 이 많은 약속들이 아마겟돈 전투에서 성취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엄청난 피흘림이야말로 칼과 창과 화살과 활들이 실제로 사용될 것임을 믿게 해 주는 증거임을 알 수 있다. 이들 무기들은 엄청난 양의 피가 흐르도록 만들 터이니 이는 분명하다고 하겠다.

이 모든 살상은 주님께서 주도하신다(습1:7-8).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미워하고 멸시한 자들을 삼켜버리신다(시21:8-11). 그분께서는 민족들의 군대를 완전히 파멸시킬 것이며 하늘들은 시온의 논쟁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의 결과로 혼돈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사34:1-8).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권능을 전복시키려는 인간의 시도를 비웃으시고 오히려 땅의 권능들을 부수시고 땅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시2:1-9).

재림은 어두움의 날이라 불린다. 그때 별들이 무화과처럼 떨어지고 둘째 하늘이 말리며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바위들 속으로 숨게 된다(계6:12-17).

모든 “예배 기구들”은 깊은 곳에 내던져질 것이고 그 날에는 주님 홀로 드높

임을 받으실 것이다(사2:10-21).

몰살시키는 전염병이 주의 원수들에게 창궐하고 이웃들끼리 공포감에 서로 죽일 것이다(슥14:12-15). 이 재앙의 결과는 핵 전쟁의 결과와 유사하다(욥2:6, 나훔2:10, 겔20:47).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무기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자신이 만드신 원소들(elements)을 사용하여 대량 파괴를 일으키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때 그분은 입에서 나오는 불로(시68:2, 말4:1-3) 원수들을 소멸시키실 것이다. 그분의 숨에서 나오게 될 불일지 그분의 명령의 말씀에 불이 나오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소멸케 될 자들은 소멸되고 말 것이다.

재림 때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불로 소멸될 자들 가운데 하나이다(살후2:8). 바빌론 체계는 자신의 뒤통에 해당되는 심판을 받을 것이며(계16:5-7), 이 앓시리아 인은 왕좌에서 쫓겨나고(사30:27-33) 주의 살육이 땅을 뒤엎을 것이다(렘25:29-32).

주님은 수만 성도를 대동할 것인데(유14) 이들은 두 무리의 군대를 구성하게 된다(아6:10-13). 그중 한 무리는 천사들이 될 것이다(창32:1-2, 삿5:19-20). 또 다른 무리는 인간 군대로 모든 성도들을 대동하는데(슥14:5), 강한 자들(욥3:11)로 불리며 구원의 말과 병거를 탄자들로(합3:8) 셀 수 없이 많은 군대이다(욥25:3).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거두리로다.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로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욥2:10-11)

이 군대는 불로 원수를 소멸하실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계19:13-14)을 뒤따를 것이다. 그 분을 따라 이 성도들이 땅에 내려올 때 사악한 자들은 잿더미처럼

되어 발에 밝히게 될 것이다(말4:1-3).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그분의 오심은 진노의 밤 뒤에 찾아오는 기쁨의 아침(사30:5)이 될 것이며 치유를 위해 해가 떠오르는 것이 될 것이고(말4:2), 자신의 왕좌에 왕께서 좌정하심이 될 것이다(사9:5-7). 이 내용은 이사야 13:1-18, 계시록 19:11-16, 그리고 스바냐 2:10-11에 요약되어있다.

# 5 천년 왕국 시대

종을 울려 천 년간의 화평을 맞이하라!

Alfred Tennyson

In Memorium에서

## 28. 천년왕국에 대한 소개

토요일은 놀라운 날이었다.

우리는 사실 10시30분에 일하러 나갔다.

그리고 12시 반이 되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세계의

지도를 재편하기를 끝마쳤다.

Edward House

월슨 대통령의 보좌관, 일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심(호6:1-3)에 뒤이어 히브리인들은 성경 기록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동안은 메시아를 거부한 것으로 인해 성경 이해에 관한 소경이었다(롬11:25, 고후3:13-14).

천년왕국 시대는 영광스러운 일출(사60:1-3, 마13:43, 말4:1-4)과 더불어 시작된다. 뒤이어 같은 달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욥2:23) 3년 반 동안 가뭄을 겪은(계11:6, 약5:17, 7) 땅을 적시게 된다. 그리고 사탄은 묶이고, 거짓 대언자와 그 짐승은 산 채로 바닥 없는 구렁이에 던져지게 된다(계20:1-4).

오늘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묶는다.”고들 하면서 성경을 모르는 종교



인들을 속이는 무리들이 난무하는바 사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으로 돌아 오실 때까지 묶이지 않는다.

계절스러운 새들이 아마겟돈 전투에서 남은 시체들을 먹으며 잔치를 벌이 게 된다(계19:17-21, 마24:28, 눅17:37, 욥39:27-30).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독수리 종류가 엄청나게 번식하여 서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이 자료의 저자는 이 사실이 아마겟돈이 문앞에 다가왔다는 증거라고 했다. 이 자료의 저자는 이 사실을 1950년대에 작성했는데 지금은 그 새들은 다 떠나가고 없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에 사로잡히지 말기 바란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는 심판(재판)이 있게 될 것이다(욥3:1-2,12). 이것은 민족들의 심판으로 개인에 대한 심판이 전혀 아니다. 이때 각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은 대환란 동안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에 대해 불려나와 해명하게 될 것이다(마25:31-46). 이 마태복음 25장 구절들은 병든 자들을 문안하고 가난한 자들을 먹여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 심각하게 남용(오용)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 구절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자.

1. 여기서의 심판의 대상은 개인이 아닌 민족들이다(32절).
2. 이들은 땅에서(하늘이 아님 31절) 심판받는다.
3. 이 심판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자들은 하늘에 있는 집이 아니라 땅에 있는 왕국에서 지위를 얻는다(34절).
4. 심판의 기준은 믿음이 아닌 행위일 뿐이다(35-36절).
5. 선행의 대상은 주님의 형제들이지(유대인, 40절), 자녀들이 아니다.

비록 이 구절이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사회복음을 전파하는 데 즐겨 사용되

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합당한 문맥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물론 믿는 자들이 병든 자를 문안하고 가난한 자들을 입히고 먹이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선행이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야곱의 고난 기간 중 유대인에게 행해진 그와 같은 선행은 하늘의 왕국(지상왕국)에서 지위를 얻게 해 준다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 심판이 국가 지도자들의 행동에 근거한다는 것에 당혹감을 느낄지 모르겠다.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일단 권력을 얻고 나면 국민을 대변하지 않기는 하나, 대체로 그들은 그들이 통치하는 국민의 대표자인 것만은 분명하다.

1950년대의 미국인들의 느긋하고 안락한 태도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서 반영되고 있다.

1960년대의 도덕적 타락, 자기 의에 가득 찬 반항은 케네디, 존슨 그리고 닉슨 같은 부도덕한 대통령들로부터 엿볼 수 있다. 이들 세 사람은 당대의 미국 국민처럼 양심이라고는 없는 자들이었다.

1960년대가 끝나자 미국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이 포드와 카터 대통령에 투영되어있다.

1980년대에 돈을 사랑함과 광적으로 부를 추구하는 모습이 레이건과 부시의 모습과 잘 어울리고 있다.

TV, 록 음악에 찌든 채, 하나님도 기도도 없는 공립 학교와 더불어 자라난 첫째 세대가 어른이 되자 광적인 쾌락주의자(클린턴)가 국가 지도자가 되었다. 이 스토리는 주께서 오시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유대인들을 돕는 문제가 어떻게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카톨릭 프랑스, 카톨릭 벨기에, 카톨릭 헝가리 그리고 카톨릭 폴란드는 카톨릭 히틀러의 손에 박해받고 있

는 유대인들을 돕기를 거절하였다.

그 결과 이 국가들 모두가 전쟁 동안 약탈을 당했다. 개신교 영국과 개신교 네델란드는 이 딜레마를 알고 있었으나 카톨릭 히틀러(Himmler)가 사형장을 세우기 시작했을 때 유대인 돕기를 거부하였다. 전쟁동안 이 나라들도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종교적인 미국도 카톨릭이 장악하고 있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소련)으로부터 구출해 달라는 유대인들의 청원에 귀를 닫았다. 나중에 미국은 국가의 최고 청년들 수십만을 잃게 된 남의 전쟁에(유럽인들끼리의 전쟁) 코가 꿰어 말려들고 말았다.

그러나 자그마한 왕국이던 덴마크의 왕은 유대인들을 도왔고 그 덕분에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7년 동안이나 시체를 매장하게 된 지경에도 이 나라는 거의 손상을 입지 않았다.

이것은 다가오는 환란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제들을 돕는 민족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한 자그마한 예가 될 것이다.

민족들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커다란 불 용광로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마13:38-42). 이 사실은 시날 평야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일(다니엘서 참조)이 환란 때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해 준다. 우리는 주께서 돌아오실 때 이 용광로가 세워질 것이라는 그 어떤 정보도 성경에서 찾을 수 없으므로, 따라서 그것이 환란 때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그 용광로를 만든 자들은 그들이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시편 50:1-5에서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한 또 다른 예언적 전망을 읽어볼 수 있다.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시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전 세계적인 사건) 땅을 부르셨도다(지옥이 아니고 죽은 자들이 아님). 아름다움의 완성인 시온(따라

서 지상의 시온이 아닌 천상의 시온임)으로부터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재림 때 떠오르는 태양).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고(재림)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분 앞에서는 불이 삼키고(이에 대해 여러 구절을 공부한 바 있음) 그분 주위에는 큰 폭풍우가 있으리도다(아마겟돈).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심판이 있게 됨) 위로부터 하늘들에게 외치시고 땅에게 외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이스라엘) 내게로 모을지니 곧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왕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된 자들)이라, 하시리로다.”(시50:1-5)

에스겔 39장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때이며 그때에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빼앗기게 될 것이다(단7:26). 팔레스타인에서는 모든 죽은 자들을 매장하는 데 7개월이 걸리는 반면에(겔39:12) 이스라엘의 국경 밖에서 살해된 자들은 매장되지 않을 것이다(렘25:33).

맥 기퍼트(Mc Giffert)라는 작가가 그의 책에서(어떤 책인지 기억할 수가 없으나) 베드로의 설교를 언급하면서 지적한 내용은 참으로 탁월하다(다소 길긴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성령의 임재하심이며 초기 시대에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리던 영적 은사를 이 왕국에서는 모두가 누릴 것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갖고 있다.

따라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부어짐과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연결시킨 것은 이같은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다. 만약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오순절날에 있었던 현상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의미한다는데 베드로와 동의한다면 이로부터 도출될 결론에도 자연히 동의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요엘의 예언(베드로가 이를 인용했음)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이 주의 날에 뒤이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사도행전 3:19에 비추어 볼 때, 베드로는 그 예언을 이렇게 이해했다. 따라서 성령의 강림을 약속된 왕국이 지상에 이미 세워진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다

만 표적으로 간주하여 왕국의 수립이 임박한 것으로 여겼다.

오순절에 의해 시작된 그 날들은 단지 준비 과정에 불과했으며 그 완성은 아직 미래에 있을 것이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메시아 왕국이 속한 시대는 당시 동시대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가 아니라, 또 다른 시대였다. 그리고 그 왕국 시대가 열리기 전에 심판의 날과 이 세상의 끝이 도래해야만 한다.

예수님께서 이미 주님이시며 통치자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은 그분의 왕국이 이미 실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왕국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신 것도 아니며 다만 그 실현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주님은 자신의 추종자들을 왕국을 맞이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왕국 수립을 앞당기고자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진 것은 왕국의 도래를 위한 표적이었지 왕국이 임했다는 증거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회심치 아니한 그들의 형제들처럼 미래 안에서 살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일을 완수하고자 오셔야만 하는 것이다. 이 일에 대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유대인들과 동일한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들은 이 왕국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국이 될 것을 확신했으며, 이는 베드로가 메시아의 강림은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회심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설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대 민족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새롭게 하는 때가 올 것이고 메시아께서 왕국을 세우려고 재림하실 것이다. 베드로는 이 왕국에 대해 자세한 언급을 하는 대신, 기다리는 메시아의 심판은 분명 있을 것임을 시사하면서 사악한 자들의 처벌은 백성들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 같은 진정한 유대적 성격을 지닌 처벌이 될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또한 모든 것들의 회복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며(이는 모든 유대 묵시 문학의 단골메뉴이다), 또한 메시아 예언이 남김없이 모두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베드로는 만약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조상들이 그토록 염원했고 대언자들이 약속했던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설교했다. 그러니까 현재의 구원을 이루게 될 기회를 즉시로 제공하는 대신 미래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 있게 전했다. 베드로가 청중에게 가능한 모든 기회를 얻어 권면한 것은 바로 이 미래의 기회를 확신시키는 것이다.

사도들의 이와 같은 기대는 올바른 것이었으나 어떻게 이들은 그와 같은 확신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이 확신은 구약 성경을 잘 공부한 덕이 아니었을까? 분명 사도들은 그리 생각하였고 그와 같은 확신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철저히 공부함으로써 가능했으리라.

수많은 세기들이 흘러가도(사도들의 시대 이래) 이 소망이 실현될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다. 이에 현대의 비판자들은 제자들이 틀렸으며 이들의 확신이 근거로 삼았던 예언의 말씀들이 이들에 의해 잘못 해석되었다고 결론을 짓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신성한 말씀이라는 믿음을 상실한 자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만약 대언자들과 사도들의 말이 영감을 받지 않은 것이라면 그들의 확신과 소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을 터이나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인도 하에 선포하고 기록했다면 (앞서 언급한 메시아의 왕국이 수립될 것), 이 왕국은 당연히 세워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논쟁을 벌인 자(요10:35)만이 부인할 분명한 사실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그분께서 세상 끝에 오실 때 곧바로 영원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대언자들과 사도들이 예언

한 왕국 시대(천년왕국)는 설 자리를 잃고 만다. 결국 이 난제를 피하기 위해(사실 피할 길은 없다.) 이들 성경 해석자들은 분명하고도 문자적인 약속들을 영적으로 만들어 교회 시대에 억지로 끼워 맞추어, 교회 시대와 왕국 시대가 동일하다고 왜곡한다.

본 저자의 해석은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과 아울러 사도행전 3:21,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리라.”(행3:21)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정당하다. 이 구절이 말하는 “모든 것의 회복”에 대한 소망은 사도들이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이 소망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이와 같은 왕국의 수립이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인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사탄이 구덩이에서 1000년 동안 묶여 있는 동안 이 땅에서 통치하시게 될 것이다. 이 왕국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었던 그 왕국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목적이 이 왕국의 수립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모든 가족들(창12:1-3)에게 복을 전달하는 중심 교통로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며 다른 모든 민족들에 의해서도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로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때 이스라엘과 그분의 공동 상속자인 교회, 즉 두 경륜에 속한 성도들은 그분과 함께 자신의 책무를 다하면서 천 년 동안 함께 공동 통치를 하게 된다.

여기서는 땅에 세워질 이 정부에 관해 자세한 언급은 없겠다. 이를 위해서는 구약의 예언들을 다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분명하고도 축복된 사실은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이다. 드디어 땅이 하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룰 것이요 한때 잃어버렸던 낙원은 회복될 것이다.”

## 29. 이스라엘의 회복

유대 권력의 가장 큰 위협은 그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영화, 언론, 방송 그리고 정부  
안에 장악하고 있는 소유권과 영향력이다.

Charles A Lindbergh

1940년 10월에 행한 연설에서

가나안 땅(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창15:18-21), 궁극적으로는 새롭게 하는 때(행3:19)가 와서 가뭄과 기근을 끝내는 비가 내리고(욥2:19-21) 축복의 소나기가 내릴 때(겔34:26) 이스라엘 후손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은 전세계로부터 다시 모아질 것이며(슥:6-8) 크게 복을 받을 것이다.

“보라, 내가 내 분노와 격노와 큰 진노 중에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모으고 이곳으로 다시 데려와 안전히 거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들과 자기



들 뒤에 있을 자기를 자손의 복을 위하여 영원히 나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서 떠나 돌아서지 아니하리라는 영존하는 언약을 내가 그들과 더불어 맺고 나를 두려워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그들을 기뻐하므로 그들에게 복을 주고 내 마음을 다하며 혼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확고히 심으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큰 재앙을 이 백성에게 내린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렘32:37-42).

이스라엘 민족은 구속을 받아 온 땅으로부터(사11:10-13) 기쁨으로 귀환할 것이다(사51:11).

이스라엘이 “영원히” 돌아와(암9:14-15) 다시 심기게 될 때(삼하7:10)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확실히 하실 것이며(시105:9-12) 이 후로는 이스라엘은 결코 자신의 땅에서 옮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겔36:8-15, 렘30:10-11, 16:14-15, 사43:5-7, 렘24:6, 31:35-36)

UN, PLO, WCC(세계교회 협의회) 및 기타 그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 단체가 어떻게 이에 대해 생각하는지는 중요치 않다. 앞서 인용한 예레미야서를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I Will)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고 계신지 확인해 보라.

하늘이나 땅 위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들을 무효화 할 세력은 없다.

계시록 해석 중 미래적 해석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다. 이스라엘 민족을 단지 모형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히브리 민족 중 남아 있는 작은 무리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된 모든 땅이 주어질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때 모든 살아있는 히브리인은 그 땅에 거하게 된다. 그들은 그 땅에서 터를 잡고 번성할 것이며 그 누구도 그들을 다시는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다시는 박해 받거나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다시는 영토를 되찾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다윗의 장막은 재건될 것이며(암9:11) 그들은 이스라엘 행정 구역으로 구분된 땅에서 한 민족으로 연합해 거주할 것이다. 각 지파는 각각의 지정에서 자신의 혈통에 따라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 거주지의 구분은 에스겔서 40-48장에 자세히 나와 있다.

자, 이제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독특한 특성들 중의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점령하였을 때 이들 열두 지파가 점령하게 될 지역을 국경별로 자세히 구분해 놓은 내용이 성경 여러 장 전체에 걸쳐 기록되어있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는가? 여호수아서 같은 다른 어떤 “거룩한 책”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런데 동일한 주제에 대해 에스겔서가 아홉 장이나 할애하고 있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이번에는 그 땅의 점령이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전과 다르다고 하겠다.)

나는 코란, 메다, 공자의 경전들, 프리메이슨의 교리들과 같은 여러 종교 경전들을 갖고 있지만 이런 종류의 책은 전혀 없다.

몰몬경에는 조셉 스미스의 정신 착란이 들어있다. 그는 그 속에 성경처럼 땅과 국경과 도시들에 대해 자세히 써 놓았다. 그러나 그 어떤 지명도 실존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저 픽션에 불과하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 그토록 자세하게 기록하신 것은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적인 영역에서 신비의 영역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의도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시면 우리는 지도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 그분께서 유프라테스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강에서 배를 탈 수 있다. 주께서 이집트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말씀하신바 그대로 의미하시고 의미하시는 바를 그대로 말씀하신다.

만약 누구라도 종교에 대해 편견이 있다면 지리를 공부해 보기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 누구라도 역사나 인류학을 공부해 본다면 그는 이 두 분야에서 그 어떤 내용도 성경과 충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회의주의자라면 성경 속으로부터 지도를 하나 그려 팔레스타인 광야로 여행을 하면서 모래를 밟아 보라. 하나님의 성경이 파괴되었다고 말하는 도시가 진짜로 폐허가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시19:7).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위에서 천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것이다.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 누구라도 지금 당장 중동 지역을 여행하면서 이들 열두 지파가 거주하게 될 그 영토들(열두 지역)을 직접 구분해 볼 수 있다.

우리의 성경은 수수께끼가 아니다. 성경은 계시이며 그것도 바로 하나님 자신의 계시이다.

예루살렘은 빛이 될 것이며 생명수의 원천이 될 것이다(슥14:5-11). 이 세상의 모든 조약, 전쟁 그리고 국제 회의도 이루지 못한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이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가 된다는 말이다. 이때의 생활 여건은 이사야 4:2-6에 묘사되어 있다.

이때 땅의 거주민들은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하게 되는데(신28:10), 이는 이 민족이 모든 민족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신28:13).

민족들 중에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민족도 있게 된다(슥3:11-13, 마26:11).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사건 기록은 스바냐 3:14-20과 이사야 62장에 요약되어 있다.

## 30. 천년왕국의 체제

성경은 100년 동안 잊혀진 책이 되어

박물관에서만 보게 될 것이다.

천년 왕국에서는...

Voltaire

(1697~1778)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에게 속한(행2:29-30) 왕좌를 차지하실 것이다 (눅1:30-33). 이 통치권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실 것이다(미5:2, 시2:6). 이 왕좌가 있는 곳은 지상의 시온 산이 될 것이다(욥2:32, 3:16). 시온은 다윗의 왕좌가 있었던 도시이며 위대한 왕의 도시라고도 불린다(렘22:2, 마25:31, 겔 48:35, 스8:1-8).

주의 백성은 그분의 왕관에 있는 돌들이 될 것이다(스9:16). 주의 왕국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주님을 보좌할 것이다. 이들 중에는 특별한 봉사의 직책을 지니게 될 자들도 있을 것인데(계20:4-6), 이들은 그것을 수고를 통해 획득한 것이며(갈5:21, 엡5:5, 골3:24) 이에 대해서는 앞서 “그리스도의 심판

석”이라는 주제에서 살펴본 바 있다.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함께 통치하지 못할 것이다(계5:10, 딤후 2:12, 롬8:17). 비록 우리에게 구원이 부인될 수는 없으나 우리의 상속을 충만하게 받는 그것을 부인당할 수 있다(딤후2:12-13).

이 천년왕국에는 다윗 왕도 뛰어난 지위를 얻어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는 왕이신(King) 예수님 밑에서 이스라엘은 다스리게 될 통치자(Prince, 혹은 왕자)가 될 것이다(겔34:20-30, 호3:5, 렘30:9). 이때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사역자들의 민족이 될 것이다(사61:4-6).

솔로몬이 예표했던 그것이(왕상4:21)이때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단7:27). 요약하자면,

1.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원한 통치권을 주실 것이다(단7:13-14, 히1:8).
2. 성도들이 왕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단7:18).
3. 성도들에게 심판의 권리가 주어지며
4. 모두가 이들의 통치하에 들게 될 것이다(단7:22,27).

### 31. 천년왕국에서의 창조 세계

예수께서 해가 있는 곳마다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여정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분의 왕국은 바닷가에서 바닷가로 퍼지며  
 달이 차고 더 이상 기울지 않을 때까지 그리하리라.  
 북에서 남까지 통치자들이 모여들어  
 그분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서방 제국들은 자신들의 주님을 소유하고  
 야만 종족들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네  
 그분께 끝없는 기도가 드려질 것이요  
 끝없는 찬양이 그분의 머리를 관 씌우리니  
 그분의 이름이 달콤한 향기처럼 피어올라  
 매일의 희생제와 함께하리라  
 온 백성과 모든 언어에 속한 자들이  
 가장 달콤한 노래와 함께 그분의 사랑 위에 거하며  
 어린아이들의 목소리도 선포하리라.  
 아침 일찍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Isaac Watts

“예수께서 다스리리라”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낙원을 회복하시게 될 그대에 대해 소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게 하실지(하나님께서 베푸실 물질적 풍요를 포함해서) 성경을 찾아 확인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다니엘의 70째 주 동안 있게 될 끔찍한 심판들이 지나간 후 자연은 중생하게 될 것이다(새롭게 된다는 뜻, 호2:18,22, 마19:28).

물론 인간만이 죄악으로 타락했지만 모든 피조물(창조물) 또한 인간의 타락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때 이래로 모든 새들, 물고기, 동물들, 식물들 즉 모든 창조 세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에덴을 회복하실 그 날을 갈망해 오고 있다(롬8:20-22).

마침내 인간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며 땅에는 평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호의가 있을 것이다(눅2:14). 이 평화는 단지 인간들 가운데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수들, 독사들, 가축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완전한 안전함 가운데 한 무리가 되어 뛰놀 것이다(사11장).

육식동물들이 소처럼 짚을 먹고 독사들이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것임을 읽을 때 이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사자로 고기를 먹고 살게 만드신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그 짐승의 식욕과 식성을 바꾸실 수 없단 말인가?

어떤 사람은 알코올과 마약으로 살았었다. 그때 주님께서 은혜로 그를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셨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입맛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는 마약에 굶주리거나 술을 갈망하지 않는다. 이처럼 인간의 입맛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짐승의 식욕을 바꾸실 수 없겠는가? 나는 당연히 그리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

어떤 자들은 피가 된 물이 정결케 되고 중독된 땅이 정화되며 이로써 수백만 명이 목숨을 건지게 될 것이라는 성경 기록을 보고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의심하는 것 같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물 속에 오랫동안 잠겨있던 땅위로 방주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되지 않아 모든 것은 원상으로 회복되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은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는 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것이라고 하셨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들을 숭배했고 이에 하늘들이 단혀 버려 수확은 망쳤다(신11:13-17). 땅은 그대로 있으나 비가 오지 않는 것이었다. 동일한 일이 환란 때에도 일어날 것이다. 이때는 비가 안 오는 것은 물론 타는 듯한 태양과 중독된 물, 피로 변한 물, 그리고 화재로 인해 일어난 숲의 황폐함 등으로 이 땅은 황량한 광야가 되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천년 왕국이 동터 올 무렵 처벌은 끝나고 회복이 시작된다.

성소에 원천을 둔 새로운 강이 땅의 비옥함을 회복시킬 것이다(욥3:18). 성소로부터 그리고 뒤이어 예루살렘으로부터 살아 있는(생수) 물이 흘러나와 바다로 흘러들어 땅의 물들을 정화 하고 깨끗하게 할 것이다(슥14:8).

“그때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들이 동쪽 지역을 향해 흘러나와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리니 그것들이 바다로 들어갈 때에 그 물들이 치유되리라.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는 이 물들이 거기에 이르므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강이 이르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살리라. 또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그 강 위에 서리니 그 지역들이 그물을 치는 곳이 되리라. 그 지역들의 물고기가 그것들의 종류대로 대해의 물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라. 그러나 그 지역들의 수렁과 늪지대들은 치유되지 아니하고 소금에게 넘겨지리라. 또 그 강가의 둑 위에는 이 쪽과 저쪽에 먹을 것을 맺는 모든 나무가 자라되 그것들의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자기의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것들이 자기들의 물들을 성소에서 내었기 때문이다. 그것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며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겔



47:8-12)

현재 사해는 지중해로부터 약 1300피트(약40m) 가량 더 낮은 곳에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물이 계속 흘러 들어가기만할 뿐 흘러나오지 못한다. 이 경우 천년왕국에서 지리적 조건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라면 이 예언들은 성취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위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 땅은 주변들 위로 솟구쳐 오르게 될 것이며 이 땅에는 예루살렘도 포함된다(슥14:4, 10-11).

화산 활동 역시 그 지역의 지표면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미1:3-4). 이와 같은 지질학적 사건들과 대환란 끝에 있게 될 대지진을 합치면, 이 모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리라 하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 한 가지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구 전체의 지표면을 다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지만 모든 것은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천년왕국 때에는 달이 오늘날의 해처럼 밝아지고 해는 오늘날보다 일곱 배가 밝아질 것이다(사30:26). 땅은 비옥함이 증대될 것이다(사30:23, 35:1, 시 67:6). 이로써 수확도 지속해서 거두게 될 것이다(암9:13).

창세기 3장에서 저주로 인해 이 땅에 존재해 오던 가시와 켄레는 사라질 것이다(사55:12-13). 또한 대기권의 여건 변화로 인해, 인간의 수명 역시 홍수 이전으로 회복될 것이다(사65:20-25, 슥8:4). 우리는 환란이 끝날 무렵 하늘들이 크게 흔들리며(히12:26), 땅도 크게 흔들릴 것(사24:20)을 알고 있다. 필자는 과거 노아의 홍수가 끝난후 천체의 위치가 바뀌어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켰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것이 원래대로 회복되어 인간의 수명이 다시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다. 천년왕국 때에도 뱀은 여전히 먼지(흙)를 핥아먹는데, 이는 그 누구도 과거 타락의 기억을 잊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이다(사65:25).

## 32. 천년왕국에서의 경배와 심판

효율적인 정부가 있는 그곳에는

독재가 있으리라.

Hary S. Truman 대통령

1959년 4월 28일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한 강연회에서

왕국 시대에는 주 예수님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학대받는 자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시9:8-9). 율법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며(사2:2-5) 이 땅과 세상은 의를 배우게 될 것이다(사26:5-13).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율법을 듣고자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사2:1-4, 미4:1-2).

어떤 사람들은 그분께 나아와 기도하기도 하고(슥8:21-23), 예물을 가져오기도 하며(시68:25-33), 그분의 영광을 볼 것이고(사66:18-21), 거룩한 대로로 여행하여(사35:8-10), 그분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시22:27-28).

왕국의 모든 목자들은(Pastors) 주의 목자가 될 것이다(렘3:14-19). 복음을 전파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임재해 계셔서 모두가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히8:8-11). 오실 구원자, 혹은 왕을 선포하는 자는 누구라도 부모에 의해 처형될 것이다(슥13:2-3). 어느 시대이든 하나님께서 인간을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신다고 믿는 자들은 이런 구절들을 없애려고 할 것이다.

역사상 유래가 없는 성전이 세워지며, 이는 에스겔 40-44장에 묘사되어있다. 이 성전은 거룩한 구역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겔45:1-5). 이 새 성전에는 언약궤, 만나, 진설병, 금촛대, 향단, 휘장, 지성소, 대제사장, 금홍의 자리(시는 좌), 그룹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등은 없다. 이 모든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표였을 뿐이다. 이제 “정확한 형상”(express image)이신 분이 오셨으니 그림자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레위 제사장 직분은 회복될 것이나 레위 지파는 주로 성전 봉사만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우상 숭배 전력으로 인해 거룩한 것들을 접촉하거나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일은 금지되기 때문이다(겔44:10-14).

형제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레위 가문인 사독의 아들들만이 희생제를 주관하고 봉헌할 수 있게 된다(겔44:15-31). 그러나 아침 희생제만 있을 뿐 저녁에는 없을 것이다(겔46:13-15). 봉헌물은 번제 헌물, 음식 헌물, 음료 헌물, 죄 헌물, 화평 헌물(겔45:17), 그리고 범법 헌물(겔42:13)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들 헌물은 젖값을 치르거나 갚기 위함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히10:1-22).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큰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것처럼(롬12:1, 히2:3) 천년왕국 때도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물을 드릴 것이다.

이 때는 두 가지 명절을 지킬 것이다. 유월절(어린양 없이)(겔45:21-24) (할렐루야, “어린양”께서 왕좌 위에 계시니 어린양이 필요 없다니)과 장막절이 그것이다(슥14:16-19).

합당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지 않는 민족은 심판을 받는다(슥14:16-18). 그리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피폐하게 될 것이다(사60:12). 왕께 조금만 반역하더라도 배고픔과 목마름과 수치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시2:10-12, 사65:11-16, 행5:1-11).

하나님께서서는 반역자들이 자신을 높이지 못하도록 권능을 행사하실 것이다(시66:7). 신실했던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땅의 도시들을 주님의 영도 하에 다스릴 것이다(눅19:17-19). 이들은 이제는 대사의 신분을 뛰어넘어(고후5:20) 이 땅에서(계5:10) 왕이 될 것이다(계1:6).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요일3:1-3).

이런 이유로 인해 예수님은 재림 때 왕들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을 신실하게 섬긴 자신의 종들을 왕으로 삼아 왕관을 씌워 주시는데 이들 모두는 자기가 왕이면서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King)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열두 사도는 열두 왕좌에 예루살렘에서 앉게 되며(마19:28) 왕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의 매듭을 묶거나 풀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마16:19, 18:18). 새로 세워지는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에스겔 48:1-35를 보기 바란다.

# 6 다 이루었다

이곳에 당신의 상처 입은 마음을 가져오시오.

이곳에서 당신의 고뇌를 털어 놓으시오.

사망은 하늘이 치유할 수 없는 슬픔을 갖고 있지 못한다오.

Thomas Moore

“오라, 너희 낙담한 자여”, 에서

### 33. 사탄의 최후의 패배

여우는 함정을 뚫하지 결코 자신을 뚫하지 않는다.

William Blake

잠언의 보고에서

계시록 20:7-10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사탄은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풀려나 하나님의 왕좌를 찬탈할 마지막 시도를 하고자 군대를 모으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사탄의 절망적인 발악은 지옥에서는 아무런 회개가 없음을 입증해 준다.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을 때에도(눅16장) 자신이 할 일에 대한 그 어떤 회환이나 회개의 기미도 없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자 하는 그 어떤 간청도 없었다.

계시록 9장에서 구덩이가 열릴 때 심연 속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고통을 당한 그 창조물들은 다른 자들을 죽이고 파멸시키려는 욕망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

1000년 동안 의식을 지닌 채로 고통을 당하고 난 사탄은 풀려난 즉시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사악한 짓을 다시 저지르고 마는 것이다.

보편 구원론, 연옥 및 기타 인간이 만들어 낸 이론들은 인간의 문제가 신학 문제 혹은 교리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것은 커다란 오류일 뿐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는 마음속에 있는 죄이기 때문이다.

지옥, 형벌, 울부짖음, 통곡, 이를 갈 등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 인식하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한다. 오직 성령께서만 이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다. 이때 인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며 주 예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 그 후에야 비로소 인간은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다. 그러나 지옥에는 죄에 대한 인식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옴도, 구원함도 없다.

지옥에서는 인간은 오직 자기 생각 속에 파묻혀 홀로 지낸다. 고통 속에서 오직 자신의 고통, 고뇌, 통증 등만을 생각할 뿐이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시10:4). 지옥에서는 회심을 위한 복음전파도 없다. 믿음을 가져다줄 말씀을 들음도 없다. 치려야 할 속전도 없다(시49:7-9).

지옥은 그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죄 가운데서 90년을 산 사람은 90년간만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35세에 죽은 구원 받지 못한 여인은 35년만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간은 죽을 몸 안에 죽지 않는(영존하는) 혼이 거하고 있는 존재이다. 비록 어떤 사람이 몸에서 빠져나와 일시적 영역에서 영원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동일한 인격체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코 변화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950년을 구원받지 못한 채 살았다면 그는 동일한 기간을 사악함 속에서 살아야한다. 백만 년을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면 동일한 처지에 놓일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이유 역시 그가 영원히 사악한 자이기 때문이다.

대환란 때 엄히 심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실족했는지를 기억해 보라. 부정한 영들이 예수님께 때가 되기 전에 자신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도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음을 기억하라. 마귀(a devil)였던 유다(요6:70-71)도 제사장들에게 죄를 고백했으나(마27:3-4), 그는 하나님께 돌이키기 보다는 절망적 격렬한 죄책감 속에서도 자살을 시도했음을 기억하라! 환경은 그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사탄은 과연 어디서 그 큰 군대를 모을 것인가? 답은 이렇다.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있을 것이다(시72:8-9, 110:2, 2:12).

이들 반역하는 자들은(시66:7) 의를 배우기를 거부할 것이다(사26:9-11, 계22:11). 이들이 의로우신 왕의 명령에 겉으로 보기에 복종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철권으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저 두려워서이다(계12:5).

사탄의 군대는 다음과 같다.

1. 환란 속에서도 회심하지 않고 남은 자들(속14:16-19).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살륙은 피했으나 주님을 결코 신뢰한 적이 없다(단11:41-42).
2. 유대인들을 도운 이유로 왕국 안에 들어온 양으로 간주된 민족들로, 이들 역시 모두가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는 없다(마25:34, 40).
3. 아담의 본성을 지닌 채 천년왕국 동안 태어난 자들로 회개하거나 순종치 아니한 자들(사65:20, 속8:4-5).

필자의 아들이 사탄의 마지막 반역에 대해 재미있는 지적을 한 적이 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섬 사람들의 불 피우는 것을 돕는 장면을 목격한다. 이때 불에 뜨거워진 나뭇단 속에서 독사가 나와 하나님께서 택한 증인을 공격했다. 그러자 바울은 그 독사를 털어버렸고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



독사는 불 속에 내던져진 채 다시는 그 누구도 괴롭히지 못했다.

이 장면은 옛 뱀이 지옥의 불 속에서 나와 마지막으로 해치고 파괴하고자 시도했으나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 채 오히려 불 호수에 내던져져서 다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괴롭힐 수 없게 되는 것과 같다.

이 마지막 전투에 대해서는 에스겔 31장을 보기 바란다. 마지막 전투에 참여하는 군대는 시편 72:9와 이사야 49:23에 언급되어 있다.

## 34. 큰 흰 왕좌 심판

쓸모 없는 지구 위에 마지막 나팔 소리 울리고  
 두 사람이 남아 있을 때  
 집에서 만든 우주선을 띄우려고 애쓰는 동안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지를 두고 벌써 다투고 있을 테니

William Faulkner

1959년 10월 2일 연설문에서

일반적인 종교인들은 마지막(최후의) 심판에는 단 한 가지의 결과만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설교자들, 성경 교사들 그리고 주석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흰 왕좌 심판에서 서게 되는 자들은 모두가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 뿐이라고 선포해왔다. 그러나 성경말씀은 이 마지막 심판 때에 두 종류의 결과가 있을 것임을 보여 준다(단12:2, 요5:28-29).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히9:27).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구약 성도들은 어디서 언제 심판을 받았단 말인가? 이들은 심판 받은 적이 없다. 환란 성도들은 어떤가? 이들도 심판 받은 적이 없

다. 천년왕국에서 살던 성도들은 어디서 심판을 받았는가? 이들 역시 그런 적이 없다. 우리는 이번 과에서 이들 모두의 심판에 대해 상고해 보고자 한다.

선조들이 가르친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따라가고 이와 다른 견해는 무조건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그 선조들이 가르친 바가 성경 속에 들어있는지 확인조차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노라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백보좌 심판 때 두 가지 결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가르칠 때면 어김없이 이러한 행태가 드러난다.

조상들이 마치 “성경구절”인 것처럼 가르쳤으나 실제로는 성경에는 없는 내용들이 다음과 같다.

1.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2. 청결은 경건함(goodliness) 다음이다.
3. 주께서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4.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신다.
5.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6. 갈보리 이전 사람들은 모두 십자가를 미리 내다보았다.

이 외에도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성경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다른 “구절들”이 더 있다.

위에 언급한 여섯째 항목에 대해 말하자면 이렇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대언자들이 자신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주님께 그 의미를 여쭙었을 때, 주님께서서는 답변을 거절하신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 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

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벧전1:10-12)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포한 복음(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은 지난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신비라고 말했다(골1:24-28).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죽기 위해 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은 그분을 꾸짖거나(마16:22) 그분께서 무슨 말을 하고 계신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듯이 말하였다(요13:36, 14:5).

침례인 요한은 자신이 선포한 그 왕(King)께서 자신을 죽이려는 왕(king)을 제거하실 생각이 없다는 것을 옥중에서 눈치 채고, 그는 자신이 선포한 그분이 과연 진짜 왕(King)이신지를 확인하고자 제자들을 보냈다(마11:1-6).

우리는 어쩌면 사가랴(눅1장)를 제외하고는 십자가를 미리 내다본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39권의 책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 책은 그들에게 이 땅의 지상 왕국을 준비할 것을 명하고 있다.

반면 이방인들은 양심을 통해 자신들을 지으신 분(maker)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임을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우리가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완성된 계시를 갖고 있고, 구약 성경을 찾아보며 그 안에서 십자가를 의미하는 놀라운 예표를 보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곧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살던 사람은 누구라도 이러한 예언들과 예표들을 이해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사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이들은 모세와 대언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기록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이들은 그저 주님께서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십

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낙심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아볼로는 말에 힘이 있고 복음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으나 십자가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꺼낸 적이 없다. 결국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에게 하나님의 길(道)에 대해 더 완전하게 알려 주어야만 했다(행18:24-28).

우리는 아무리 오래된 전통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포기해야 한다. 신약 그리스도인은 죽은 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자신의 일을 평가 받게 되고 보상이 결정된다. 이 외의 모든 인간은 죽은 후 큰 백보좌 심판석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1. 모든 시대에 살았던 구원 받지 못한 채 죽은 자들(계20:12-15, 벰후2:4, 9, 3:7)
2. 사탄을 따랐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벰후2:4, 고전6:2-3, 11:10, 유6, 시82:1).
3. 환란을 통과하며 살아남아 천년왕국에서 죽는 자들(계20:11-15, 슥14:11).
4.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자.

이 땅에서 죽을 때 셋째 하늘로 곧바로 가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소유한 자들뿐이다(롬3:20-26). 따라서 구약 시대에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1. 이들은 죽을 때 주와 함께 있을 수 없다(눅16:19-24).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고후5:8).
2. 이들은 용서는 받을 수 있었으나 그들의 기록이 그리스도인의 경우(골2:14)처럼 깨끗해지지지는 못했다(출34:7).

3. 아무리 완벽하게 바쳐진 희생물일지라도 이들의 죄들을 제거할 수는 없었다(히10:1-4). 반면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그 죄들이 제거되었다(골 2:14).
4. 비록 이들이 지옥에 보내어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땅의 포로들로 남았기 때문에(엡4:8-9) 이들은 부활 이전에 낙원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마12:40, 눅23:43).
5. 따라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구원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의 구원이 더 나은 구원이다(히11:40). 이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될 때까지 완전하게 될 수가 없다.

성경에 따르면, 심판이 끝나고 나서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신약 성도는 갈보리에서 이미 죄들에 대해 심판을 받았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신뢰하는 그 순간에 곧바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구약 성도가 한 번 이상 첫째 사망을 겪는 이유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죽음으로부터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모세는 신명기 34장에서 죽었다. 그런데 유다서 9절에 보면 그는 일어나 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그가 살아 있음이 나온다. 만약 모세가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중 한 사람이라면 그는 그곳에서(계11) 죽는다.

엘리아의 경우 그는 왕하 2장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갔다. 그 뒤 그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살아 있다. 그가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한 사람이라면 그 역시 그곳에서 죽는다.

반면 신약 성도에게는(교회 시대) 이런 기록이 전혀 없다. 나사로(요11), 야이로의 딸(눅8:54), 나인 성 과부의 아들(눅7:14), 수넴 여인의 아들(왕하4), 도르가(행9:40), 유두고(행20:10) 이들 모두는 죽음으로부터 살아났다가 다시 죽

었다.

구약 성도들과 아울러 대환란기 및 천년왕국의 신실한 자들도 흰 왕좌 심판에서 심판받고 보상 받을 것이다(계11:18).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로(약2:18) 믿음을 입증함으로써(히11장, 모든 승리는 믿음에서 나온다) 생명나무에 접근하여 먹을 수 있게 된다(계21:22-24).

이들은 정결하기에(계21:25-27) 이를 허락 받았으며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었다(계22:14-15). 이로써 이들은 이 열매에 참여하여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허락 받았다(창3:22).

모든 현대 번역본들은 계시록 2:4를 번개했다. 모든 주석가들도 동일한 짓을 저지른다. 이는 이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앙 체계에 맞지 않는 성경 구절을 발견하였기 때문이요, 이에 이들은 성경을 뜯어 고쳐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계명들을 지키는 조건 하에 주어진다라는 진리를 거부해 버리는 것이다. 당신의 견해에 맞추기 위해 성경을 뜯어 고치지 말라. 오히려 당신의 견해를 뜯어 고쳐 성경과 일치시키도록 하라.

사망(정사와 권세들), 지옥(이들의 거처가 있는 곳) 그리고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들(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겠다고 스스로 작정한 모든 시대에 걸친 남녀들)은 불 호수에 던져진다(계20:14-15).

우리는 성경을 번개하거나 “헬라이어”를 가지고 장난질을 쳐서 지옥과 불 호수의 차이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주목한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한 구절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지옥은 시험과 심판 전의 임시 처벌 장소인 반면에 불 호수는 영원한 폐기 장소이다. 그러니까 “프라이팬(지옥)”에서 불속(불 호수)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또한 정죄를 피하려면 어린양의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 진리에 관해 많은 오해들이 있어 왔는데 그중에서도 찬송가 가사를 신학적 진리로 받아들임으로써 오류가 생긴 경우가 있다.

성경 어디에도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 암시하는 구절은 없다. 오히려 모든 창조물의 이름은 창세로부터(계 17:8)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구원 받기로 예정된 자들의 이름들만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도 하나도 없다. 오히려 성경에는 생명책에서 이름들이 지워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구절들이 여럿 있다(출32:32-33, 계3:5, 시69:28).

100%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생명책에는 모든 인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가 더는 회심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하나님만이 아심) 그 이름들은 제거되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것 같다.

열왕기상 10장에서 우리는 이런 흰 왕좌의 모습을 언뜻 짐작할 수가 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이 당시 이 보좌에서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큰 상아 왕좌(18절)에 앉았는데 이것은 최상품 금으로 덧입혀져 있었다(18절). 이 왕좌에는 여섯 개의 계단이 있었는데 꼭대기(일곱 번째 단)는 그 뒤가 둥그렇게 되어 있었다. 왕좌 양 옆으로는 사자 모양의 팔걸이가 있었고 이것이 각 계단의 옆에도 있었다.

만약 이것이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마12:42,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왕상10장을 인용하였음)의 왕좌의 모습이라면, 주님의 앞에 놓인 이 계단들에서 있게 될 때 갖게 될 두려움과 공포를 그 누가 짐작할 수 있겠는가? 이때 천사들이 쭉 둘러서서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모든 행위들이 기록된 책들을 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과거에 내가 무시하고 거부했던 그 구원자의 손에 영원한 운명이 놓여있게 된 그 순간을 그 누가 제대로 상상할 수 있겠는가?

하늘과 땅은 멀리 도망가 버리고(계20:11), 이들은 더는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게 된다. 그 어디에 상고할 법정도 없다.

욥기 14:14-22에서 우리는 이 흰 왕좌 심판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이까?” 그렇다. 영원히 살거나 혹은 정죄 받아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 될 만큼 오래 살 것이다.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의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이 정해진 때가 히브리서 9:27에 나와 있다.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이것은 부활에 대한 언급이다(고전15:51, 계20:11).

“주께서는 부르시겠고 나는 주께 응답하리니,” 백보좌 심판 때는 각자가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 하며 질문과 답변이 있게 될 것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work, 행하신 일)을 원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몸과 자신이 주신 생명과 은사(talents)로 인간이 행한 것들이 무엇 인지를 알고자 하실 것이다.

“이제 주께서 내 걸음을 세시오니 주께서 내 죄를 감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재판관 으로부터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주께서 내 범죄를 자루에 담아 봉하시고 내 불법을 꿰매시나이다.” 한 인간이 구원 받아 성령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봉해질 수 있으나(sealed, 인침), 죄 가운데 죽으면 죄들을 제거할 방법이 없게 된다.

“산은 무너져 반드시 없어지며 바위도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물은 돌을 닳게 하나니 땅의 티끌 속에서 자라는 것들을 주께서 휩쓸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파괴하실 때 그 어떤 창조물도 서 있지 못한다.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그 날에는 모든 거짓 소망들은 무너져 내린다.

다음과 같은 헛된 소망들을 보라.

1. 죽음이 없었으면 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있다.

2. 죽음 후에 존재가 없어진다면 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있다.
3. 다시 태어나기를(윤회설), 소망하는 자들도 있다.
4. 회계보고 할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있다.
5. 영원한 형벌이 없었으면, 그리고 결국은 다 구원받았으면 하고 소망하는 자들도 있다.

이 모든 거짓 소망들은 흰 왕좌 심판석에서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주께서 영원히 그를 이기셔서” 심판은 영원하다.

“사라지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내 쫓으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그것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그들에 대한 그 일을 깨닫지 못하되” 잃어버려진 혼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리 떠나, 살아있는 자들에 대해 더는 알지 못하게 된다.

“오직 그에게 붙어있는 살이 이 아픔을 느끼고 그 속에 있는 그의 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이들의 “부활한” 몸은 불 호수 속에서 계속 살아 있어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 안에 있는 혼은 영원히 버림 받은 것을 두고 애곡할 뿐이다.

믿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어떤 자들은 감히 주님 앞에서 그분과 논쟁을 벌이는 무모함을 보인다. 어쩌면 너무도 큰 두려움에 미쳐 버려 스스로 조용히 있을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경고하셨다.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7:22)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가장 무모한 자들에 대해 증언해 줄 증인이 있을 것이다(마12:41-42). 물론 모든 논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이름들보다 크게 하신 그것, 즉 기록된 말씀에 의해(요12:48) 종식될 것이다.

이날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고(빌2:9-11) 고백하게 될 것이다. 스탈린, 모하멧, 공자, 부처 및 모든 교황들도 무릎을 꿇을 것이다. 모든 왕, 통치자, 대통령, 여왕, 총독, 황제, 독재자 그리고 총리 대신들도 (그동안은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해 왔을지라도) 영광의 주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게 될 것이다. 모든 자기 의로 가득 찬 선데이 크리스천, 독선적인 부자들, 오만한 은막의 스타, 우상화된 운동선수 및 연예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경이로우심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토록 오랫동안 타락해 있었던 마귀들과 타락한 천사들도 그토록 끝까지 반역해 왔던 자신들의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순간 온 좌중 속으로 침묵이 흐르게 되고 그들이 항상 알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그 누군가 등장하는데 이 자는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그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누군가 숙고한 후 이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 자는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의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 죄수들의 집을 열지 아니한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사14:16-17)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더 이상 아침의 아들도 아니며 아름다운 기름 부은 그룹도 아닌 옛 루시퍼는, 완전한 패배를 자인하고 자신을 굽혀 무릎을 꿇고 말 것이다. 이 자는 수많은 무리 속을 통과해 왕좌의 계단을 올라가 맨 꼭대기 계단에서 강제로 무릎을 꿇리게 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힌 발을 뻗쳐 사탄의 목을 누를 것이다(고전15:25, 수10:24, 시110:1).

완전한 패배와 완전한 굴욕 속에서 그 뱀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이라고 고백할 것이고 이를 모두가 듣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그는 불 호수로 내던져진다.

할렐루야!!

## 35. 마지막 날들

우리가 원하는 원치 않든, 강제로든 동의 하에든  
세계 정부가 등장하여 세금을 거두어 갈 것이다.

James Warburg

1950년 2월 17일 상원 소위원회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적 권위를 지닌 세계적 정부의 필요성은 분명한 것  
이다.

요한 바오로 6세

“이것이 발전이다”라는 제목의 책에서

마지막 날들로 알려진 기간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이 정해진 날  
들로 이루어진 더 긴 세대의 일부이어야 한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해진 날들도 없으므로, 마지막 날들은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겠

다. 반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다루시는 방식에는 정해진 날들이 없으므로(단9:24-27). 성경에 언급된 24번에 걸친 마지막 날(들) 혹은 훗날(들)이란 이스라엘 민족에 관련된 것이 확실하다고 하겠다.

이 날들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을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떻게 다루실지를 전체적으로 보여준다. 조상들의 시대가 끝나갈 무렵, 야곱은 이 날들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아굽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임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창49:1)

다음에 인용할 모든 구절들은 마지막 날들 혹은 훗날들이라는 용어로 설명된다. 마지막 날들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이다. 그들이 과거에 주님으로부터 돌이켜 사악한 일들을 했기 때문이다(신31:29).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 이방인들의 때에 대한 꿈 중에서 마지막 시대에 해당될 것이다(단2:28). 주님의 분노는 타오를 것이며, 성난 회오리바람이 사악한 자들 위에 닥칠 것이다(렘23:18-20). 곡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북쪽에서 올 것이다(겔38:16).

이 일들은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신4:30), 주 예수님께서 이들의 원수들을 굴복시키고자 오시게 될 때(민24:14)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된다.

이 때 모압과(렘48:47) 엘람(렘49:39)의 포로들이 되돌아온다. 이스라엘이 참 경배와 진정한 영적 지도자 없이 지낸 오랜 세월이 여기서 끝난다(호3:4-5). 주의 집의 산은 모든 사람들 위로 우뚝 솟을 것이며 민족들은 그리로 밀려올 것이다(사2:2, 말4:1). 소경인 이스라엘은 마지막 날들이 될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렘30:24).

신약 성경에서도 마지막 날들과 훗날들은 유대인과의 연관성을 여전히 유지한다. (물론 이따금씩은 교회 시대의 끝부분과 연관되기도 한다)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딤후3:1)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 교리에 대해 조롱하고 비웃을 것이다(벧후3:3, 유18).  
잔인한 부자는 세계 경제를 장악할 것이고(약5:3) 적그리스도는 권력을 잡을 것  
이다(요일2:18).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들은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들보다 월등히 뛰어날 것  
이다(히1:2). 하나님의 어린양께서 공개적으로 나타나실 것이고(벧전1:20), 하나  
님의 구원은 드러날 것이다(벧전1:5).

## 36. 영원

당신이 하늘에 대해 말할 때, 얼굴에 불을 밝혀  
하늘의 찬란함으로 찬란히 빛내도록 하라.  
당신의 일상적인 얼굴을 보이면 될 것이다.

Charles Haddon Spurgeon.

영원이란 시작이나 끝이 없는 계속되는 상태, 그리고 끝이 없는 지속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고 높으시며 영원에 거주하시는 분이시다(사57:15). 그분께서는 자신은 알파와 오메가(계1:8)라고 일컬으셨는데, 이는 시간의 범주 안에서 서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손의 작품이요, 그분의 지혜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영존하는 책이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를 시간의 영역 밖으로 데려가고 영존하는 시대들로 이끌며,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미래 세계를 한번 들여다 볼 수 있을 만큼의 기회를 준다.

현재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계21:1). 이 때 이 세상을(히11:3)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격렬한 열로 녹아 버릴 것이다(벧후3:11-12). 뒤

이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된다(벧후3:13). 이 재 창조(사 65:17-19) 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다(계21:5).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게 되며(계21:4), 옛 창조는 더는 생각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주어진다(사 65:17). 이로써 우리는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 호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하늘에서 행복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비로소 풀리게 되는 셈이다. 지난 일들에 대한 기억은 이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부활시켜 새롭게 하실 수 있다(그것도 죽은 지 수천 년 된 시체를). 이것은 그 몸을 최초로 만들 때 사용했던 원소들을 다시 모아 다시 구성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창조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주님께서 자신의 온 우주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에게서 믿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셨고(창1), 또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히1:3) 빚으셨고, 그것을 붙들고(골 1:17) 계신다. 그러니 필요할 경우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금속이 하나 있다. 니티놀55로 알려진 니켈 티타늄 합금은 높은 온도에서 복합체의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으나, 식어서 부서지면 알아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 합금을 재가열하면 다시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 간다.

붉은 해면은 그 몸체를 잘게 잘라 수천 개의 조각으로 만드는 장치를 통과해 나갈 수 있다. 이 모든 조각들이 신속히 작은 불덩이로 되돌아오면 해면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 창조주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이 작은 것들로 그리하실 수 있을진대 전 우주를 그리하실 수 없겠는가?

새 땅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남녀들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엡1:10, 램33:12-21, 겔37:25-27). 이들은 그리스도의 보존하시는 권능(단3장)에 의해



정결케 하는 불을 기적적으로 통과할 것이다.

영원이 동터올 때 우리는 모든 인류의 모든 부류(고전10:32)가 본래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유대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히브리 민족의 피난처로 삼으셨고(신33:27), 그들을 영원한 뛰어남(사60:15) 으로 만드실 것을 약속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된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이다(사66:12, 65:17). 이 지역으로부터 이들은 하늘의 왕국의 머리가 될 것이며(창17:8, 시24:7, 사60:15-21) 이때 다윗이 그들의 통치자로서 다스릴 것이다(겔37:25).

이들의 후손은 창세기 22:17과 26:4에 말씀하신 내용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때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다(사60:22). 이 때문에 점성가나 옛 천문학자들과 별을 추적하는 사람들은 하늘에 12궁이 있다고들 말한 것이다.

### **이방인**

아담의 후손 중 유대인이 아닌 자들은 12개의 민족으로 나뉘어(신32:7-9)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행17:24-27) 범주 내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 열두 민족은 각각 왕을 갖게 되고 이 왕은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고자 새 예루살렘 안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올 것이다(계21:24, 26, 슥14:16).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불 호수에 있는 자들을 보기 위해 거룩한 도시에 올 것이다(사66:23-24). 이는 더 이상의 반역이 없도록 하려 함이다.

###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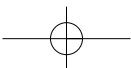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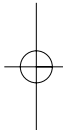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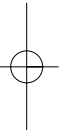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타락한 인류를 위한 구속을 성취하사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요3:15).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이미 시간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 영원 안으로 들어가 있는 셈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믿는 모두에게 주어지는(요10:28) 영원한 생명(롬6:23)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요일5:20).

피로 씻음 받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지체들은 영원을 통해 새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님과 함께 거할 것이다(갈4:26, 계21:2, 10-22, 22:1-2).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통해 자신의 은혜의 경이로움을 보이시고자 하실 때(엡1:11-12) 영원무궁토록 만천하에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앞에는 지속적인 찬양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계7:9-17).



## \* 지은이 : James W. Knox

제임스 낙스 형제는 1958년 2월 26일 루이지애나 배턴 루지에서 태어나 줄  
곧 플로리다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영어와 저널  
리즘을 전공했습니다.

제임스 낙스 형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76년 12월 17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이듬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  
작했습니다. 그는 1987년 미국 플로리다의 딜랜드에 성경침례교회를 세운 목회  
자이며 109개 나라에 성경공부 자료와 설교 테이프 자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  
는 전세계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1988년부터 지금까지 백 30만  
개의 자료들을 보급해 왔습니다.

제임스 형제는 테이프 사역과 문서사역을 통해 세계 곳곳의 지체들에게 다  
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들을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하도록 올바른  
지침을 마련하고 지금도 그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http://www.jamesknox.com>

## \* 옮긴이 : 김영균

한국외국어대학교 서반아어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영서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前 단국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조교수

前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강사

現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現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現 킹제임스성경신학원 원장